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보통사람을 위한 솔직한 보고서”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조사대상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E-mail Survey)
표본규모	10,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0.98\%$)
모집단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중 20~64세 취업자 24,177천명 (통계청, 2021년 2/4 취업자 통계)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 : 성, 연령, 지역의 모집단 구성비 고려
조사 기간	2021년 9~10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보통사람 금융생활 조사'는
마케팅 조사·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 (주)컨슈머인사이트'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간사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가 올해로 여섯 번째 발간을 맞았습니다.

매해 이슈가 되었던 경제 현상을 짚어보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금융 이야기를 풀어내며
대한민국 대표 금융 보고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변해가는 사회 경제적 모습과 소비 패턴을 조명하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연령별 은퇴 준비 현황과 소득 구간별 지출 분석을 통해
미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과 손잡고 '삶의 질'을 정량화하여
다양한 금융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담아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서로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통해
고객님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시 유의 사항

1 본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의 표본은 조사 연도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였습니다.

표본 특성

	구분	사례수
	전체	10,000명
성별	남성	5,721명
	여성	4,279명
연령	20~29세	1,534명
	30~39세	2,182명
	40~49세	2,615명
	50~64세	3,669명
지역	서울	1,909명
	경기/인천	3,296명
	대전/충청/세종	1,108명
	광주/전라	912명
	대구/경북	923명
	부산/울산/경남	1,434명
	강원	280명
	제주	138명
직업	자영업/기업운영	1,109명
	사무직/공무원/교육직	5,735명
	전문직	794명
	판매서비스/기능/생산직	1,280명
	프리랜서	467명
	학생/기타	615명

월평균 가구 총소득 범위

구분	사례수	소득 범위
가구소득구간	1구간	2,000명 ~ 250만원
	2구간	2,000명 250만원 ~ 380만원
	3구간	2,000명 380만원 ~ 500만원
	4구간	2,000명 500만원 ~ 700만원
	5구간	2,000명 700만원 ~

* 본 보고서의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2 본 보고서는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무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도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이 보고서별로 상이하므로 비교 등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3 본 통계 정보는 잠정치로 다음 연도 조사 시 보완 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사는 마케팅 조사·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인 '(주)컨슈머인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5 본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한은행 Mydata Unit,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이라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여 대외에 공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1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

1. 소득	10
2. 지출 소비 부채상환 저축/투자	13
3.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25
4. 부채	34
5.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40

02

보통사람 삶의 질

1. 삶의 질과 만족도	44
2. 인구 통계 특성으로 본 삶의 질	47
3. 금융생활로 본 삶의 질	49

03

2021년 보통사람 핵심이슈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대응	56
2.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60
3. 코로나19 이후 교육비 변화	66
4. 코로나19 이후 대체소비	68
5. 최근 1년 내 2030 거주 주택 구입 행태	70
6. 20~44세 결혼준비행태 변화	74
7. 2030의 자녀출산인식 변화	76
8.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2030의 노후 준비	78
9.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40대	82
10. 50~64세의 은퇴 준비 현황	86

04

Life Stage별 금융생활

그룹1. 20대 미혼	94
그룹2. 3040 미혼	96
그룹3. 2040 기혼 무자녀	98
그룹4. 2030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100
그룹5. 4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102
그룹6. 40대 기혼 중고등생 자녀	104
그룹7. 50대 기혼 중고등/대학생 자녀	106
그룹8. 50대 기혼 학업완료 성인 자녀	108
그룹9. 60대(60~64세)	110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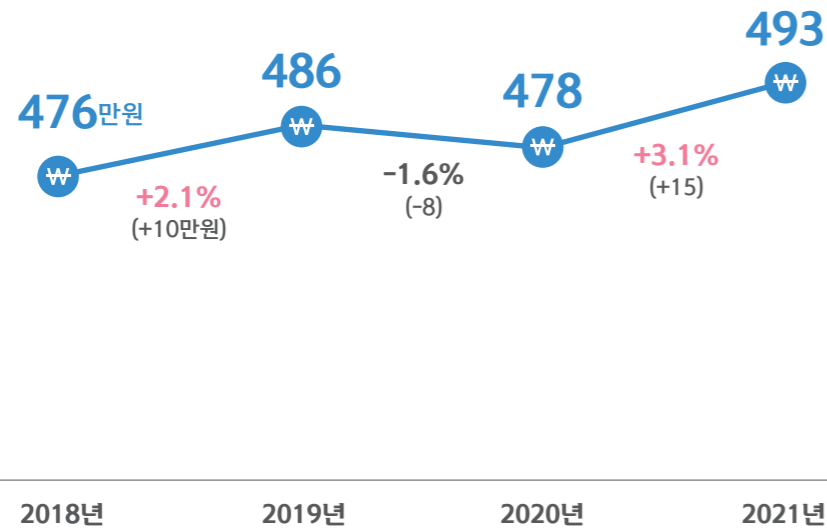
1. 소득	10
2. 지출 소비 부채상환 저축/투자	13
3.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25
4. 부채	34
5.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40

1. 소득



● 월평균 가구 총소득*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소득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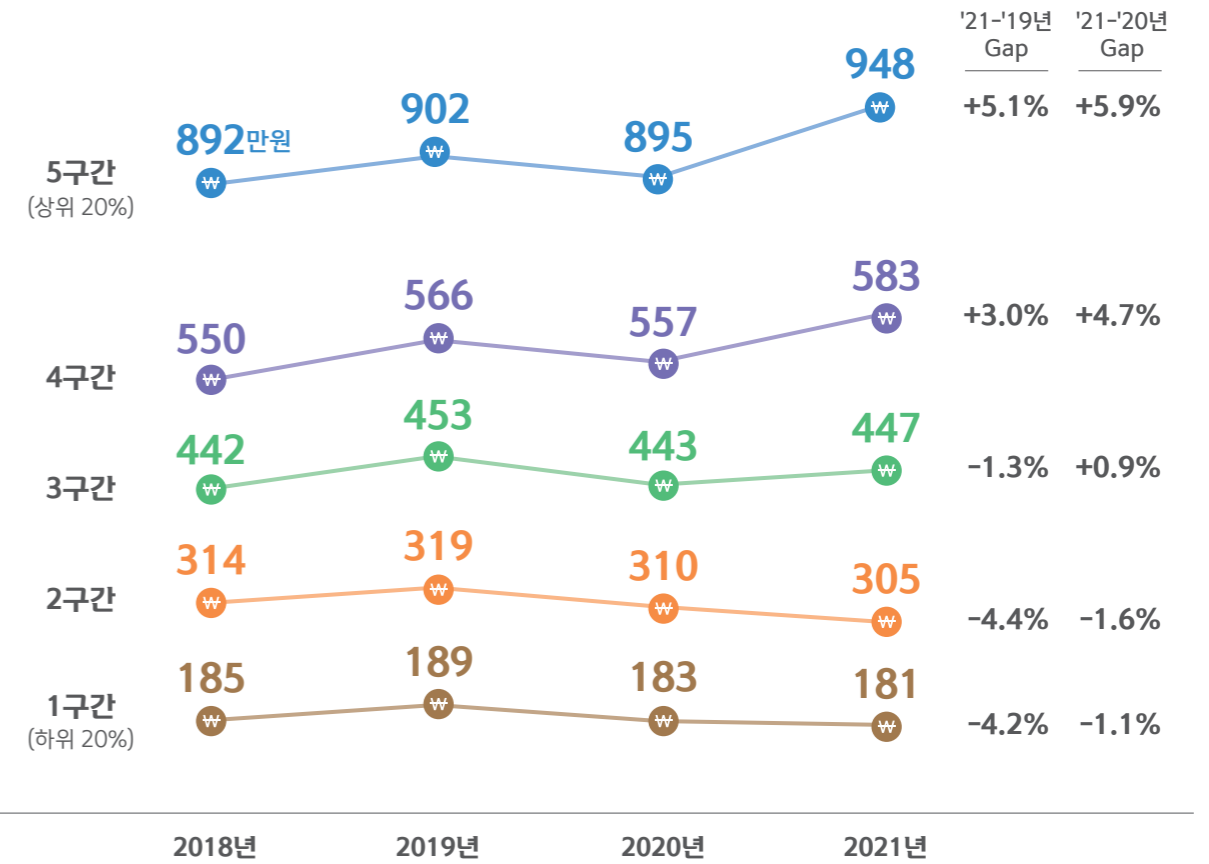


2021년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493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2020년보다 15만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는 7만원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 **가구 총소득** |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가구 총소득은 상위 40% 4·5구간만 회복



2019년에 모든 가구소득 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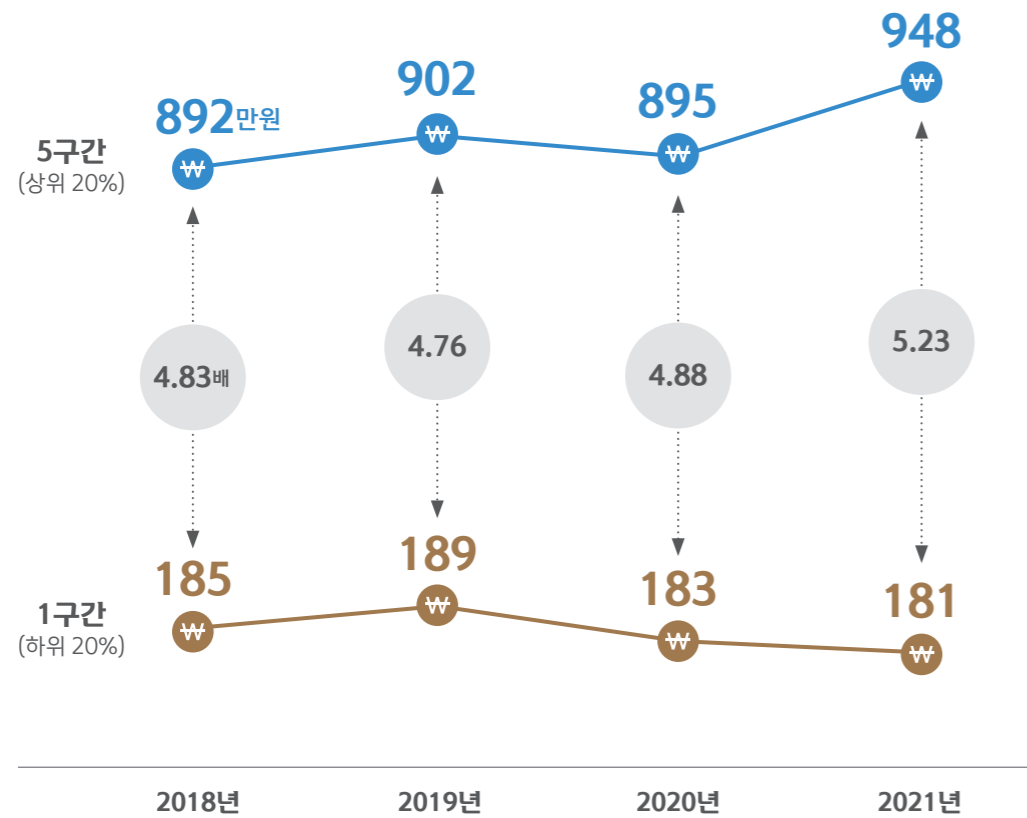
1구간, 2구간 총소득은 2021년에도 감소해 지난 4년 중 가장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태 불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구간은 2020년보다 0.9%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반면 4구간, 5구간 총소득은 각각 4.7%, 5.9% 늘어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며 지난 4년간 가장 컸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더 크게 증가했다.

* **가구소득 구간** | 가구 총소득을 순서대로 20%씩 5개로 나눈 구간(1구간은 가구소득 하위 20%, 5구간은 가구소득 상위 20%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짐)

가구소득 1구간과 5구간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 비교

저소득층은 덜 벌고, 고소득층은 더 벌면서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지난 4년 중 가장 커져



가구소득 하위 20%인 1구간 소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구간 소득은 2020년 7만원 감소했다가 2021년 53만원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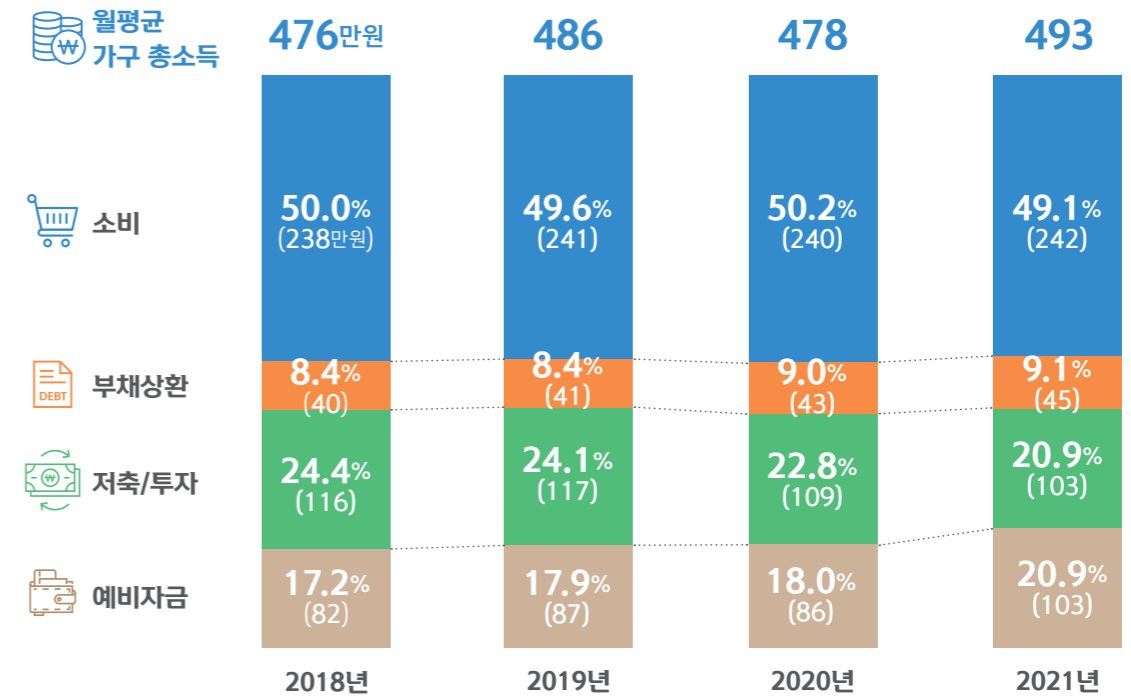
2020년까지 1구간과 5구간의 소득 격차는 4.8배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5.23배 격차를 보이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2. 지출



월 지출 행태 (월평균 가구 총소득 내 지출 비중)

소득 증가에도 저축/투자 줄이고 예비자금 늘려



2021년 총소득이 증가하면서 지출 행태는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월 총소득의 절반 정도를 소비하는 행태는 지속했으나 2021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부채 상환액은 2018년부터 계속 늘고 있지만, 소득의 10%를 넘기지는 않았다.

지난 4년간 저축/투자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예비자금 비중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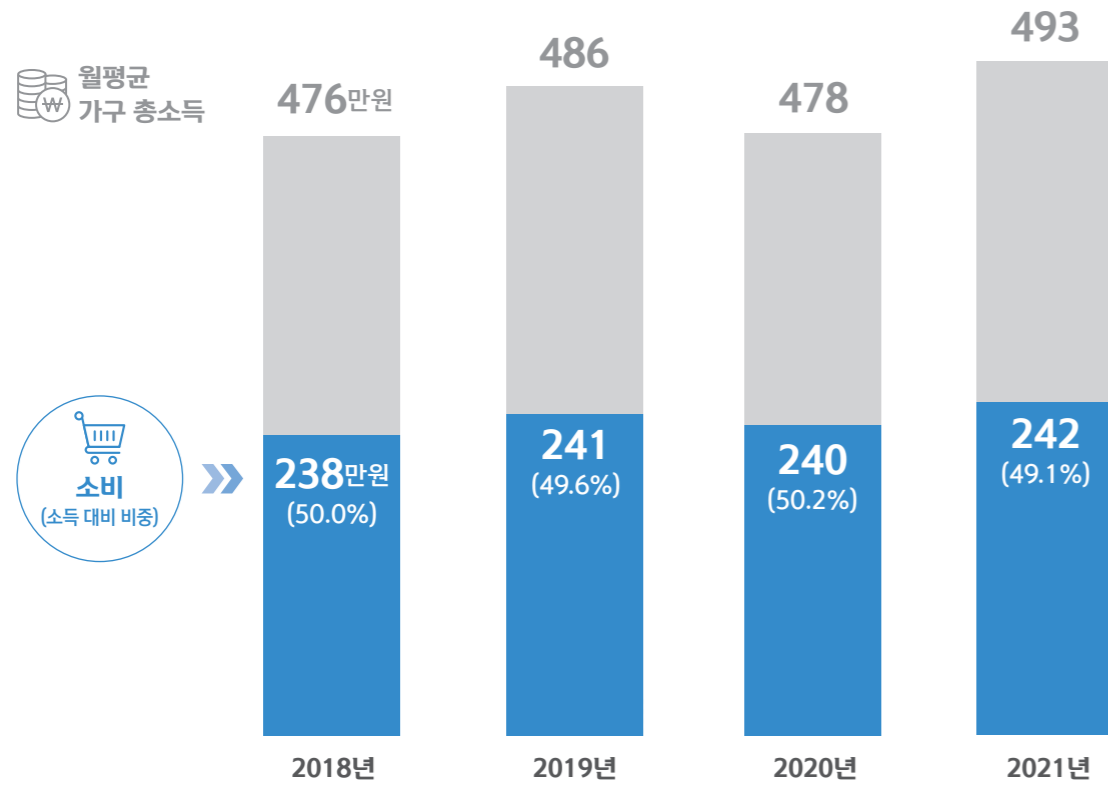
2021년 예비자금은 2020년보다 17만원 늘어 저축/투자 금액과 같았다.

저축 여력이 있음에도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가구 내 여유자금 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월평균 소비액

소득이 늘든 줄든 절반은 소비 지출



2021년에는 월평균 총소득 493만원 중 49.1%인 242만원을 소비에 지출했는데, 소득이 2020년보다 15만원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소비액은 2만원 증가에 그쳤다.

소득의 증감과 상관없이 소비액은 2018년부터 줄곧 240만원 전후로 지난 4년간 총소득의 절반 가량을 소비에 지출했다.

소비 항목별 월 소비액 비중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교육비와 여가/취미/유흥비 증가

월 소비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월 소비액	238만원 (+3만원)	241	240	242
식비	20.2% (48만원) +2	20.8% (50) +3	22.1% (53) +1	22.3% (54)
교통/통신비	14.7% (35) +1	14.9% (36) -1	14.6% (35) +1	14.9% (36)
월세/관리비	10.5% (25) +1	10.8% (26) +1	11.3% (27)	11.2% (27)
교육비	12.2% (29) -1	11.6% (28)	11.7% (28) +2	12.4% (30)
의료비/건강보조 식품 구입비	5.0% (12) +2	5.8% (14) +2	6.7% (16) -2	5.8% (14)
의류/패션잡화/미용비	5.5% (13) +1	5.8% (14) -1	5.4% (13) -1	5.0% (12)
여가/취미/유흥비	8.0% (19) +1	8.3% (20) -5	6.3% (15) +2	7.0% (17)
모임 회비	3.8% (9)	3.7% (9) -1	3.3% (8) -1	2.9% (7)
용돈 지급	6.3% (15)	6.2% (15) -1	5.8% (14) -1	5.4% (13)
기타 소비	13.8% (33) -4	12.1% (29) +2	12.8% (31) +1	13.1% (32)

2021년 소비 항목별 월 소비액은 1~2만원 내외의 증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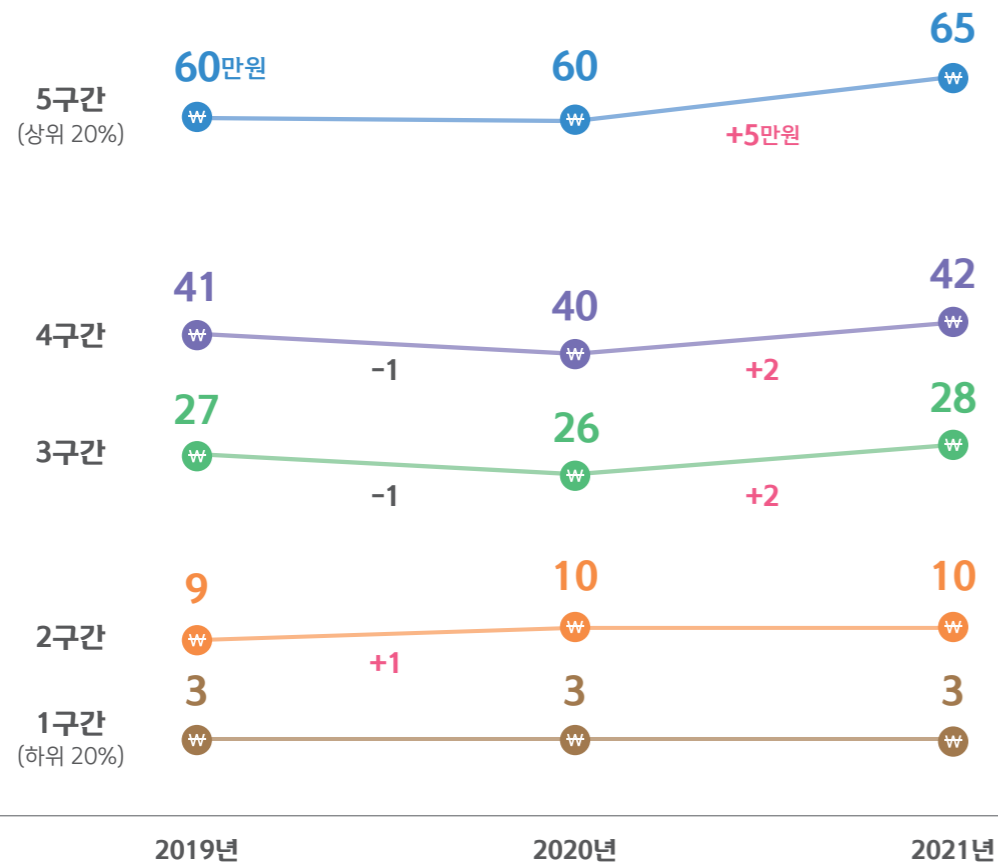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지난 4년간 계속 증가해 2021년에 월 54만원을 지출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급감했던 여가/취미/유흥비는 2021년에 17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고, 교육비는 30만원 지출하며 월 소비액 내 비중이 12.4%로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었던 의료비/건강보조식품 구입비는 2021년에 2만원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아졌다.

가구소득 구간별 정기적 교육비 월 소비액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중·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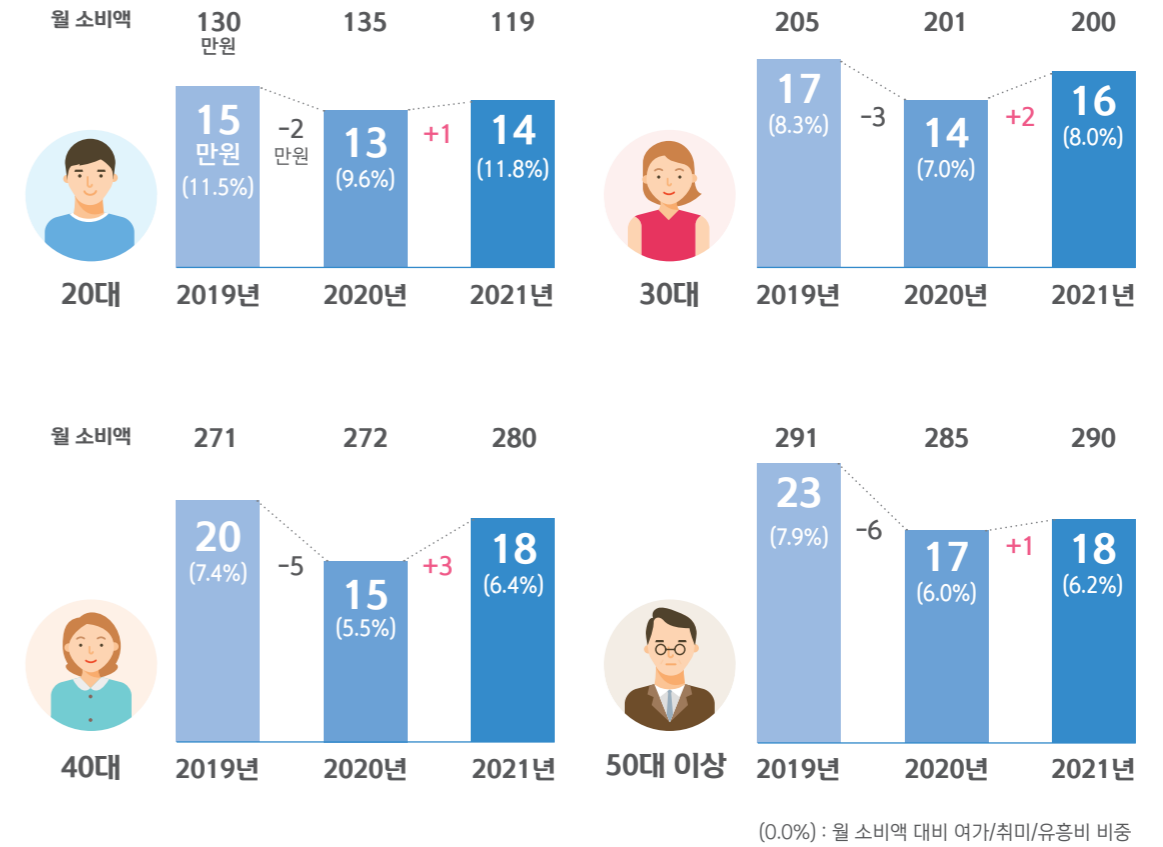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 구간별로 교육비 변화는 차이를 보였다.

2020년에는 교육비가 유지되었으나, 2021년에는 3구간 이상의 중·고소득층에서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교육비를 2019년 수준으로 다시 늘렸다. 특히 5구간에서는 2019년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부진했던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가구 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구소득 1,2구간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교육비 지출을 유지했다.

연령별 여가/취미/유흥비 월 소비액

코로나19로 줄어든 여가/취미/유흥비 지출 서서히 회복,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쳐



20~64세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여가/취미/유흥비가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여가/취미/유흥비가 소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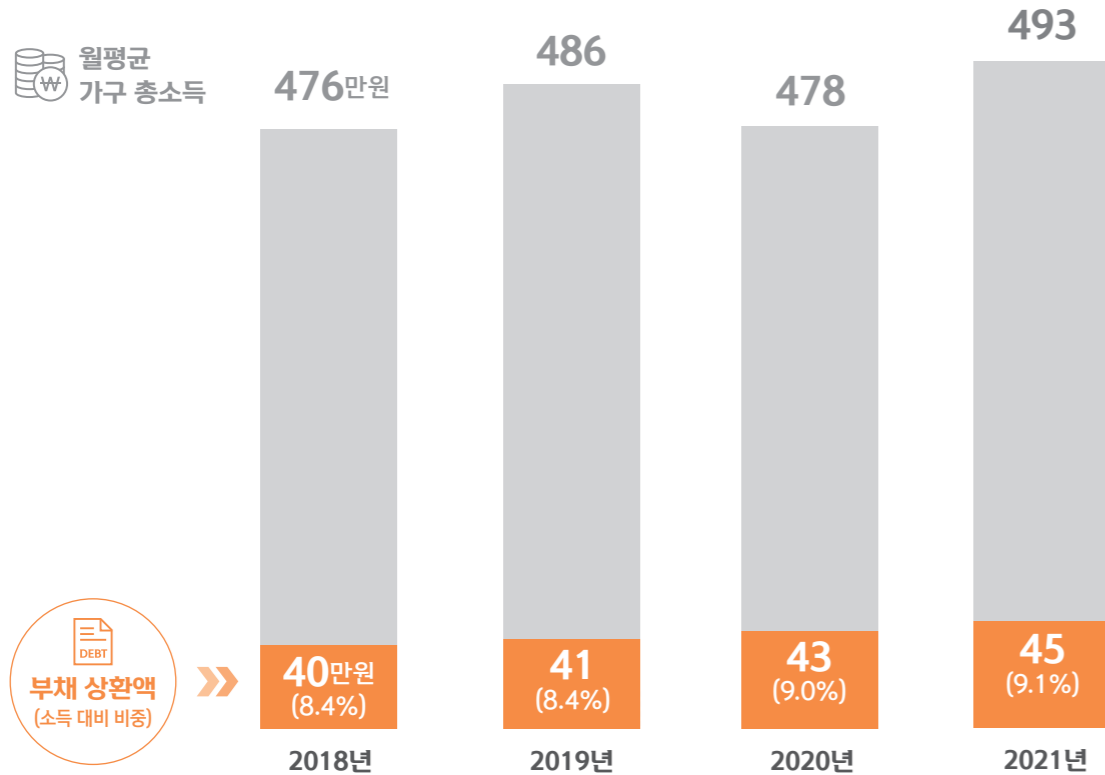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방역 완화 정책 시행으로 여가/취미/유흥비 지출이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40대 이상은 월 총소비액과 함께 여가/취미/유흥비가 증가한 반면 20대, 30대는 월 총소비액이 줄었음에도 여가/취미/유흥비 지출은 늘었다.

부채 상환

월평균 부채 상환액*

소득이 늘든 줄든 부채 상환액은 증가



지난 4년간 총소득 증감과 상관없이 부채 상환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총소득이 8만원 줄었던 2020년과 15만원 늘었던 2021년의 부채 상환액은 각각 2만원씩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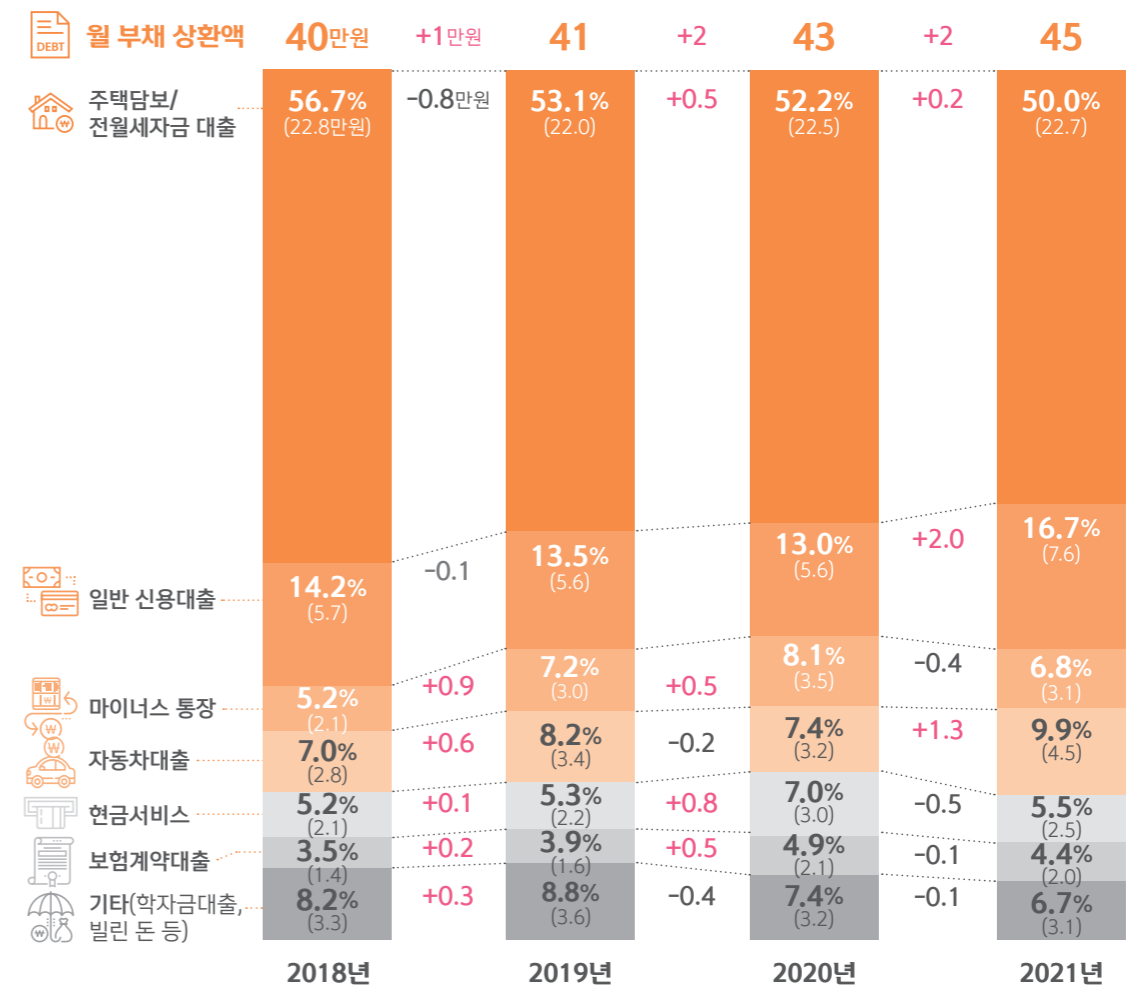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에는 소득 내 부채 상환액 비중이 8%대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9%대로 증가했다.

* 부채 상환액 |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월 지출하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

대출상품별 월 부채 상환액 비중

주택담보/전월세자금 대출 상환액 비중은 줄고,
일반 신용대출은 늘어



지난 4년간 부채 상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자금 대출로,

총 부채 상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비중은 점차 줄었다.

반면 2020년까지 5만원대를 유지하던 일반 신용대출 상환액은 2021년에는 2만원 늘고 비중도 16.7%로 급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차량 구입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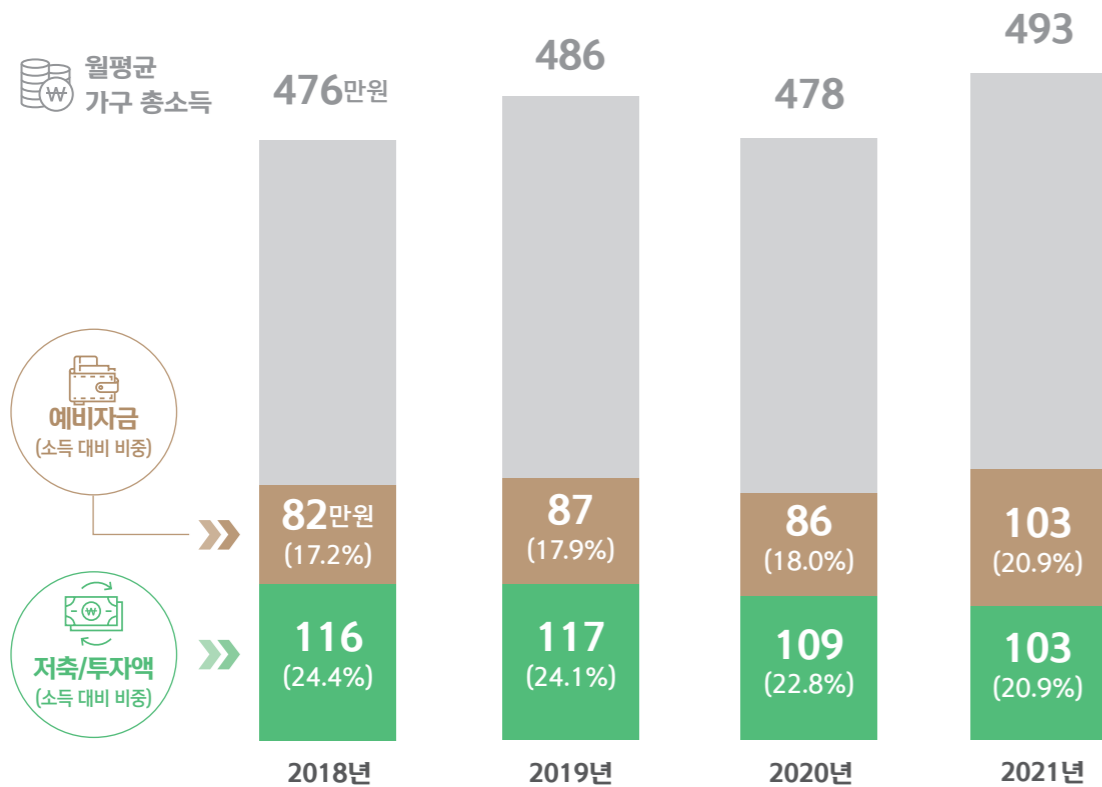
마이너스 통장,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상환액은 2020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늘었다.

저축/투자

월평균 저축 여력

나아진 저축 여력에도 예비자금 확보하고,
금융상품에 저축/투자는 더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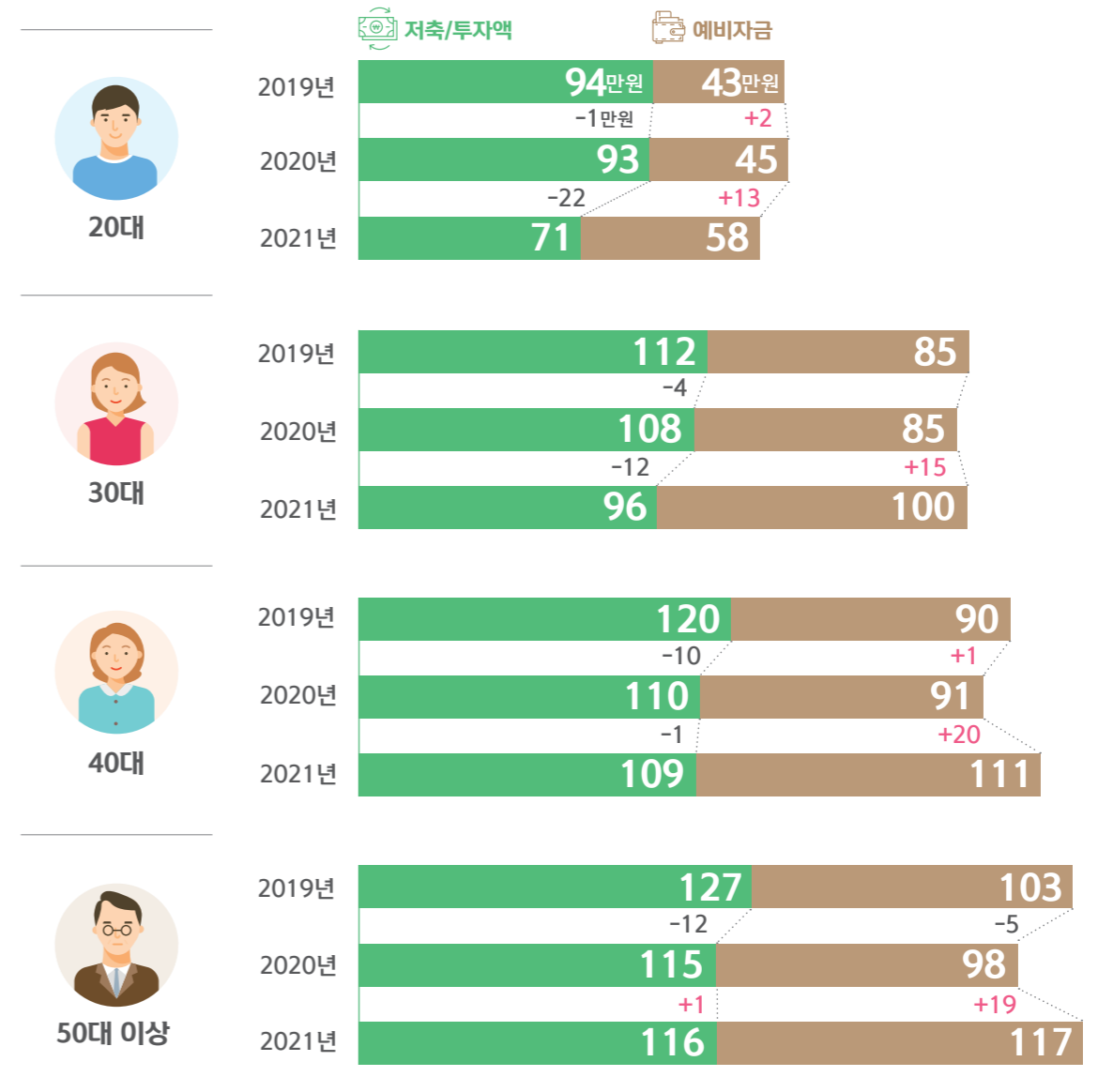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2019년에는 총소득의 24%를 저축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소득 증감과 상관없이 저축/투자액은 점차 감소한 반면 예비자금은 증가했다.

2021년 소득은 2020년보다 15만원 늘었지만 저축/투자액은 6만원 줄어 소득 대비 저축/투자 비중이 20.9%에 그쳤다.

반면 예비자금은 2018년~2020년에 8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103만원으로 늘었는데, 예기치 못한 목돈 지출 상황에 대비하거나 새로운 투자처에 활용할 용도 등으로 보인다.

연령별 월 저축/투자액 및 예비자금

고연령층 저축/투자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저연령층은 저축 더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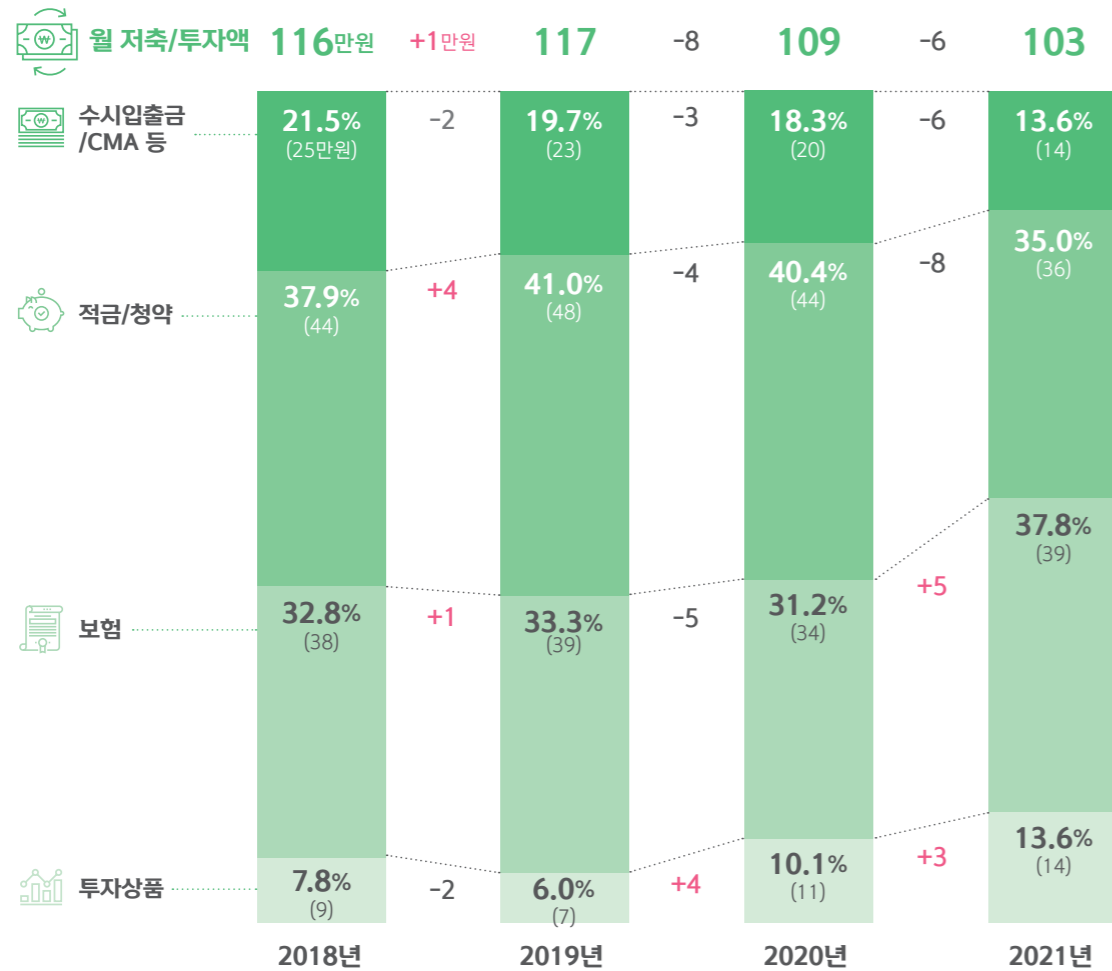


20~64세 모든 연령층에서 2021년에 예비자금이 10만원 이상 늘었지만 저축/투자액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40대 이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저축/투자액이 10만원 가량 줄었고, 2021년에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20대, 30대는 2020년보다 각각 22만원, 12만원 더 줄었다.

○ 금융상품별 월 저축/투자액 비중

투자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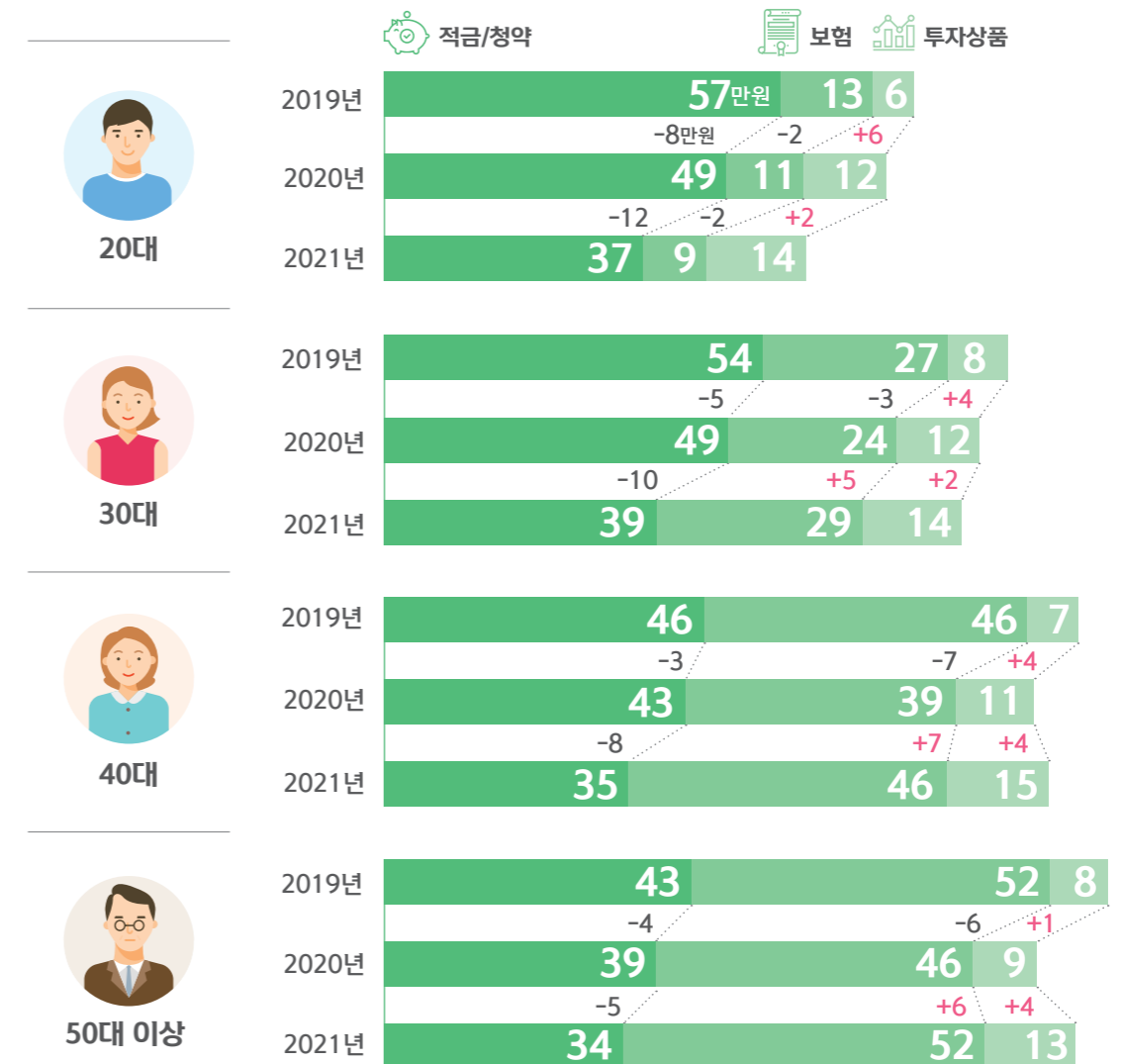


2020년에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공격적인 투자상품 비중을 늘렸는데, 이는 2021년에 더욱 심화됐다. 적금/청약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줄어 2021년에는 35.0%로 2020년보다 5.4%p 급감했다. 2020년에 줄었던 보험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저축/투자 비중이 37.8%로 높아지며 적금/청약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감소했던 수시입출금/CMA 등 비중은 2021년에는 13.6%로 2020년보다 4.7%p 줄었다. 반면 2019년에 감소했던 투자상품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2021년에는 13.6%로 수시입출금/CMA 등과 비슷해졌다.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상품보다 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있는 투자상품 비중을 더욱 늘린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 금융상품 월 저축/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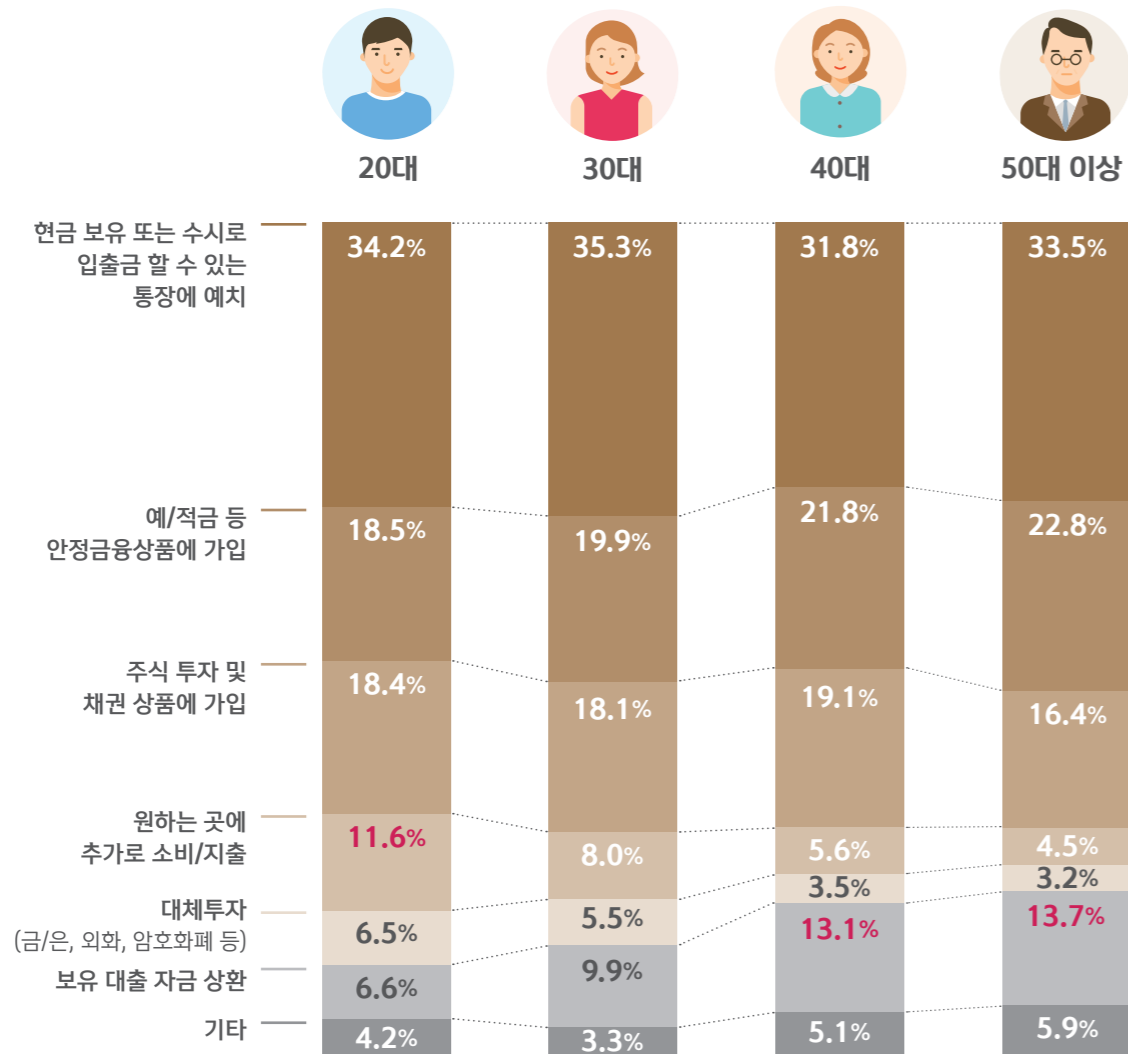
저금리로 적금/청약 지속 감소, 20~30대는 10만원 이상 줄어



모든 연령층에서 2020년부터 적금/청약 저축액은 감소한 반면 투자상품 비중은 증가했다. 저금리로 인해 적금/청약을 줄이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상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30대는 2020년보다 2021년에 적금/청약 저축액이 각각 12만원, 10만원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저축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40대, 50-64세는 2021년에 보험 납입액이 각각 7만원, 6만원 증가했는데, 2020년에 줄어든 만큼 2021년에 늘면서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연령별 예비자금 활용처

지출 후 남은 돈은 현금 또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보유,
20~30대는 추가 소비에, 40~60대는 대출 상황에 활용



모든 연령층의 30% 가량은 소비, 부채상환, 저축/투자 등 고정 지출 후 남은 예비자금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수시 입출금 통장에 예치해두었다. 20% 가량은 예/적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나 주식 투자/채권 상품에 가입하는 데 활용했다.

그 외 활용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의 10% 가량은 원하는 곳에 추가로 소비/지출하거나 금/은, 외화,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으며 40대 이상의 13%는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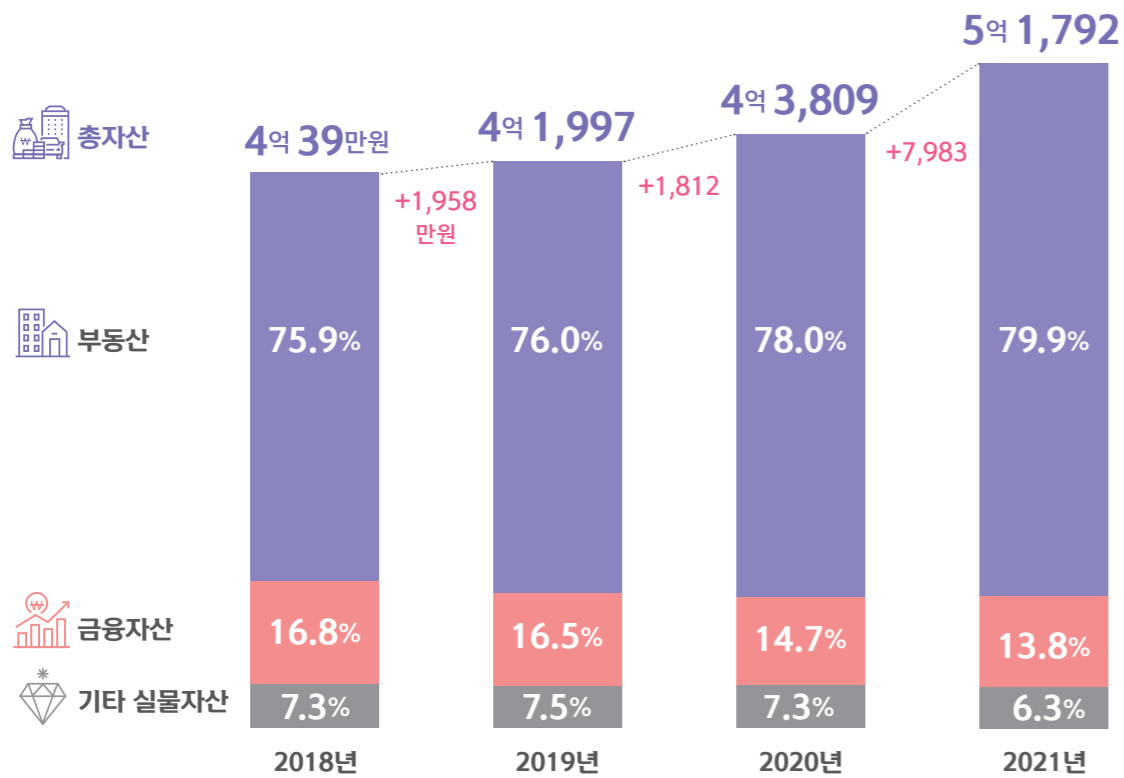


3. 자산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총자산 5억원 돌파, 부동산 쏠림 현상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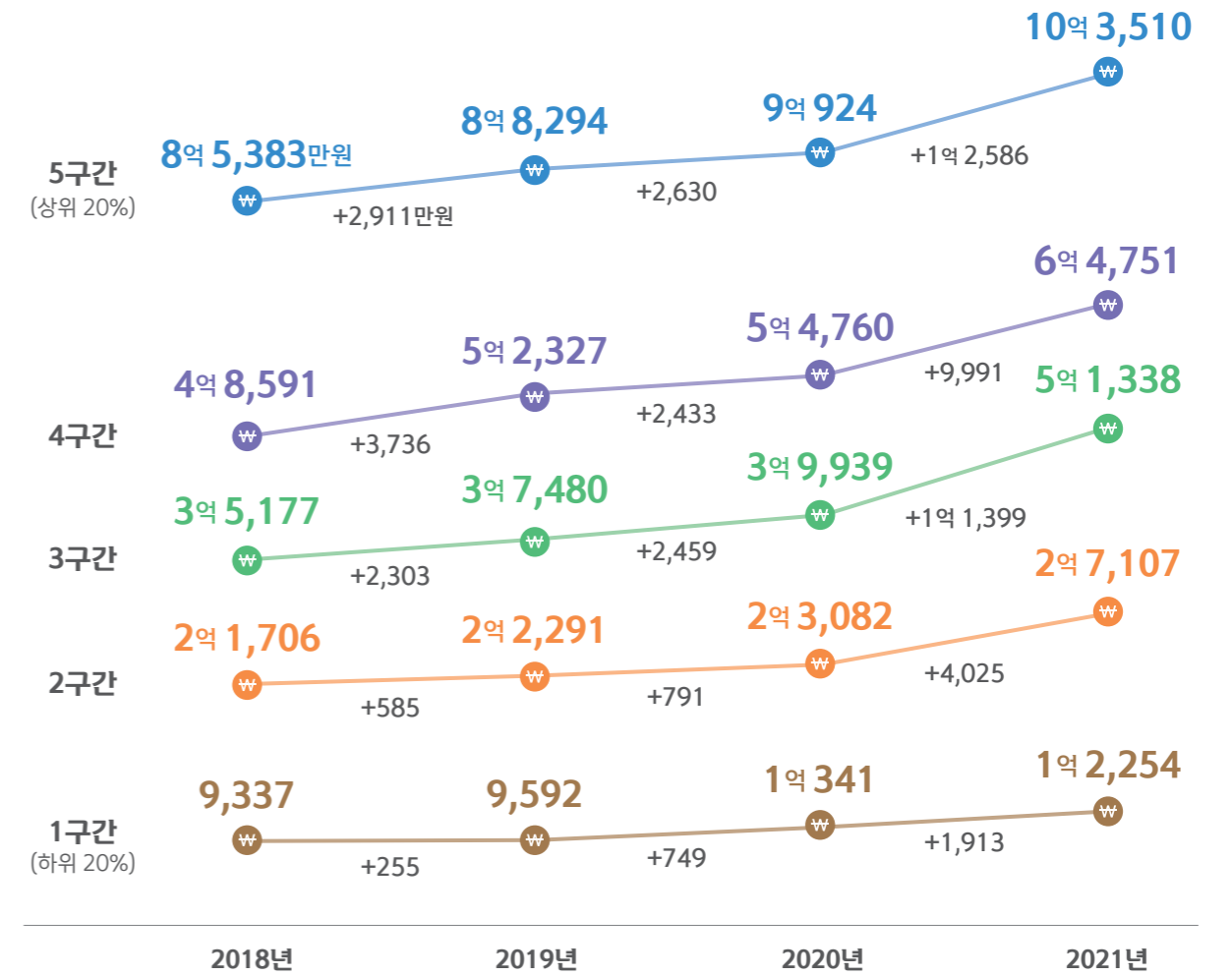


총자산은 2018년부터 매년 2천만원 가량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5억 1,792만원으로 2020년보다 7,983만원 늘었다.

총자산 내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은 지난 4년간 증가해 2021년에 79.9%로 늘어난 반면,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13.8%, 6.3%로 줄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구간별 평균 보유 자산

중·고소득층 총자산 평균 약 1억원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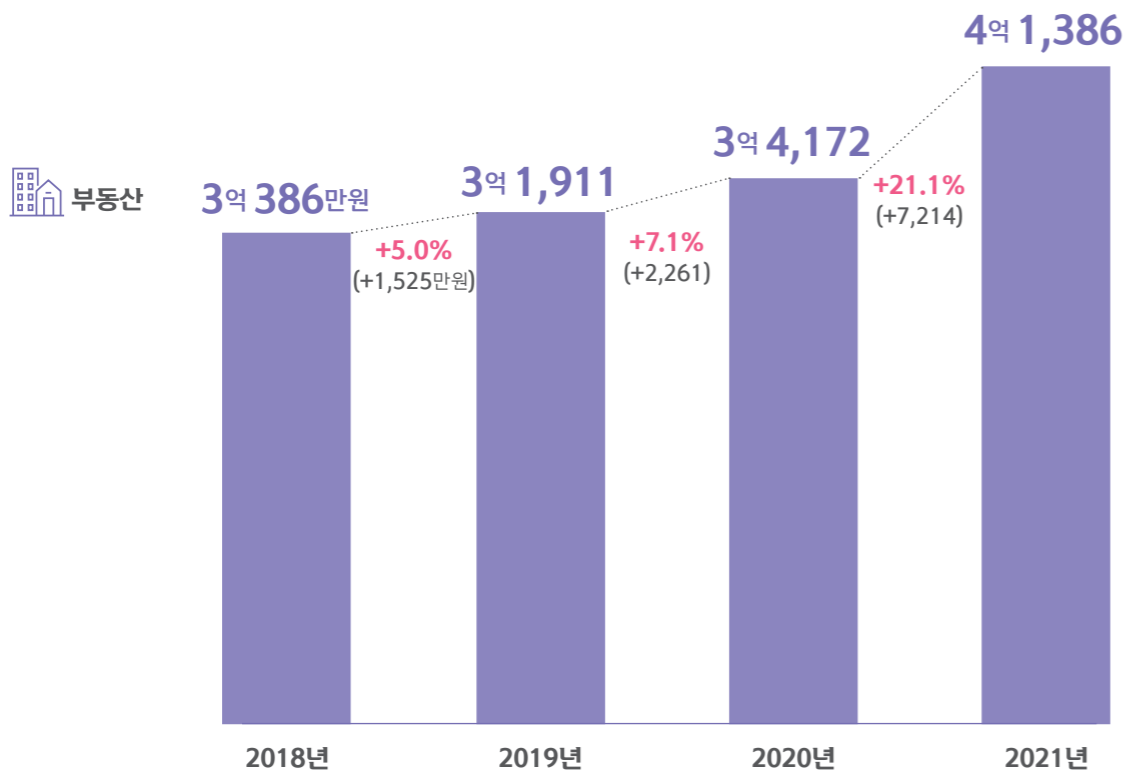
지난 4년간 가구소득 1~5구간에서 모두 평균 보유 자산이 늘었다. 2020년까지 1~2구간은 자산이 1천만원 미만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상승폭이 더욱 커져 1구간은 2천만원, 2구간은 4천만원 늘었다.

3~5구간은 2~3천만원 증가를 보이다 2021년에 1억원 전후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2020년 증가액의 4배 수준이었다. 특히 고소득층인 5구간은 자산이 2020년보다 1억 2,586만원 늘어 1~5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고,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부동산 자산 규모

부동산 자산 규모 21% 급등, 지난 4년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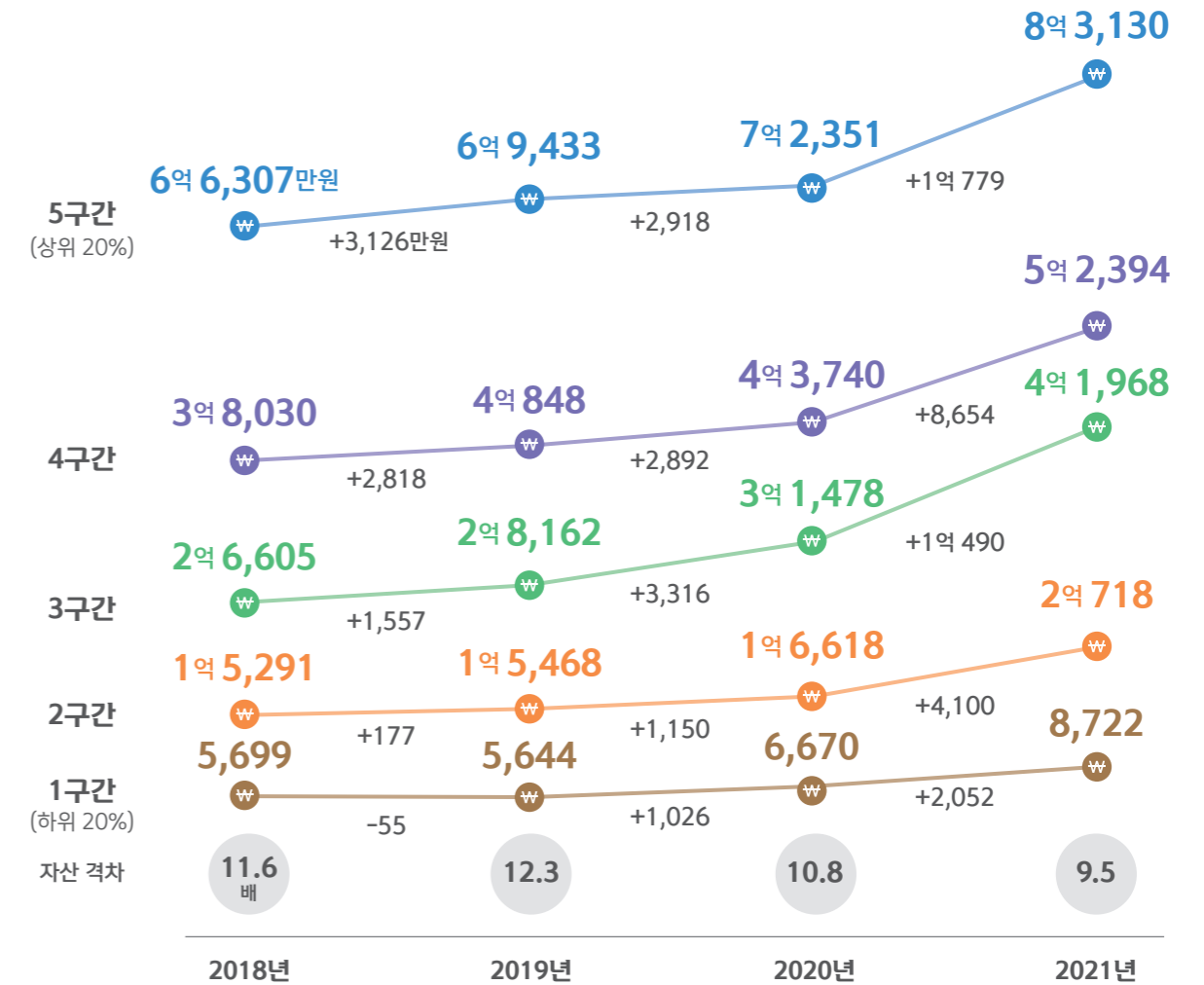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지난 4년간 규모가 점차 커졌다.

2019년에 5.0%, 2020년에 7.1% 증가했던 부동산 자산은 3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21.1% 급등하면서 4억 1,386만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자산 규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중·저소득층 부동산 자산 증가폭 컸지만, 소득 상위 20%인 5구간 부동산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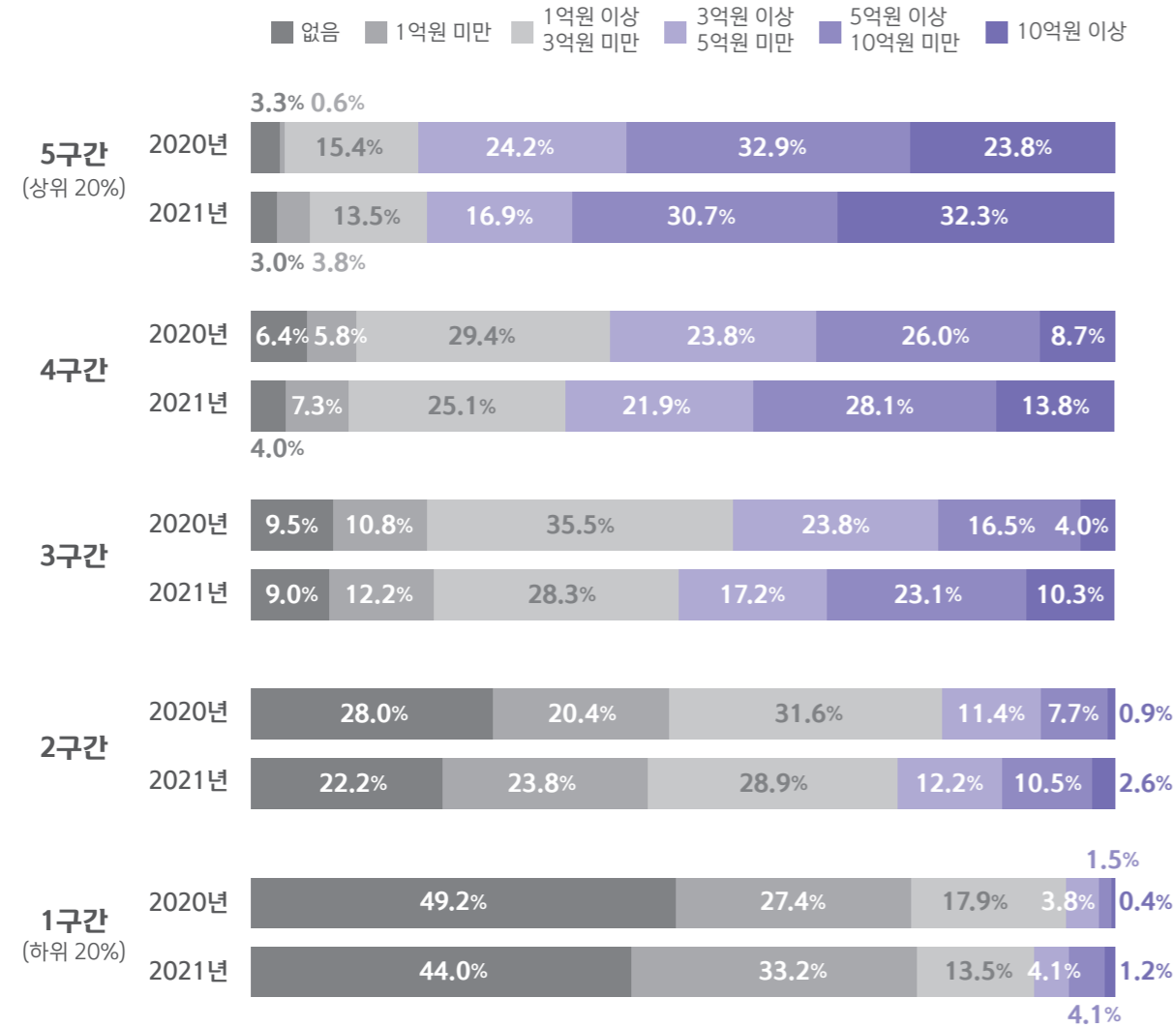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2021년에 부동산 자산 규모가 2020년보다 커졌고, 자산 규모가 큰 3~5구간의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3구간과 5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2020년보다 1억원 이상 급증해 각각 4억 1,968만원, 8억 3,13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자산 증가 규모는 1구간의 부동산 자산보다도 큰 금액이었다. 4구간은 5억 2,394만원으로 2020년보다 8,654만원 늘었다. 2019년에 부동산 자산이 소폭 감소했던 1구간은 2020년에 증가세를 회복했고, 2021년에는 8,722만원으로 2020년보다 2,052만원 늘었다. 2구간은 2020년보다 4,100만원 늘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2020년까지 10배 이상이던 1-5구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9.5배로 줄었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변화

중소득층인 3구간 부동산 자산 커지고,
고소득층인 5구간의 1/3은 10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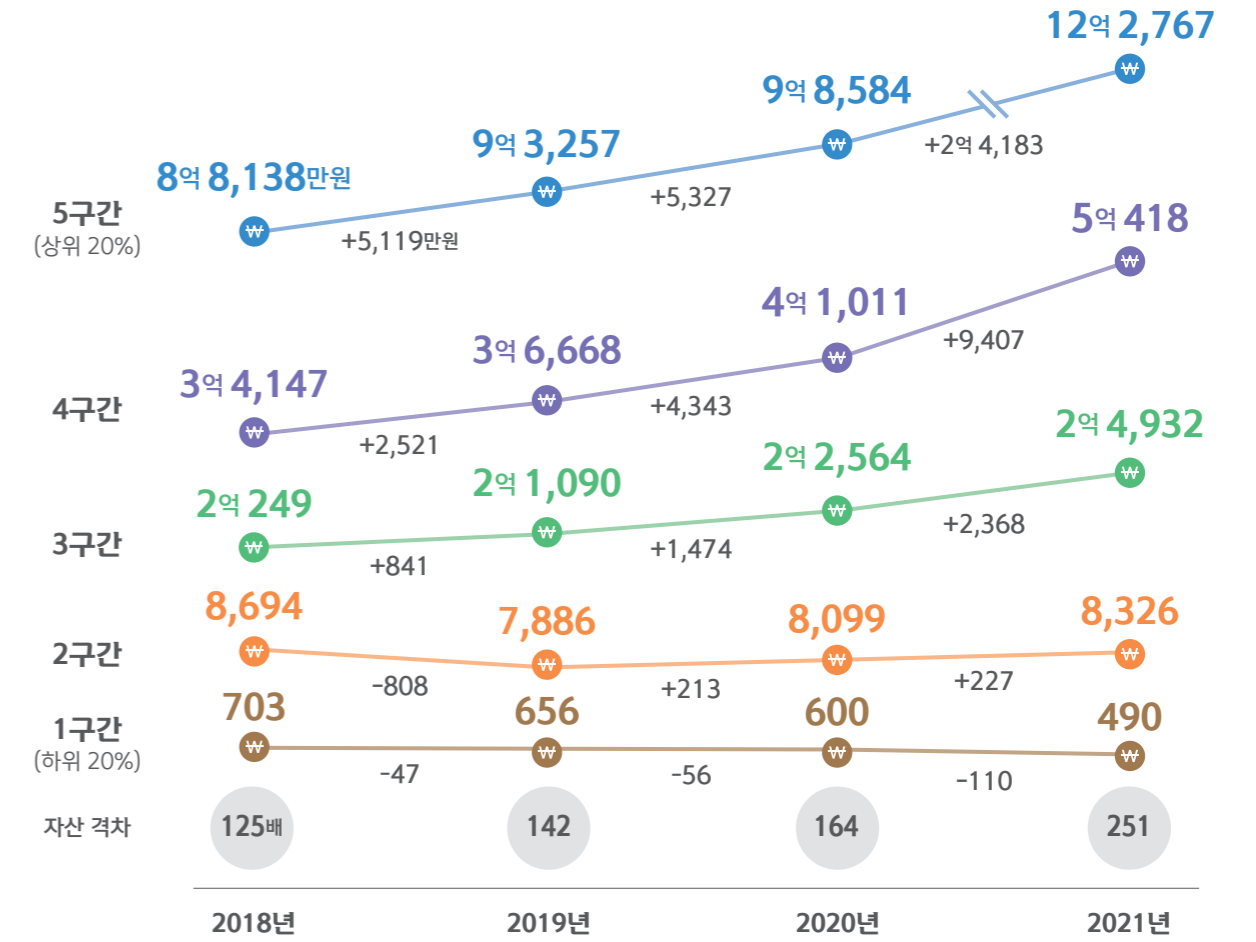
모든 소득구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소폭 줄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규모가 컸다.

1~5구간 중 2020년 대비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3구간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2020년에 16.5%에서 2021년에 23.1%로, 10억원 이상 보유한 비율은 4.0%에서 10.3%로 늘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가장 높은 5구간은 2020년에 23.8%에서 2021년에 32.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5구간의 1/3은 10억원 이상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

총자산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저자산층 부동산 자산은 계속 줄고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상승폭은 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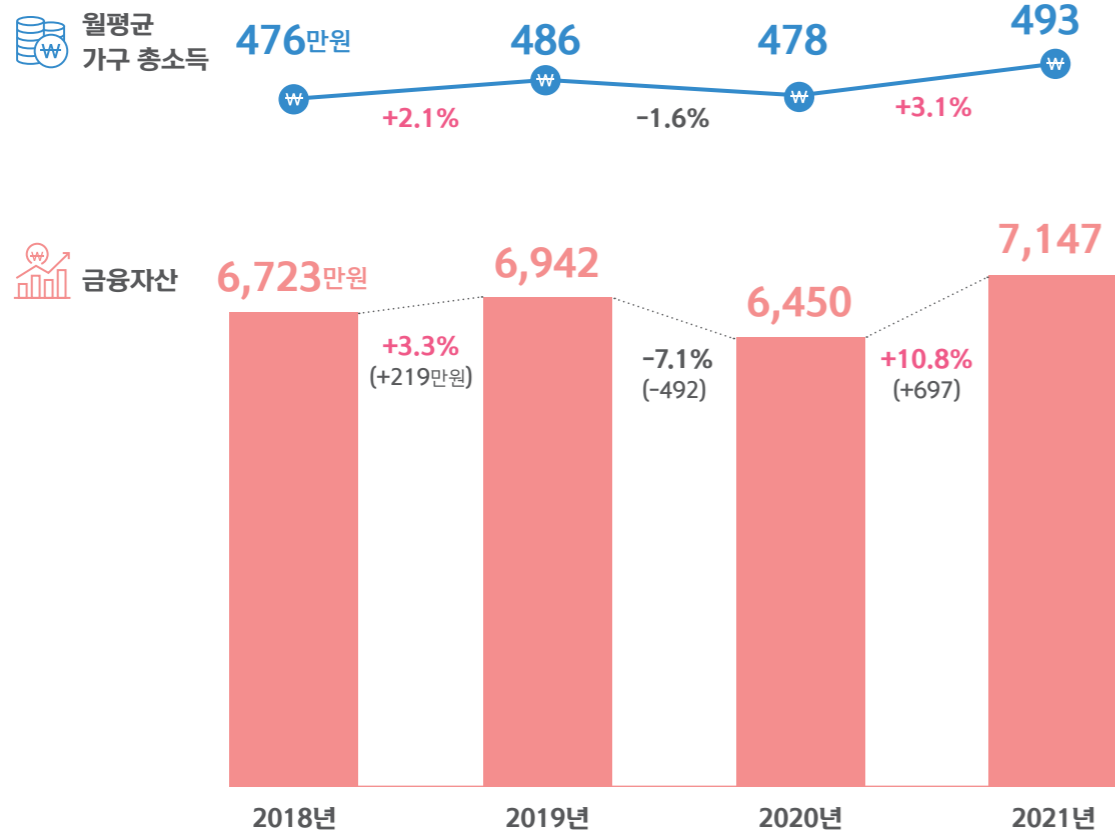
총자산 구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인 1구간은 2018년에 703만원이던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년 감소폭이 커지면서 지난 4년간 213만원 줄어 2021년에 49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2구간은 2019년에 줄었던 부동산 자산 규모가 2020년부터 매년 200만원씩 늘어 2021년에 8,326만원으로 증가했다. 중·고자산층인 3구간 이상은 2018년 이후 꾸준히 부동산 자산 규모가 커졌는데, 3구간은 지난 4년간 2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4구간은 꾸준히 올라 2021년 부동산 자산이 5억원대로 증가했다. 5구간은 2020년보다 2억 이상 급증하면서 9억원대에서 12억원대로 늘었다. 2018년에 125배 수준이던 1~5구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21년에 251배로 더 커져 총자산 증가에 부동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총자산 구간 | 가구 총자산을 순서대로 20%씩 5개로 나눈 구간
1구간은 총자산 하위 20%, 5구간은 총자산 상위 20%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총자산이 커짐

금융자산

금융자산 규모

줄었던 소득 회복하면서 금융자산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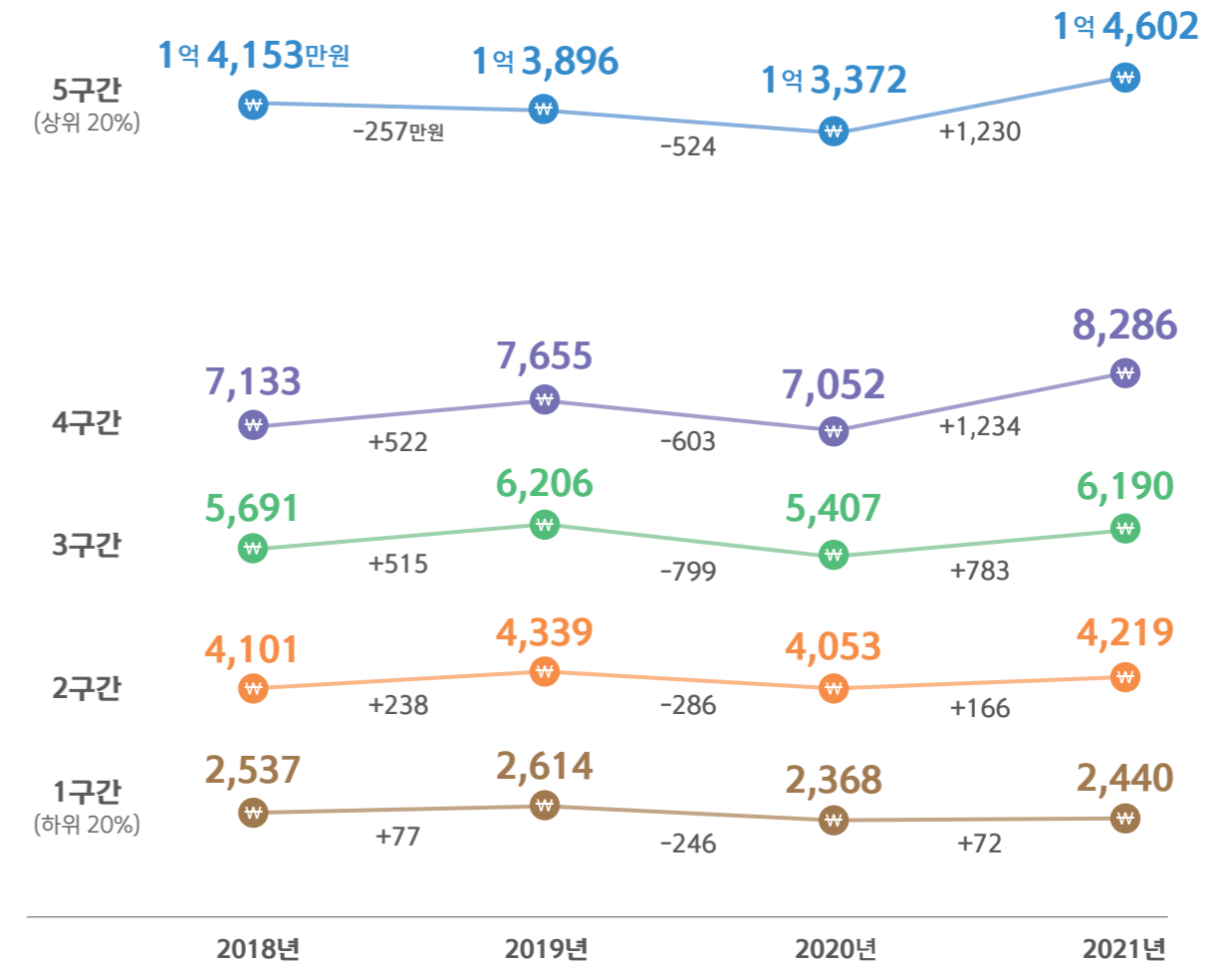
금융자산은 총소득이 증가한 2019년에는 늘고, 총소득이 감소한 2020년에는 줄었다.

2021년에 금융자산은 소득이 다시 증가하면서 2020년보다 10.8% 늘어난 7,147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줄었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투자상품 비중을 늘리고, 기존에 보유한 투자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금융자산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구간별 금융자산 규모

코로나19 이전 소득 회복한 4·5구간, 금융자산 규모도 지난 4년 중 가장 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모든 가구소득 구간에서 줄었던 금융자산이 2021년에 다시 늘었다.

특히 고소득층인 4, 5구간은 2021년에 총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보다 금융자산 규모가 커졌고, 각각 1천만원 이상 늘면서 1~5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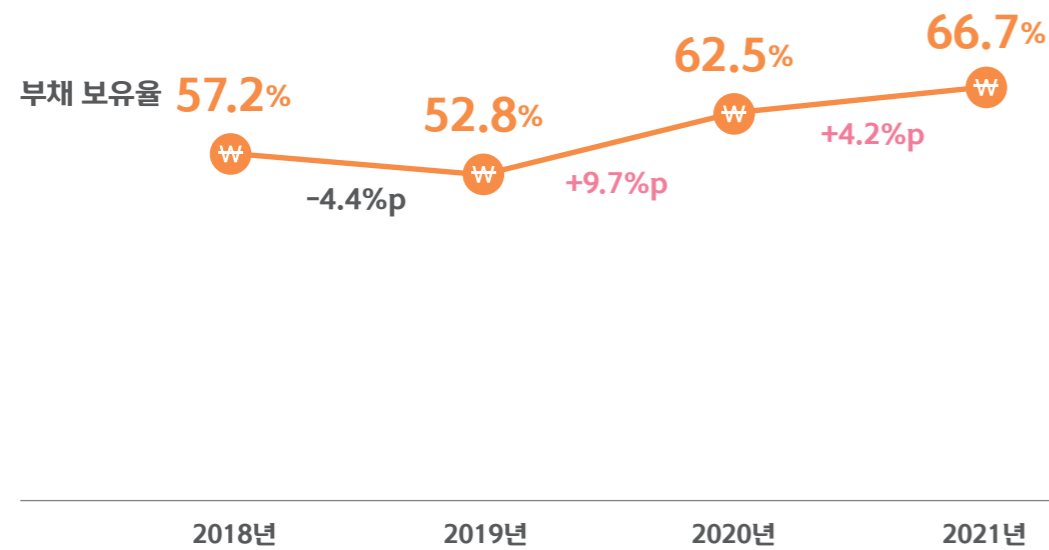
3구간은 2020년보다 783만원 증가해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한 반면, 1, 2구간은 2020년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4. 부채

부채 보유율

2019년 이후 매년 부채 보유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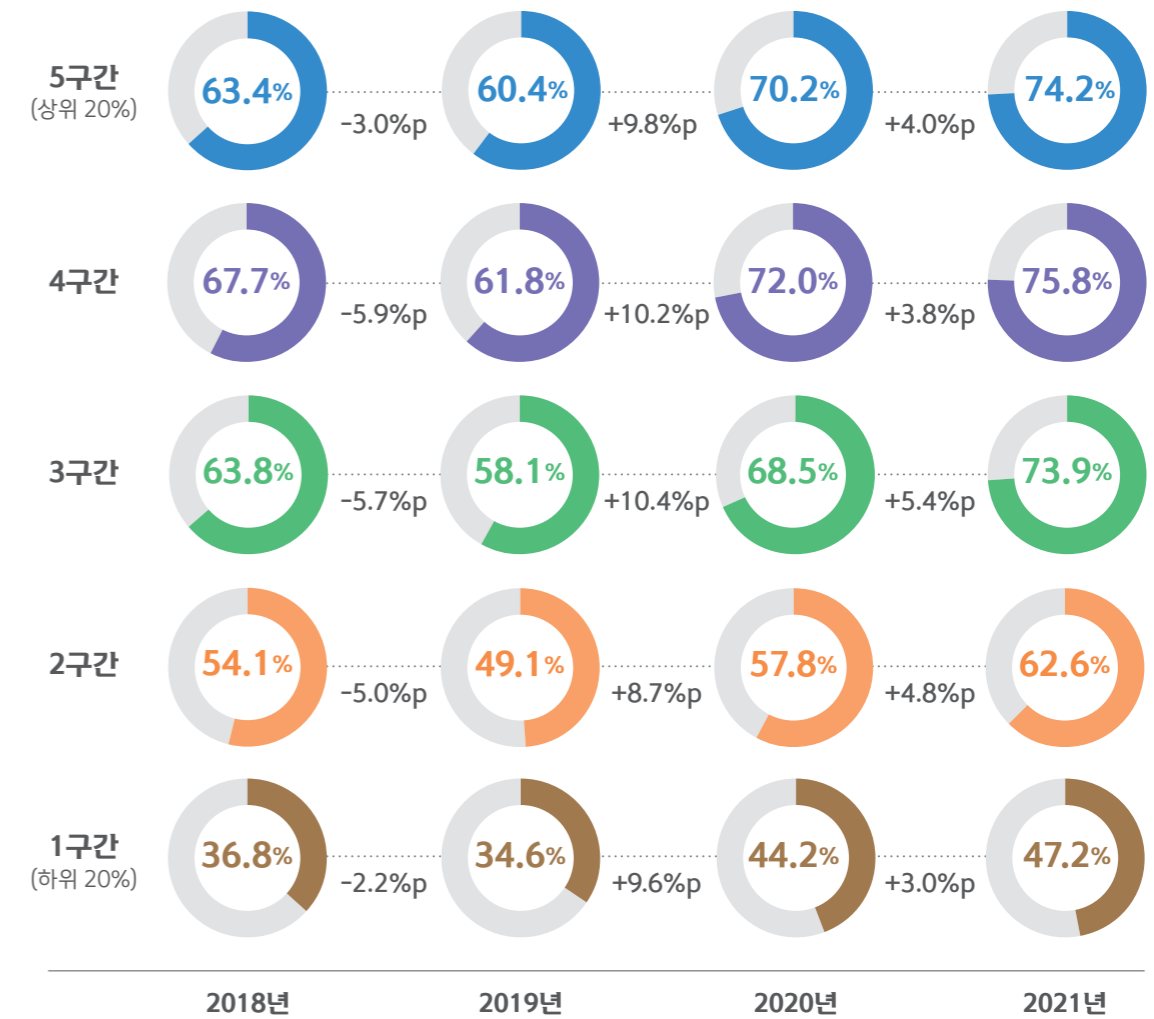


2019년에 감소했던 부채 보유율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증가했다.

2018년에 57.2%였던 부채 보유율은 2019년에 52.8%로 줄었지만 2020년에 62.5%, 2021년에 66.7%로 점차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가계 재정 부담의 영향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채 보유율

코로나19로 부채 보유 늘었지만 증가율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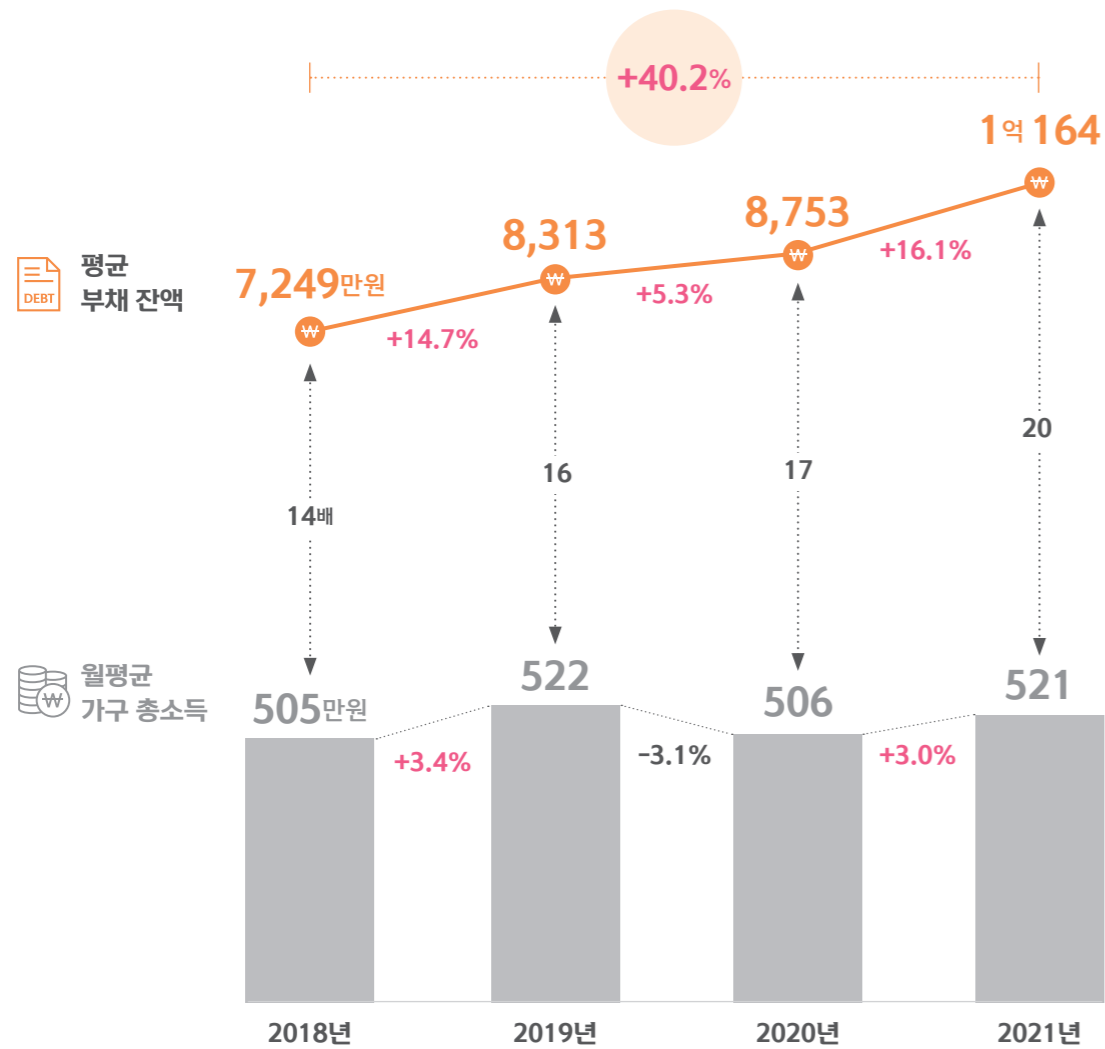
모든 소득구간에서 2019년 줄었던 부채 보유율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10%p 가량 늘었다. 2021년에도 모든 구간에서 부채 보유율이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5%p 내외로 다소 완화됐다.

1구간, 2구간의 2021년 부채 보유율은 각각 47.2%, 62.6%였다. 3구간 이상은 모두 70%대로, 3구간은 73.9%, 4구간은 75.8%, 5구간은 74.2%였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부채 보유율은 높았으나, 전년 대비 부채 보유율 증가폭은 중소득층인 2, 3구간이 높았다.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소득 증가보다 빠른 부채 증가 속도,
월 가구소득의 20배는 빚



지난 4년간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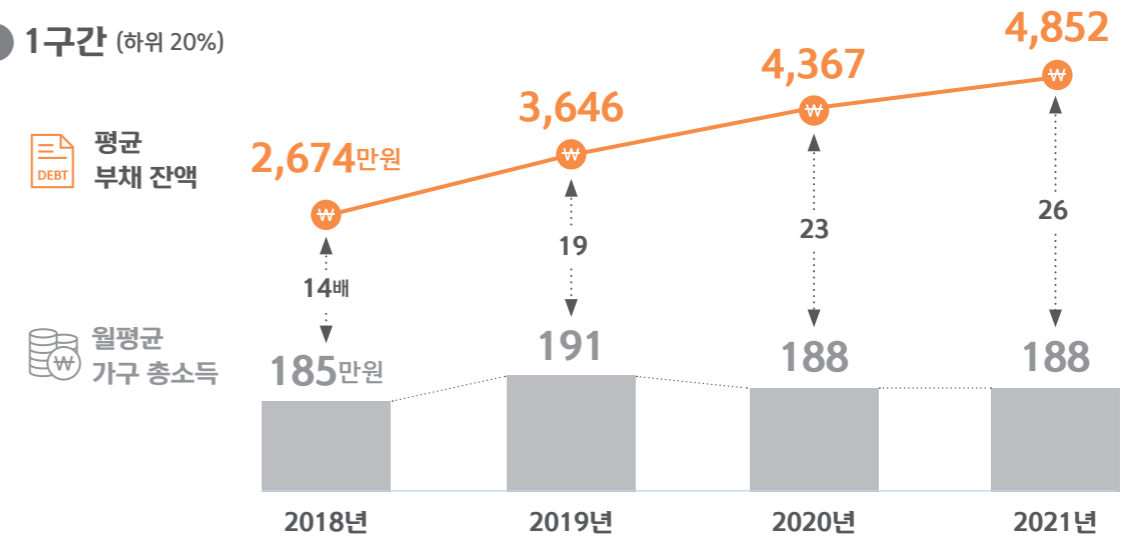
2018년에 7,249만원이던 부채 잔액은 2021년에 1억 164만원으로, 지난 4년간 40.2% 늘었다.

2021년에 월평균 총소득이 2020년보다 3% 늘었지만 부채 잔액은 16.1% 증가하며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20배로 늘어났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잔액 증가 속도가 매년 빨라지며 가구의 부채 상환 어려움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보유 가구의 가구소득 구간별 평균 부채 잔액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부채 격차는 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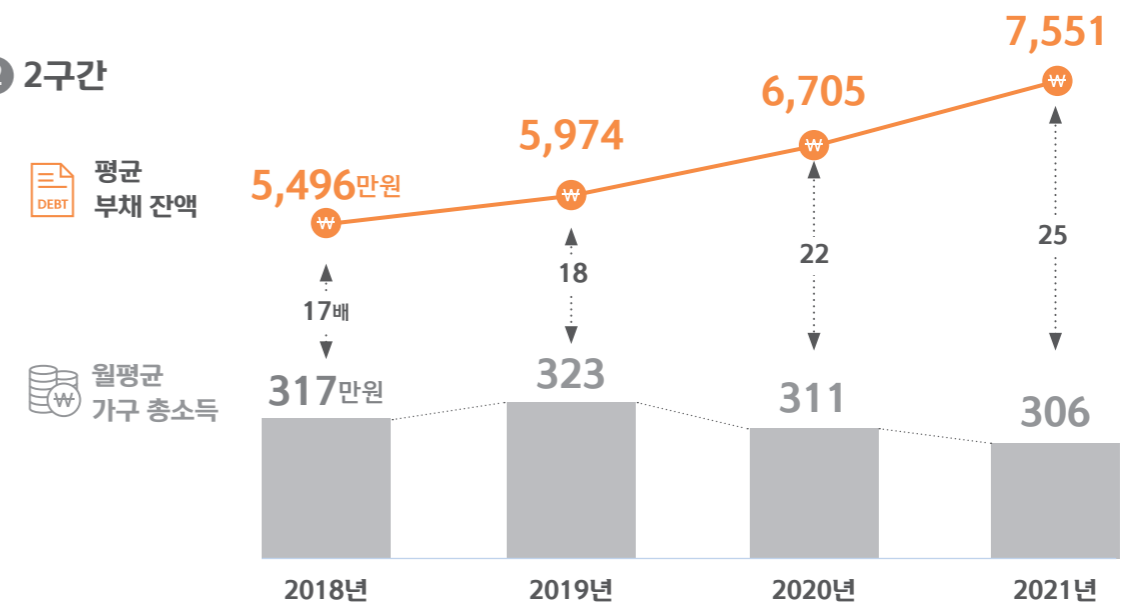
1 구간 (하위 20%)



가구소득 1구간은 지난 4년간 부채 잔액이 증가해 2021년에 4,852만원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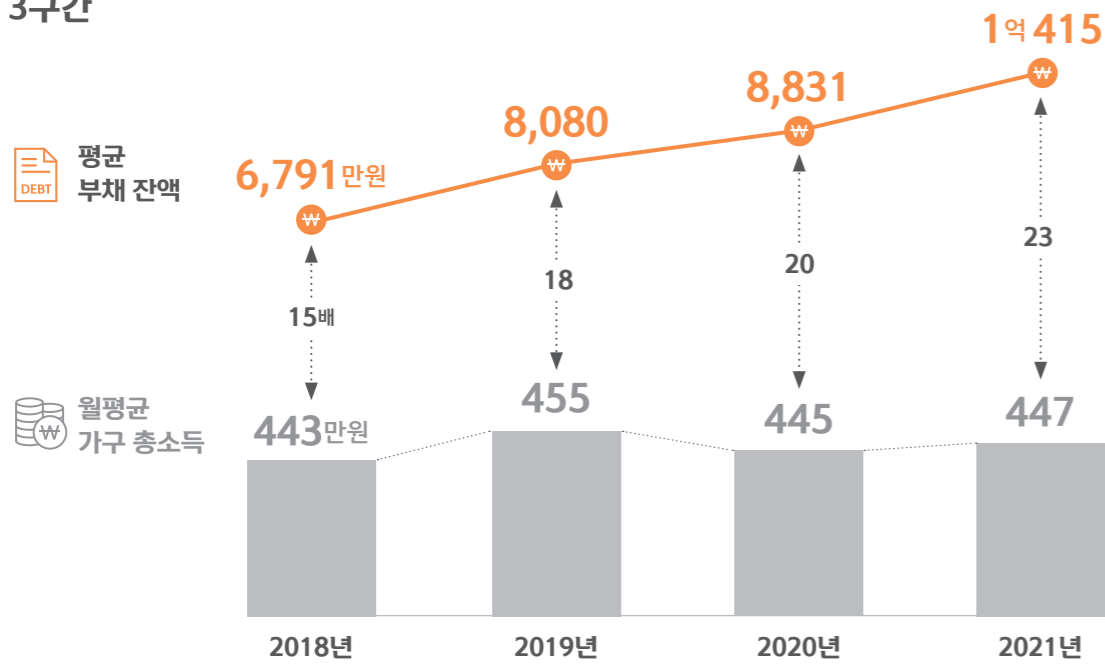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줄었던 소득을 2021년에도 유지하면서 2018년에 14배이던 소득-부채 격차는 2021년에 26배로 늘었다.

2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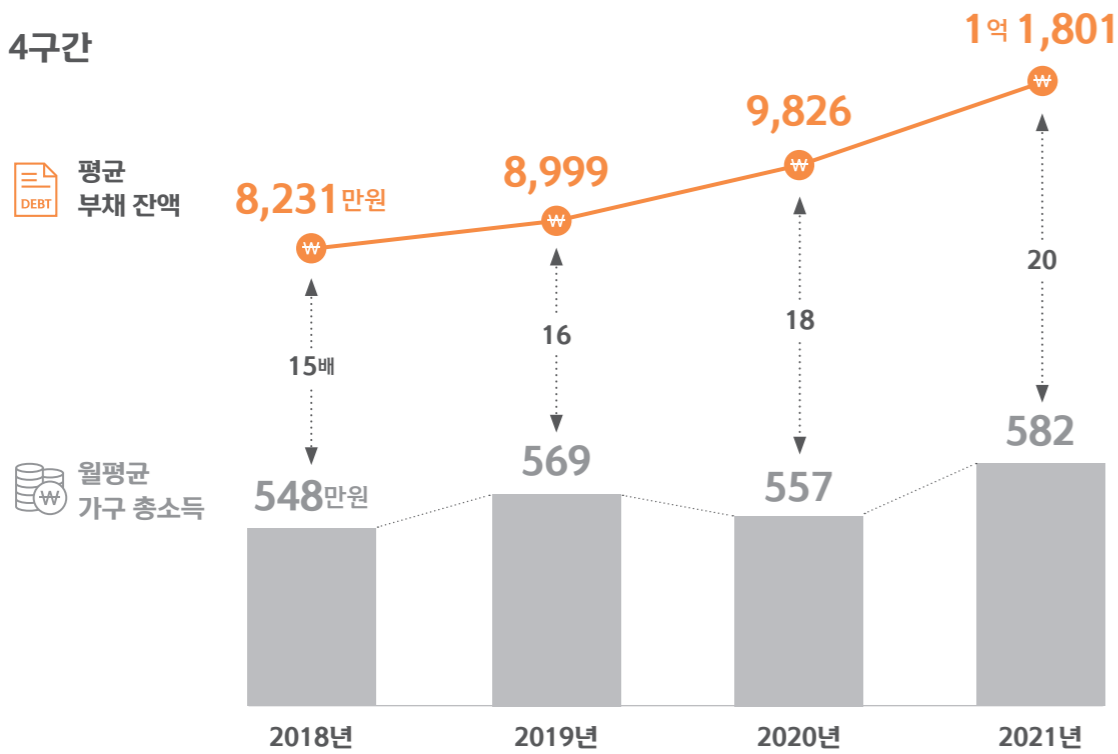
가구소득 2구간은 부채 잔액을 5천만원대로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6,705만원, 2021년에 7,551만원으로 증가폭이 높아졌다. 반면 2020년부터 소득은 줄어 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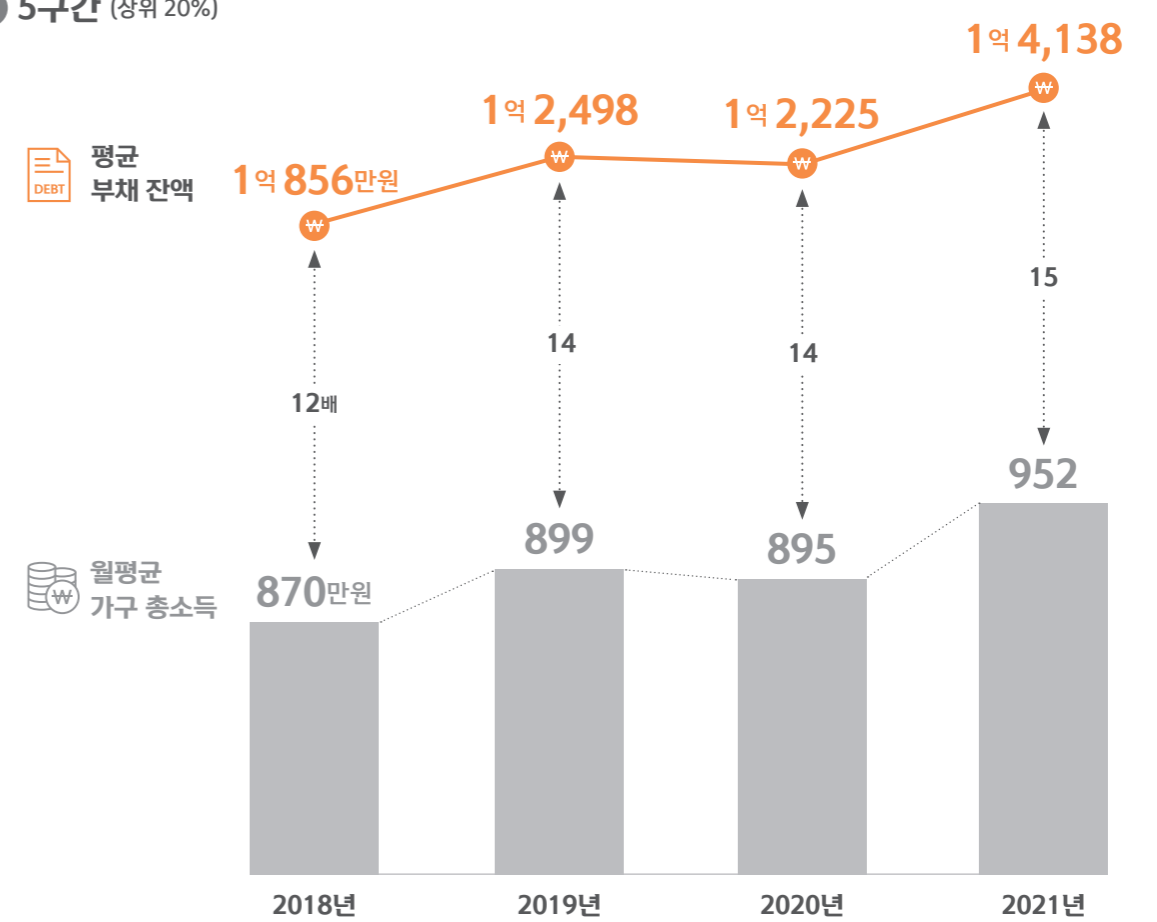
가구소득 3구간의 2021년 부채 잔액은 1억 415만원으로 2018년보다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2021년 소득은 2018년보다 4만원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부채 격차는 23배로 늘었다.

4 구간



가구소득 4구간은 2020년까지 부채 잔액이 1천만원 이하로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2천만원 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소득이 2021년에 회복됐지만 부채 증가액을 따라가지는 못해 소득-부채 격차는 20배로 늘었다.

5 구간 (상위 20%)



가구소득 5구간은 지난 4년간 부채를 1억원 이상 보유하고, 2021년 부채 잔액은 1억 4,138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부채와 소득이 모두 줄어 소득-부채 격차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21년에는 부채가 2천만원 가량 늘며 소득과 15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1~5구간 중 부채 규모는 가장 컸지만 소득-부채 격차는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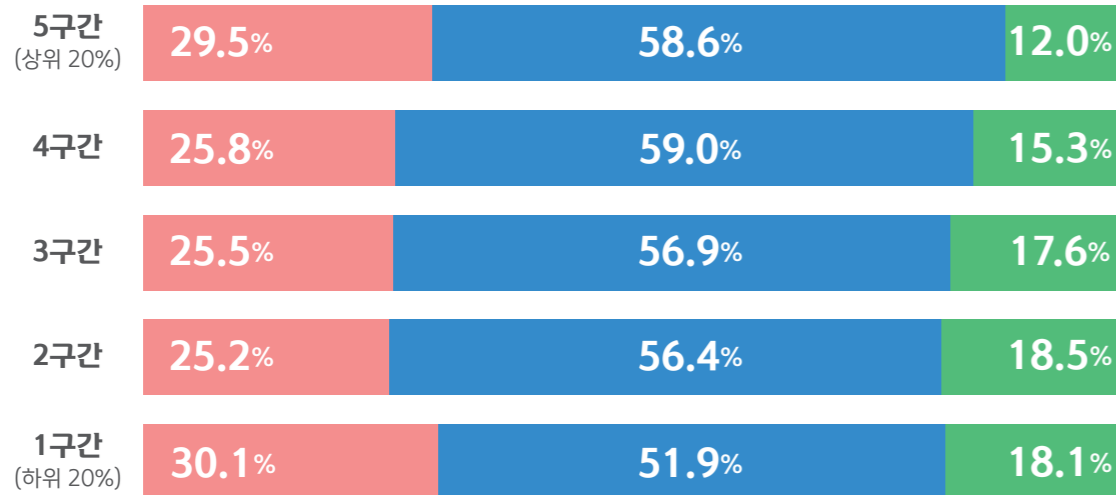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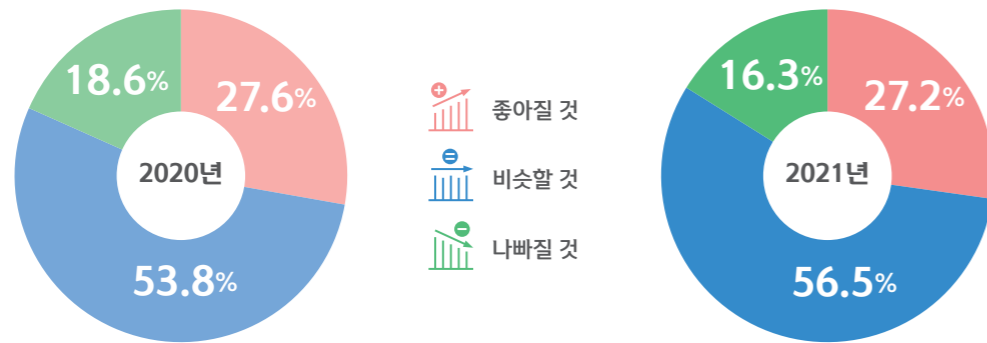


5.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 내년 가계 생활 형편 예상

내년에도 가계 생활 형편은 비슷하겠지만
더 좋아지기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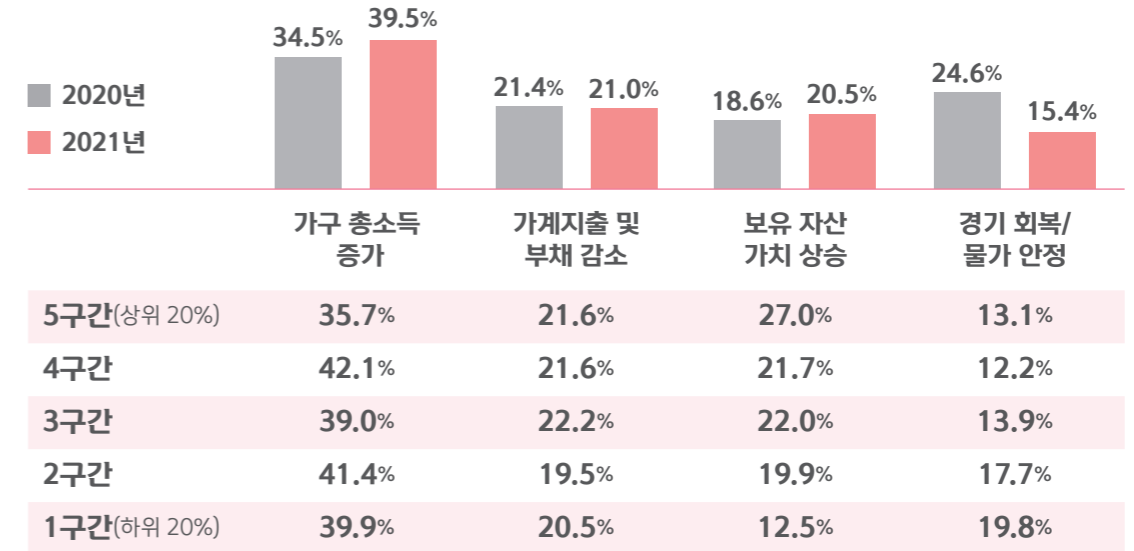


경제활동가구의 56.5%는 2022년 가계 생활 형편이 2021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27.2%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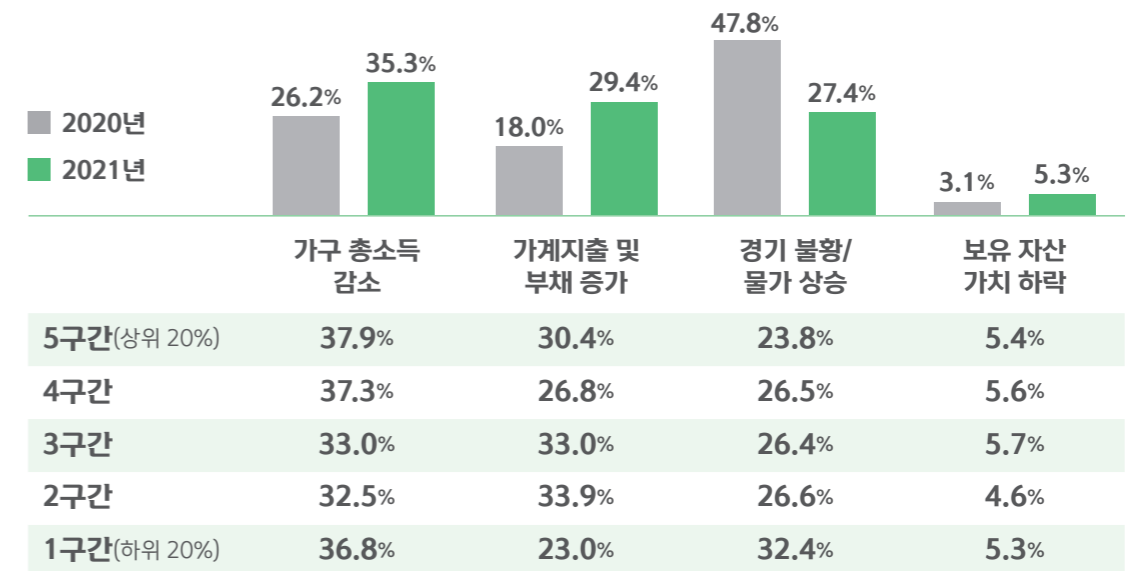
저·중소득층인 가구소득 1~2구간에서 가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소득층인 4~5구간에서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1~5구간 모두 가계 생활 형편이 2021년보다 악화되기보다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2년에는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 내년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 내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2022년 가계 생활 형편은 가구 총소득의 증/감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소득층인 3~5구간은 2022년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 이유로 가구 총소득 다음으로 보유 자산 가치 상승을 높게 꼽았다. 보유 자산이 많은 소득층인 만큼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2022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구간은 보유 자산 가치 상승보다는 경기 회복/물가 안정을 기대하며 2022년에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2020년에는 경기 불황/물가 상승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에는 2022년의 가구 총소득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으로 가계지출/부채증가, 경기 불황/물가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경기 불황/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컸다.



보통사람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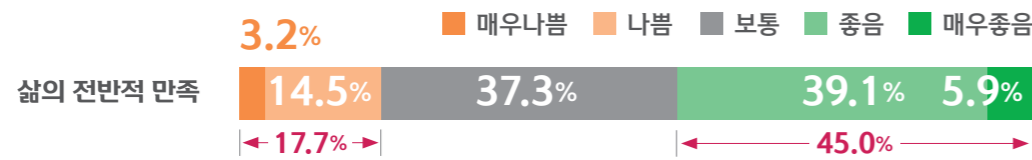
1. 삶의 질과 만족도	44
2. 인구 통계 특성으로 본 삶의 질	47
3. 금융생활로 본 삶의 질	49

1. 삶의 질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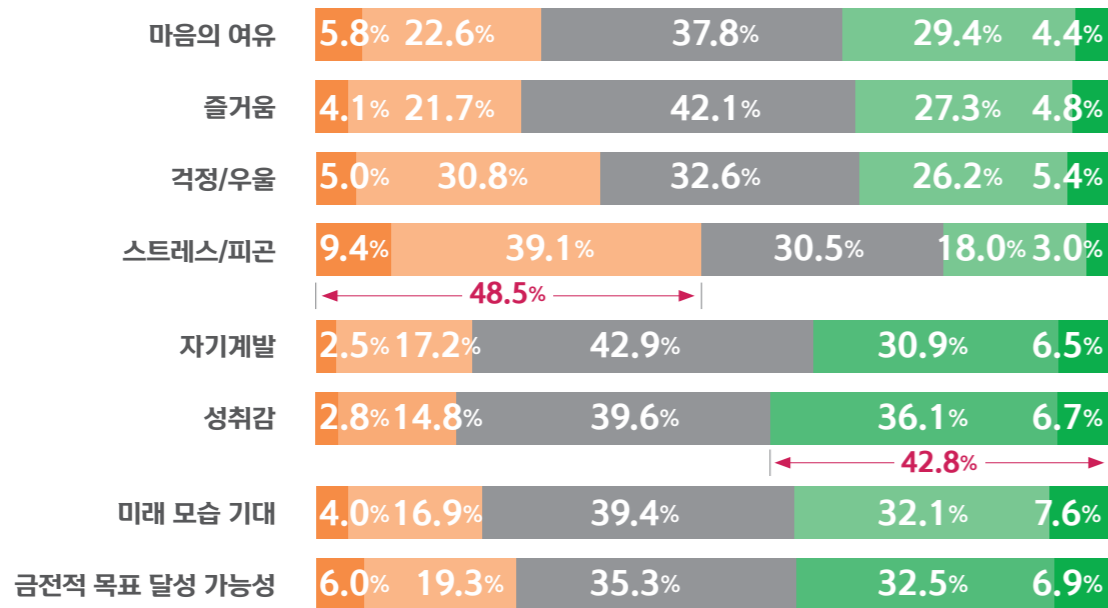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 17.7%,
만족하는 응답자 45%로 만족하는 응답자가 2.5배 높아

○ 삶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 문항 및 응답



○ 주관적 삶의 질 조사 문항 및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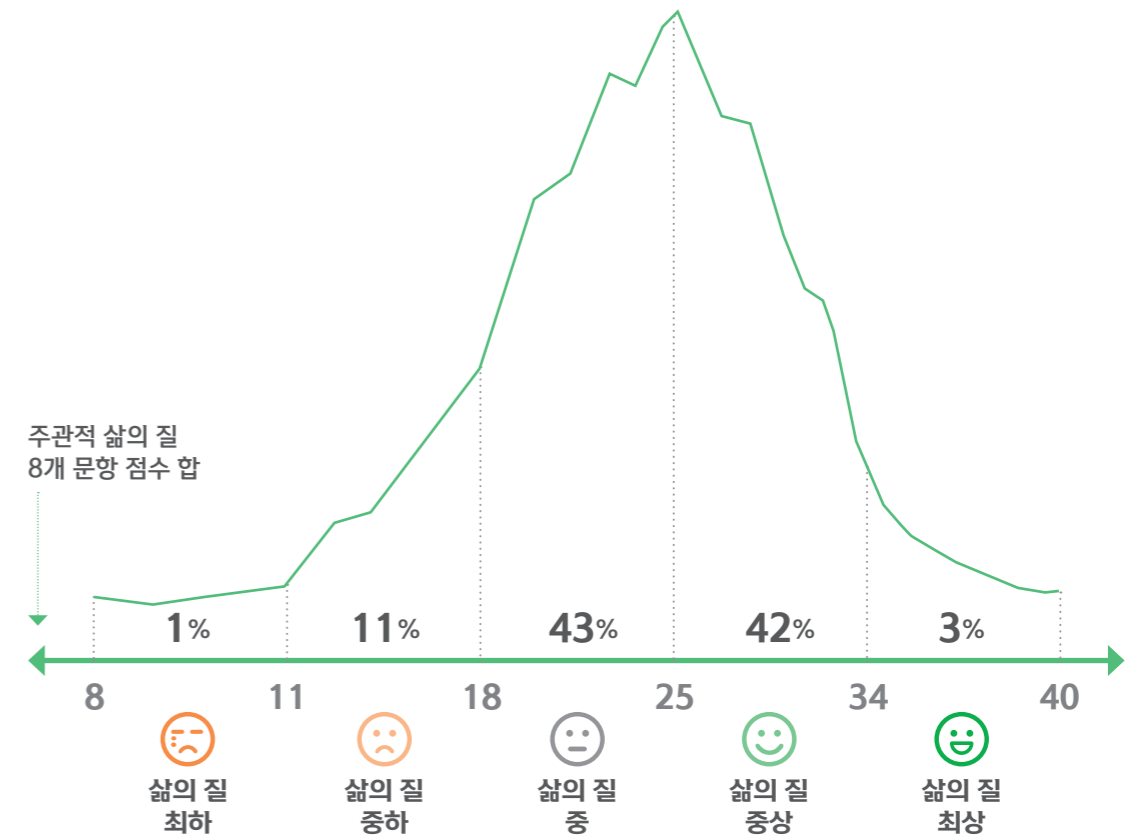
2021년 20~64세 경제활동자의 삶의 질에 따른 금융생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을 8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소득, 자산 등 금융생활 요인과 연계하여 관계성을 확인해 보았다.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5%로 대체로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나쁨'이라 응답한 비율은 14.5%, '매우 나쁨'은 3.2%로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8가지 문항 중 가장 부정 응답이 많은 문항은 '스트레스/피곤'으로 약 49%의 응답자가 최근 스트레스나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43%의 응답자가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 크다고 답해 주관적 삶의 질 문항 중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삶의 질 점수에 따른 그룹 분포

삶의 질 8개 영역에 모두 만족하지 않는 삶의 질 최하위 그룹 1%,
반면 모두 만족하는 삶의 질 최상위 그룹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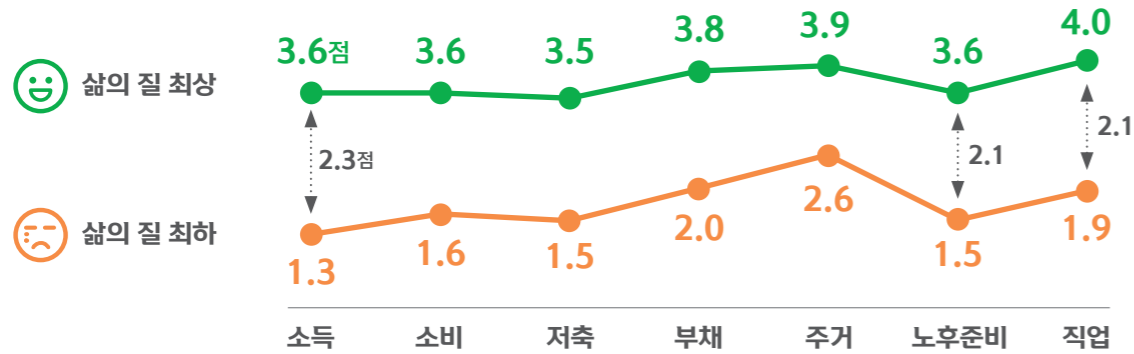
주관적 삶의 질 8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응답자별 삶의 질 그룹을 최하 ~ 최상 5단계로 나누었다. 8개 문항 점수 합이 11점 이하인 삶의 질 하위 1%를 삶의 질 최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18점 이하 중하, 25점 이하 중, 34점 이하 중상, 35점 이상을 최상으로 분류하였다.

삶의 질 최하 그룹은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직접 묻는 질문에서 '1점(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4점(좋음)'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삶의 질 최상 그룹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점(나쁨)' 이하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고, '5점(매우 좋음)'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그룹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점, 3점, 4점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영역별 평균 만족도*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차이는
소득, 노후준비, 직업 만족도에서 2점 이상으로 가장 커



○ 영역별 '매우 나쁨(1점)' 비율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주거	노후준비	직업
삶의 질 최상	3.9%	2.7%	4.3%	3.5%	1.2%	1.9%	0.8%
삶의 질 중상	6.2%	3.0%	4.7%	4.0%	1.1%	4.2%	1.6%
삶의 질 중	13.8%	7.0%	10.3%	8.8%	2.4%	11.8%	3.3%
삶의 질 중하	39.9%	24.8%	29.9%	24.2%	7.1%	35.3%	15.2%
삶의 질 최하	74.7%	60.0%	63.2%	50.5%	20.0%	59.6%	47.4%

삶의 질 최하 그룹은 소득, 소비 등 각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평균 소득 만족도는 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소득, 노후준비, 직업 만족도로 평균 점수가 2단계(2점) 이상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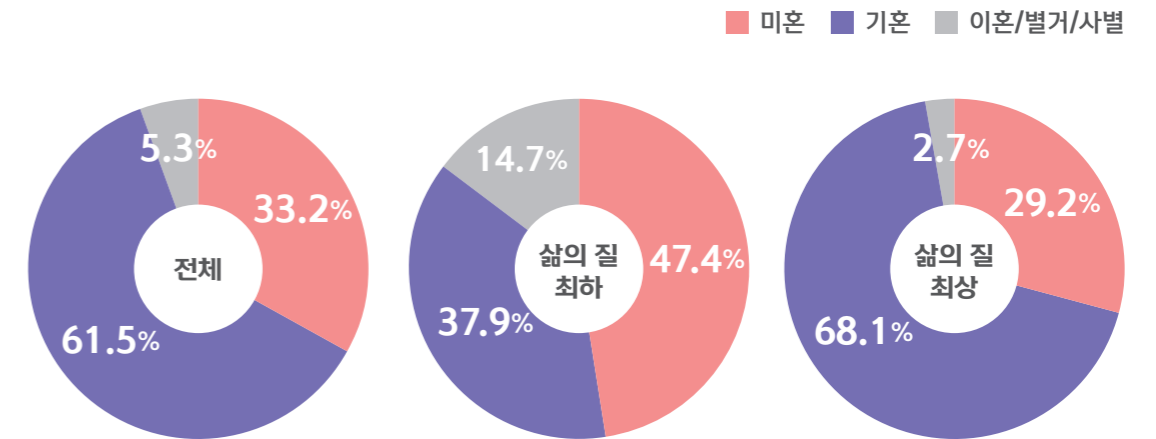
또, 각 영역별 '매우 나쁨(1점)'으로 응답한 비율은, 노후준비와 직업 영역에서 삶의 질 최상/최하 두 그룹 간 차이가 각각 31배, 59배로 가장 컸다. 따라서 7개 영역 중 소득, 노후준비, 직업 만족도가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 영역별 평균 만족도 | 소득, 소비 등 총 7개 영역의 만족도를 '매우 나쁨(1점)'부터 '매우 좋음(5점)'까지 응답한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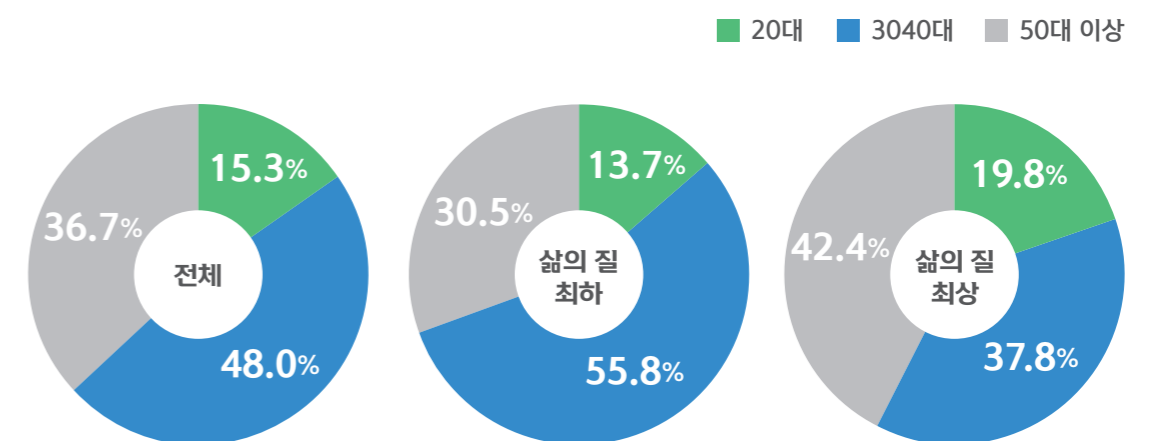
2. 인구 통계 특성으로 본 삶의 질

인구 통계 특성 중 삶의 질에 혼인 상태가 제일 중요,
특히 삶의 질 최하 그룹에서 기혼이 아닌 비율 높아

○ 혼인 상태별 비교



○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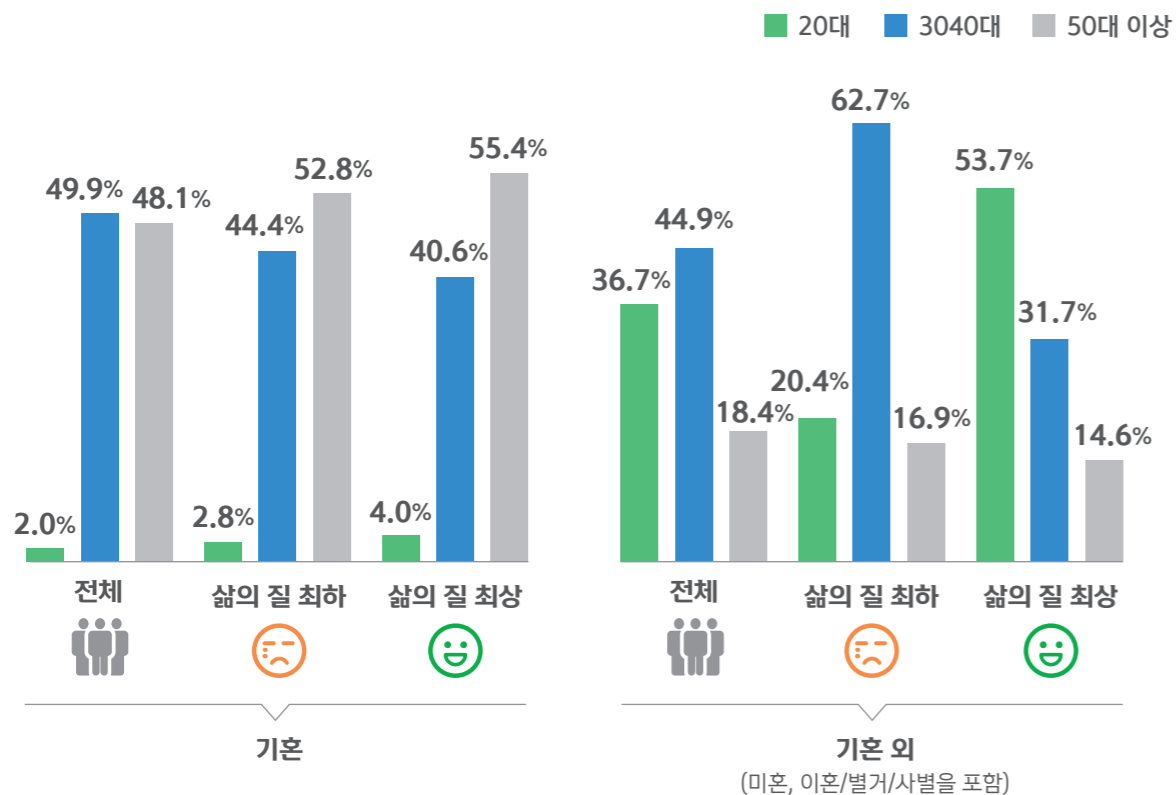


혼인 상태별 비교 시, 삶의 질 최하 그룹에서는 미혼 비율이 47.4%로 전체 미혼 비율 33.2% 대비 1.4배 높았고, 이혼/별거/사별이 14.7%로 전체 5.3% 대비 2.8배 높았다. 반면 기혼은 37.9%로 전체 대비 0.6배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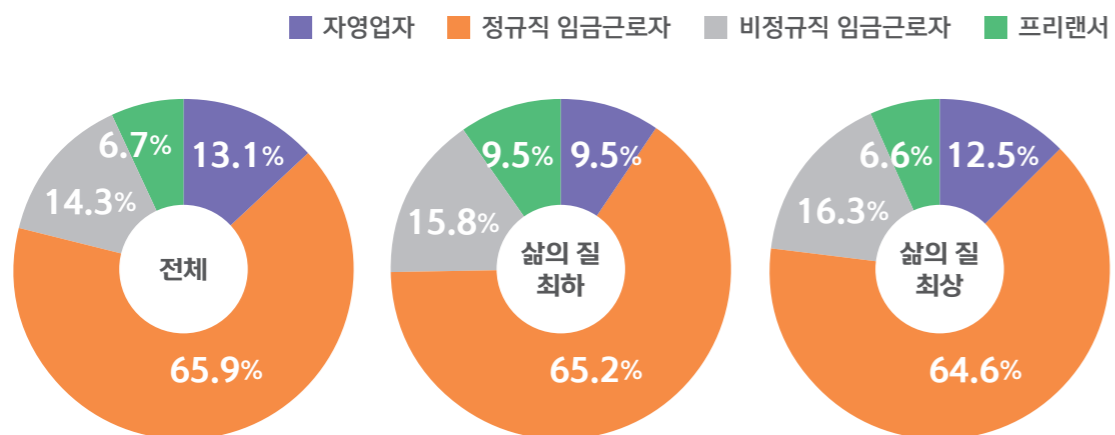
연령별 비교 시, 삶의 질 최하 그룹의 3040대 비율은 55.8%로 전체 3040대 비율 48.0% 대비 1.2배 높았다. 삶의 질 최상 그룹의 37.8%와 비교했을 때는 1.5배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 혼인 상태별 연령 비교



○ 직업군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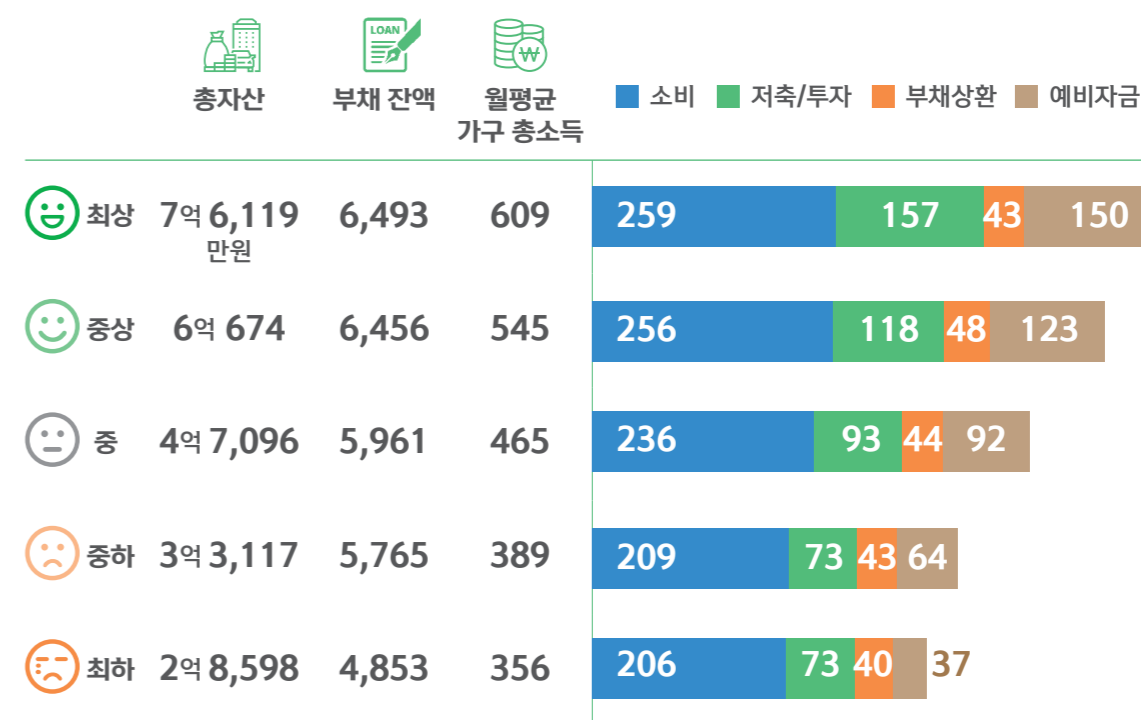
혼인 상태별 연령 비교 시, 기혼 외 응답자 중 삶의 질 최하 그룹의 3040대 비율은 62.7%로 전체 44.9% 대비 1.4배 높았다. 반면 20대는 20.4%로 전체 36.7% 대비 적었으며, 기혼 외 응답자 중 삶의 질 최상 그룹의 20대 53.7%와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업군별 비교에서는 삶의 질 최하 그룹에서 프리랜서 비율이 9.5%로 전체 6.7% 대비 1.4배 높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 금융생활로 본 삶의 질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자산이 가장 크게 차이 나고, 부채 상환액은 거의 차이 없어

○ 삶의 질에 따른 금융생활 전반



삶의 질 최상 그룹의 평균 총자산은 7억 6,119만원으로 삶의 질 최하 그룹 2억 8,598만원 대비 2.7배 더 많았고, 부채 잔액은 1.3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7배 더 많았다.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평균 소득은 253만원 차이를 보였는데, 지출 영역별로 살펴보면 소비액은 53만원, 저축/투자액은 84만원, 부채 상환액은 3만원, 예비자금은 11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소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액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으나, 저축과 예비자금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삶의 질 그룹 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 삶의 질에 따른 근로소득 외 소득 비율 및 종류 (복수)

삶의 질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기반이 있는 응답자가 적고, 다른 소득 기반 중에서는 용돈/지원금 비중 높아

삶의 질	근로소득 외 소득 보유 비율	소득 종류별 비중 (%)					
		이자/배당금	부동산 임대	공적 연금	개인 연금	용돈	정부 지원
최상	49.0%	61.9%	24.6%	17.5%	11.9%	23.8%	6.3%
중상	42.7%	56.2%	27.0%	13.7%	12.5%	22.7%	13.0%
중	35.3%	55.6%	20.5%	9.2%	8.5%	27.2%	14.4%
중하	31.0%	44.4%	17.6%	11.2%	5.5%	24.9%	20.7%
최하	26.3%	44.0%	20.0%	4.0%	8.0%	44.0%	24.0%

0.0% : 소득 종류별 1위 응답

삶의 질 최하 그룹에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응답자는 26.3%로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삶의 질 최상 그룹은 49%로 2명 중 1명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근로 외 소득의 종류로는, 삶의 질 최하 그룹은 부모/자녀로부터의 용돈과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고, 삶의 질 최상 그룹은 이자/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공적/개인 연금 비중이 높았다.

○ 삶의 질에 따른 소비 항목별 월평균 소비액* 및 고정소비율**

삶의 질이 낮을수록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게 소비하고, 특히 선택적 소비를 줄이는 응답자가 많아

삶의 질	최소한의 삶을 위한 '필수적' 소비 항목						본인/관계를 위한 '선택적' 소비 항목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패션/잡화	여가/취미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최상	60만원* 93%**	23	22	16	17	41	26	24	18	32	76
중상	62	25	23	17	19	38	23	23	17	31	75
중	57	23	22	16	18	38	20	20	15	31	76
중하	53	21	19	15	17	35	18	18	13	30	68
최하	51	19	19	15	22	39	20	19	15	26	72

00% : 선택적 소비 항목별 최하 고정소비율

삶의 질이 낮을수록 삶에 필수적인 소비와 본인을 위한 선택적 소비를 둘 다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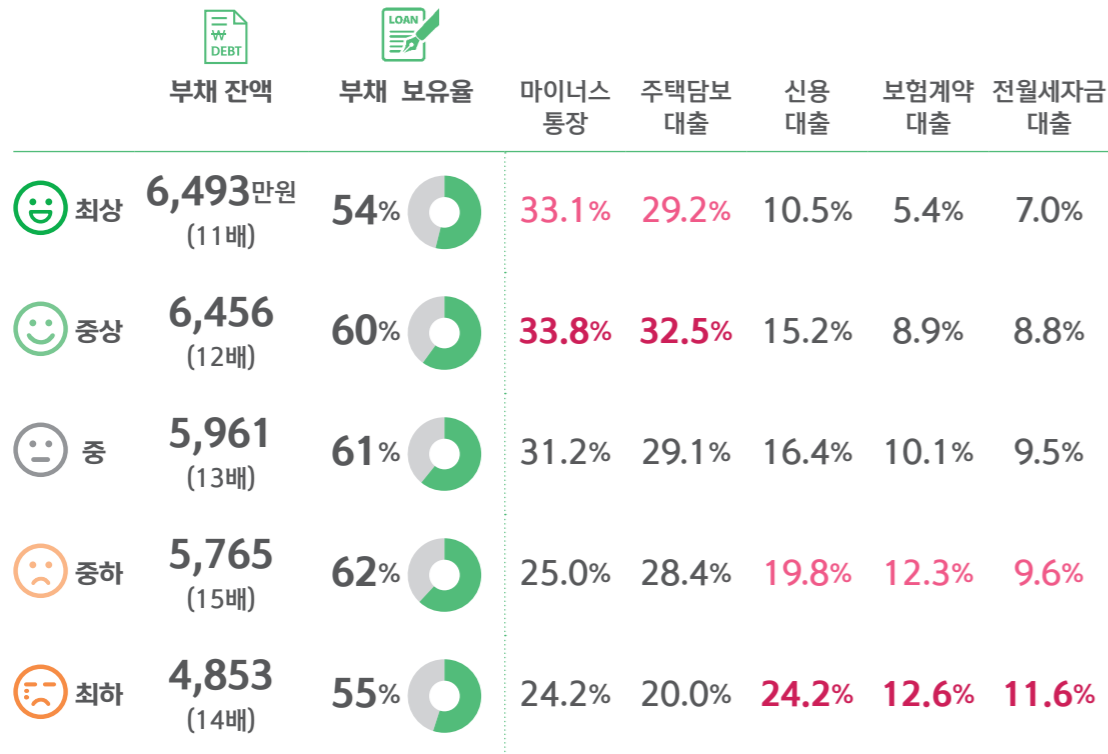
필수적 소비 항목 중 식비는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차이가 9만원으로 가장 컸고, 공과금, 통신비 등은 그룹 간 금액 차이가 적었다. 반면, 월평균 의료비는 삶의 질 최하 그룹에서 22만원으로 가장 높아서 큰 부담이 예상된다.

여가, 모임회비 등 질 높은 삶을 위한 선택적 소비 항목은 삶의 질이 낮을수록 매월 고정적으로 소비하는 응답자 비율이 낮았다.

* 월평균 소비액* |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 고정소비율** |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 삶의 질에 따른 평균 부채 잔액 및 대출상품 (복수)

삶의 질이 낮을수록 부채 총액은 적으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크고, 신용대출/보험계약대출/전월세자금 대출 비중 높아



(0배)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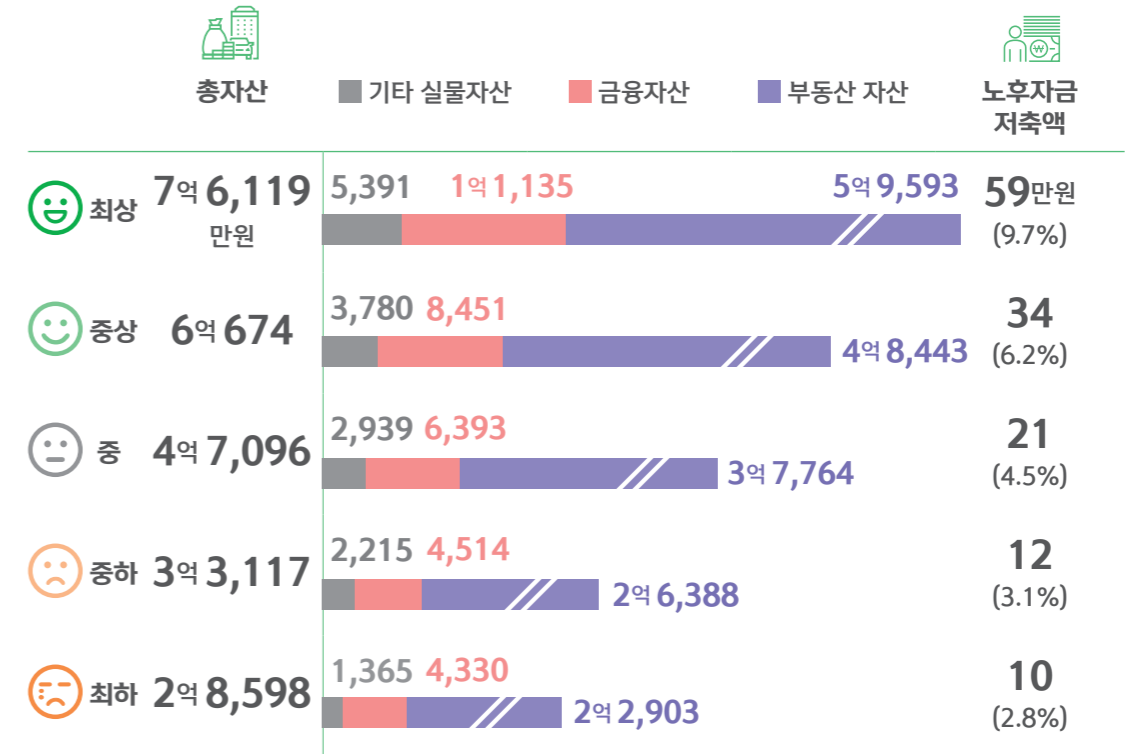
상위 응답 5개만 기재
0.0%, 0.0% : 대출상품별 1,2위 응답

삶의 질 최하 그룹의 부채 잔액은 4,853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4배로 높아 타 그룹 대비 낮은 부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그룹별 부채 보유율은 54~62%로 비슷했으나, 보유한 대출상품에는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중상 이상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비율이 높았고, 삶의 질 중하 이하 그룹은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월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비율이 높았다.

○ 삶의 질에 따른 평균 총자산 및 노후자금 저축액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부동산 자산 차이가 가장 크고, 노후자금 저축액도 6배 차이



(0.0%) : 소득 대비 노후자금 저축액 비율

삶의 질 최상/최하 그룹 간 부동산 자산은 3억 6,690만원, 금융자산은 6,805만원, 기타 실물자산은 4,026만원 차이로, 부동산 자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삶의 질 최상 그룹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하는 금액은 월평균 59만원으로 삶의 질 최하 그룹 10만원 대비 6배 더 많았고, 소득 대비 저축액 비율도 9.7%로 삶의 질 최하 그룹 대비 3배 더 높았다.

현재 자산 규모의 차이와 노후자금 저축액의 차이로 인해 그룹 간 총자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보통사람 핵심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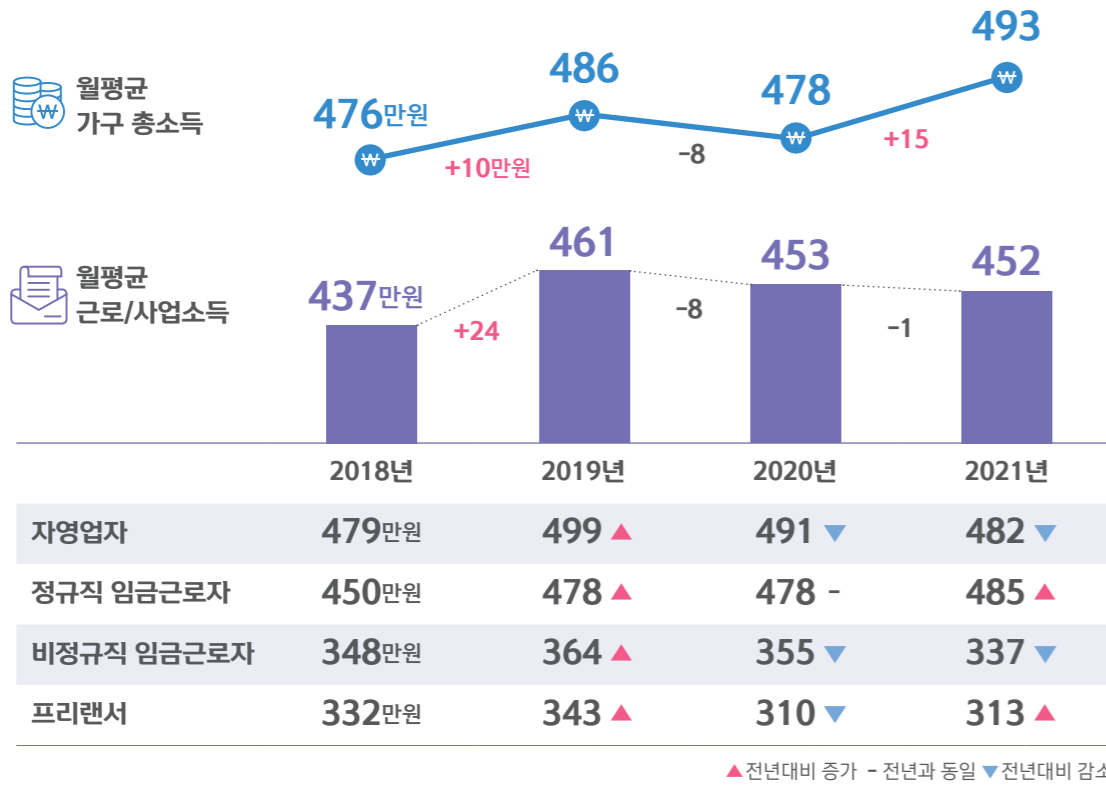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대응	56
2.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60
3. 코로나19 이후 교육비 변화	66
4. 코로나19 이후 대체소비	68
5. 최근 1년 내 2030 거주 주택 구입 행태	70
6. 20~44세 결혼준비행태 변화	74
7. 2030의 자녀출산인식 변화	76
8.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2030의 노후 준비	78
9.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40대	82
10. 50~64세의 은퇴 준비 현황	86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근로/사업 소득 감소세 지속, 소비지출은 서서히 회복

○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변화



2021년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493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소득이 감소했던 2020년보다 15만원 늘었다. 가구 총소득은 2019년보다는 7만원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근로/사업소득은 직업별로 회복에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021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7만원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지난 2년간 근로/사업소득이 줄었다. 직업군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장 낮은 프리랜서는 2021년에 2020년보다 3만원 늘었지만, 2020년에 줄어든 33만원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직업군의 소득 감소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 근로/사업소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소비/저축 등 지출 감소	보유자산 처분/활용	대출상품 이용/빌림	부업/재취업 등 부가소득창출	정부 보조 등 지원금 신청	아무 대응 안함
자영업자	2020년	45.4%	13.7%	10.0%	8.3%	8.5%	14.1%
	2021년	40.2%	16.8%	16.1%	8.2%	6.8%	11.9%
정규직 임금근로자	2020년	50.6%	11.7%	6.7%	8.6%	4.9%	17.5%
	2021년	43.4%	16.0%	11.5%	9.5%	2.3%	17.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020년	44.6%	14.4%	8.7%	14.1%	4.8%	13.4%
	2021년	41.6%	10.9%	12.2%	18.8%	5.3%	11.2%
프리랜서	2020년	53.3%	9.6%	8.3%	14.2%	5.0%	9.6%
	2021년	36.4%	13.6%	11.4%	19.1%	10.0%	9.5%

전년 대비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제활동자들은, 소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지출을 줄이고 보유자산 처분, 대출 이용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부가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을 늘렸다. 상대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높고 대출이 용이한 자영업자,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빌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보다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근로/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부업/재취업 등 부가소득을 창출하는 비율이 2020년보다 높아졌으며, 프리랜서는 보조 지원금을 신청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가계 지출 운영 방안



	연도	소비/지출규모 증가		긴축/알뜰소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거나 지출 규모가 커졌다	아껴서 소비했지만 지출액이 늘었다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알뜰 소비를 했다	필요한 소비도 줄이면서 긴축했다
자영업자	2020년	14.2%	23.3%	42.7%	19.8%
	2021년	17.7%	27.8%	33.2%	21.3%
정규직 임금근로자	2020년	22.7%	29.5%	34.9%	12.9%
	2021년	25.3%	31.8%	27.1%	15.8%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020년	15.0%	27.2%	41.3%	16.5%
	2021년	18.8%	30.3%	34.7%	16.2%
프리랜서	2020년	10.8%	17.9%	46.3%	25.0%
	2021년	14.1%	27.7%	33.6%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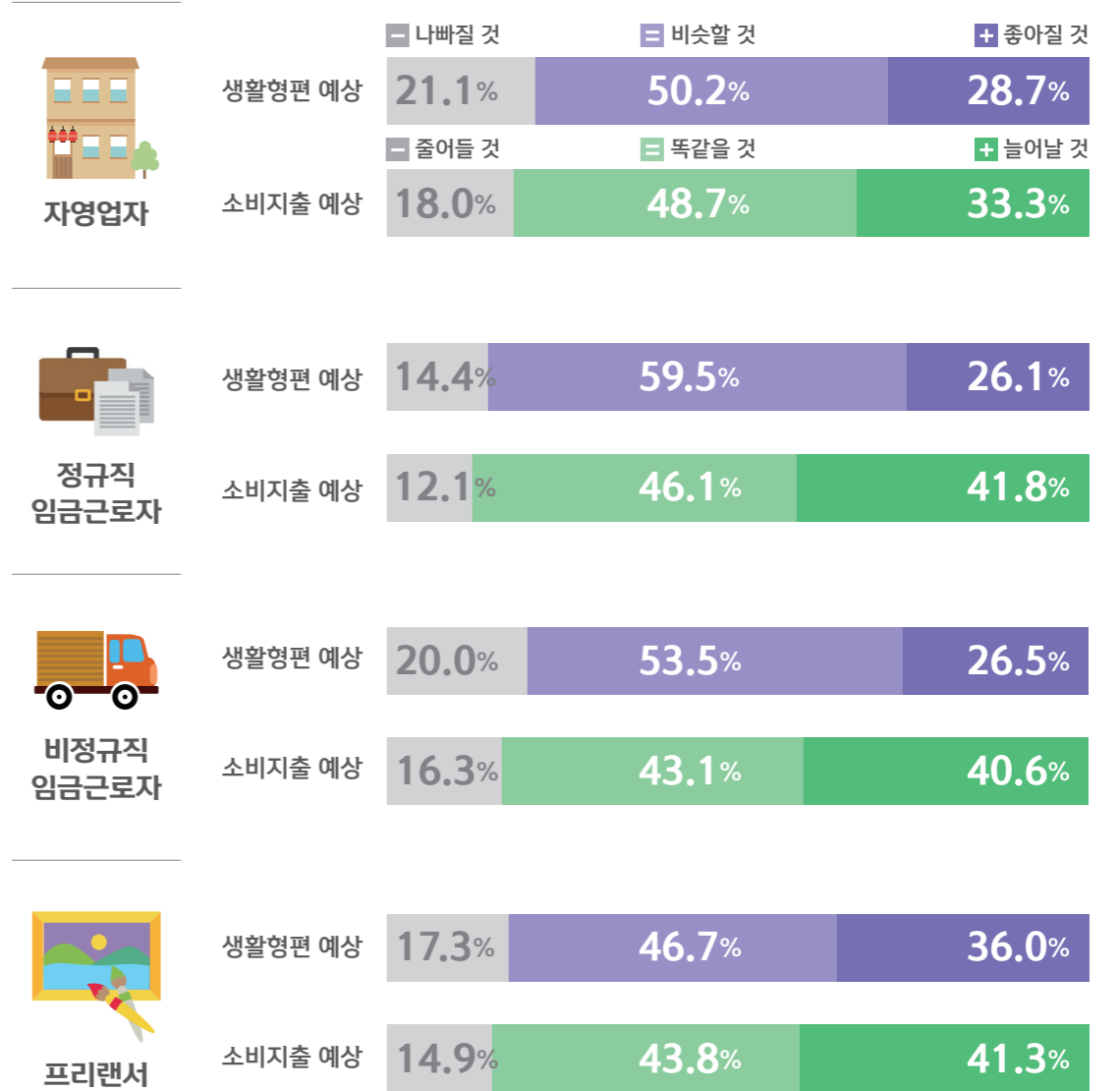
2021년에 지출 규모가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고, 알뜰 소비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렸던 소비가 표출되고, 물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에 알뜰 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프리랜서도 2021년에 알뜰 소비 비율이 9.5% 줄었다.



직업군별 2022년 가계 생활형편 및 소비지출 변화 예상



20~64세 경제활동자 중 약 80%는 2022년 가계 생활 형편에 대해 202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며, 2022년 가계 소비지출도 지금과 똑같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2022년에 생활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낮았던 프리랜서는 타 직업군보다 2022년 생활형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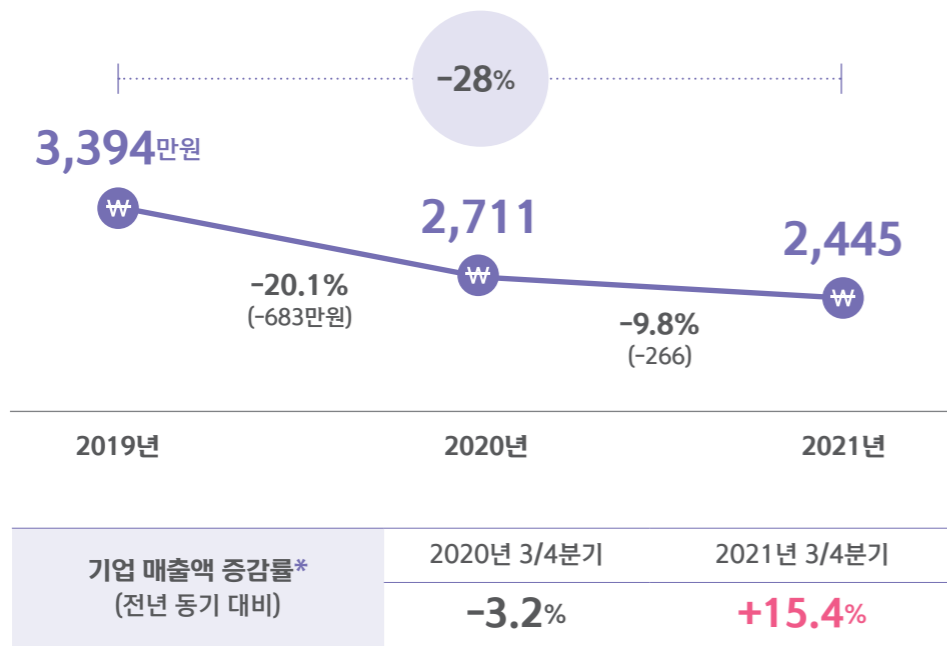
2022년 소비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계속되는 매출 감소로 사업 운영 어렵지만
2022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다방면으로 노력

자영업자의 월평균 사업 매출액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2021년 월평균 사업매출액은 2,445만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보다 266만원 줄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보다 28%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2021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2021년 3분기 외부감사대상 2만 120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5.4%로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사업 매출 하락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영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로 사업을 유지해왔으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영업규제 등으로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기업 매출액 증감률 | 한국은행, 2021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조사 결과
2020년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0,120개 기업 대상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증감률

업종별 월평균 사업 매출액

	2019년	2020년	2021년	'21-'19년 Gap	'19년 대비 '21년 매출수준
전체	3,394만원	2,711 ▼	2,445	▼ 266	72.0%
제조업	7,269만원	5,879 ▼	5,616	▼ 263	77.3%
무역업	9,404만원	4,925 ▼	5,827	▲ 902	62.0%
건설업 및 광업	7,745만원	6,768 ▼	3,152	▼ 3,616	40.7%
도매 및 소매업	3,005만원	3,289 ▲	3,135	▼ 154	104.3%
숙박업	3,171만원	739 ▼	1,267	▲ 528	40.0%
요식업	2,739만원	1,523 ▼	1,287	▼ 236	47.0%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1,287만원	1,352 ▲	1,374	▲ 22	106.8%
의류 및 잡화점	2,268만원	1,481 ▼	1,081	▼ 400	47.7%
스포츠 및 오락/여가관련 서비스업	1,803만원	833 ▼	1,006	▲ 173	55.8%

▲전년대비 증가 ▼전년대비 감소

업종별로 사업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에 매출이 크게 감소한 무역업, 숙박업, 스포츠 및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21년에는 매출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40~60%대에 미치는 수준이었다.

제조업, 건설업 및 광업, 요식업, 의류 및 잡화점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매출이 줄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일손 부족, 해외 진출 무산, 영업시간 제한 및 야외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사업체 운영 시 어려운 점 (복수)

	고정지출 부담 (임대료, 인건비)	낮은 수익	시장 내 경쟁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약 (영업시간, 모임 인원제한 등)	경영 관리의 어려움 (고객, 종업원 관리 등)	부채 이자 부담
제조업	42.2%	30.4%	22.2%	16.3%	25.9%	14.1%
무역업	32.6%	30.4%	43.5%	21.7%	17.4%	19.6%
건설업 및 광업	41.9%	24.2%	38.7%	11.3%	17.7%	22.6%
도매 및 소매업	23.2%	41.7%	36.7%	22.0%	12.4%	12.4%
숙박업	29.4%	11.8%	29.4%	29.4%	35.3%	11.8%
요식업	60.0%	22.4%	12.9%	44.7%	12.9%	7.1%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32.0%	34.4%	20.0%	35.2%	19.2%	8.0%
의류 및 잡화점	27.3%	36.4%	39.4%	21.2%	9.1%	12.1%
스포츠 및 오락/ 여가 관련 서비스업	25.0%	25.0%	16.7%	58.3%	16.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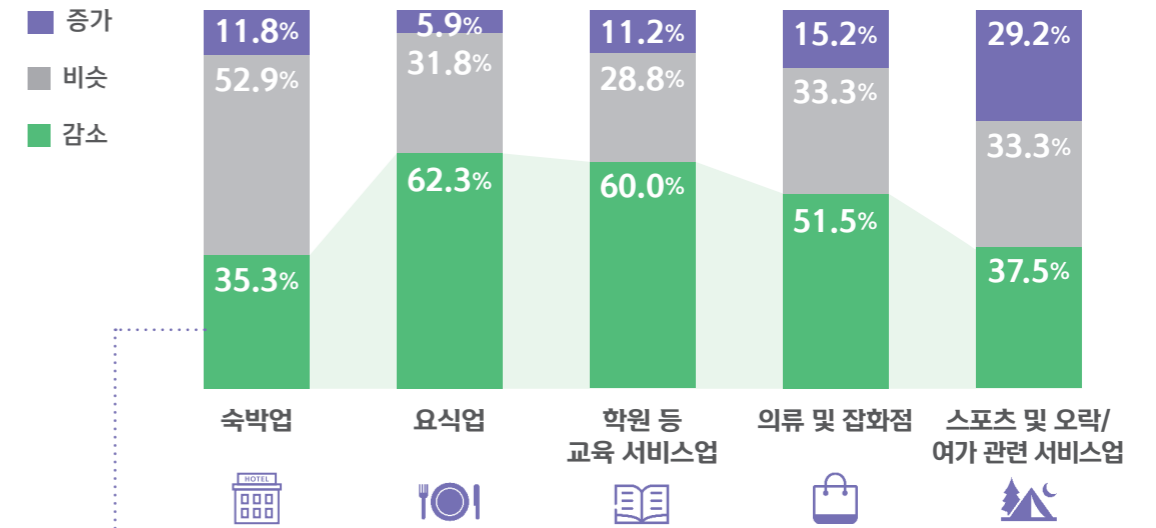
0.0%, 0.0% : 업종별 1,2위 응답

업종별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도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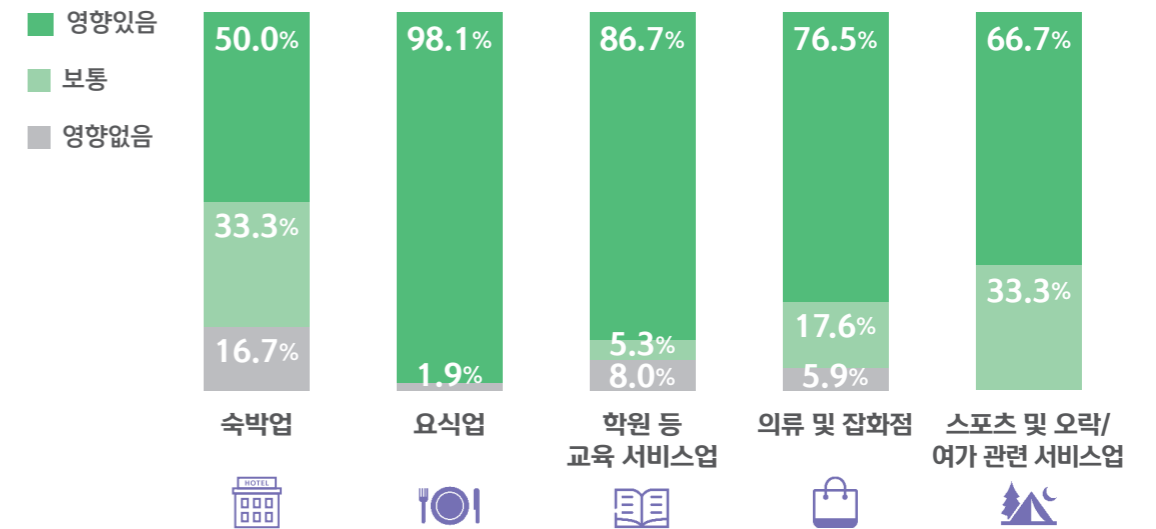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사업 매출 규모가 큰 도매/소매업, 건설업/광업, 무역업은 시장 내 경쟁 심화와 더불어 낮은 수익 대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타 업종 대비 매출 규모가 작은 자영업(숙박업, 요식업, 스포츠 및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시간 축소,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제약으로 인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다.

● 2020년 대비 2021년 사업 매출액 변화 인식



● 사업 매출액 감소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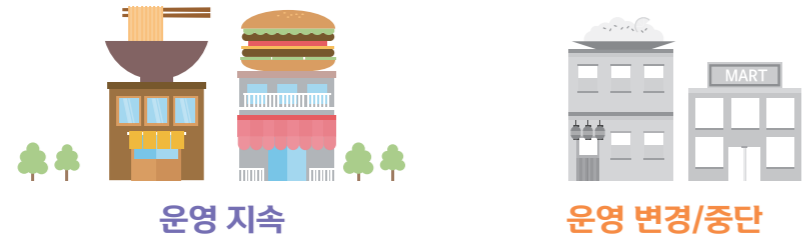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매출 규모 1천만원대의 업종들은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받았다.

요식업,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2021년 사업 매출액이 2020년보다 감소했으며, 매출 감소자 중 대다수가 매출액 감소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숙박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2020년과 매출 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했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큰 폭으로 감소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사업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고려 방안 (복수)



운영 지속

운영자금 마련
(대출/빌림, 보유자산처분)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영업방식 변경, 상품개발, 홍보)

긴축 운영
(종업원수 축소, 사업장 이전 등)

운영 변경/중단

사업체 업종변경

가게 영업 일시중단/폐업

개인파산 신청

업종	운영자금 마련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긴축 운영	사업체 업종변경	가게 영업 일시중단/폐업	개인파산 신청
숙박업	35.3%	29.4%	29.4%	23.5%	29.4%	5.9%
요식업	27.1%	50.6%	34.1%	7.1%	34.1%	5.9%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20.0%	33.6%	22.4%	12.0%	20.8%	4.0%
의류 및 잡화점	36.4%	51.5%	15.2%	9.1%	21.2%	6.1%
스포츠 및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	12.5%	29.2%	41.7%	12.5%	37.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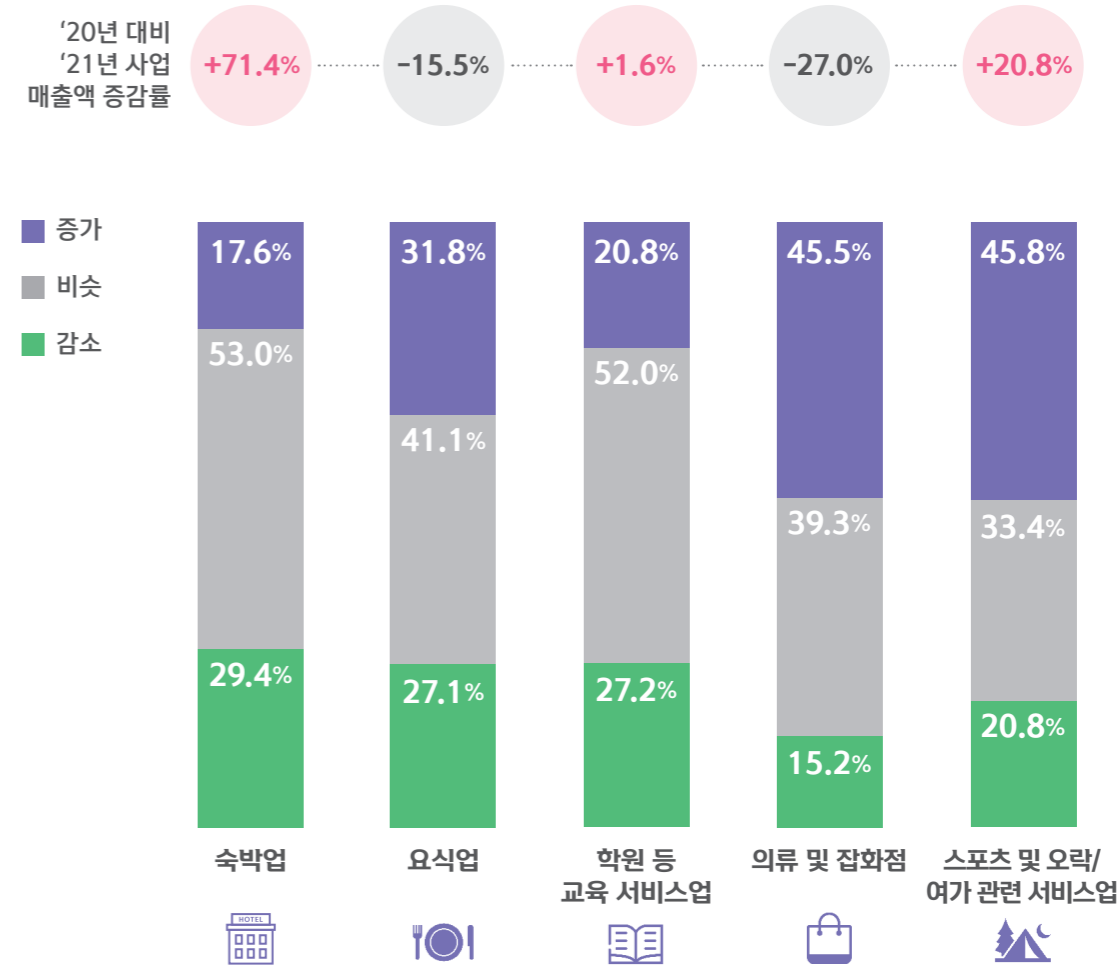
0.0%, 0.0% : 업종별 1,2위 응답

사업 운영 어려움에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매출 1천만원대의 자영업자들은 사업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방식 변경, 상품 개발, 홍보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 대출, 보유자산 처분 등으로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종업원수 축소, 사업장 이전 등 긴축 운영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포츠 및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 요식업, 숙박업은 일시적인 영업 중단/폐업도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었다.



2022년 사업체 매출 변화 예상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지만,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2022년 사업 매출을 2021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사업 매출이 202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숙박업은 53.0%가 2022년에도 현재 매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17.6%는 2021년보다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년 사업 매출이 20% 오른 스포츠 및 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45%가 2022년에는 사업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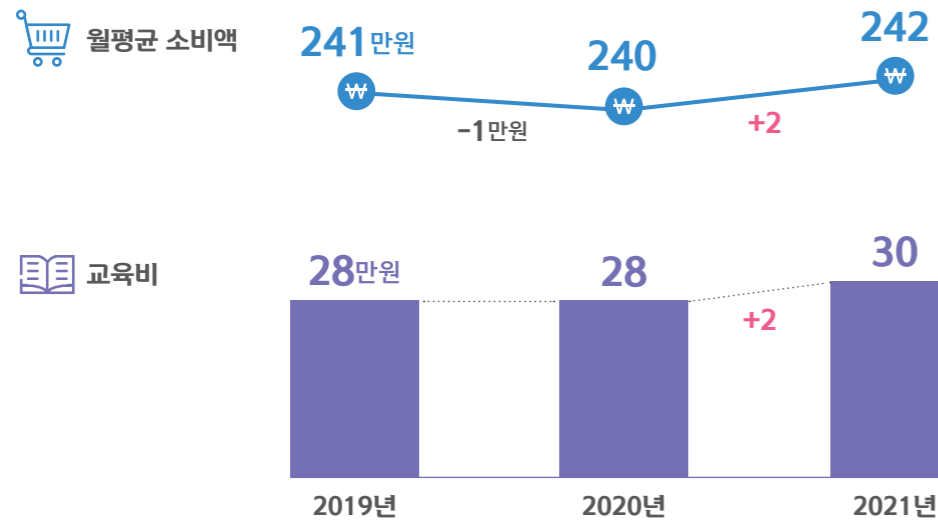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사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혜택, 손실보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3. 코로나19 이후 교육비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메우기 위해
유자녀 가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 더 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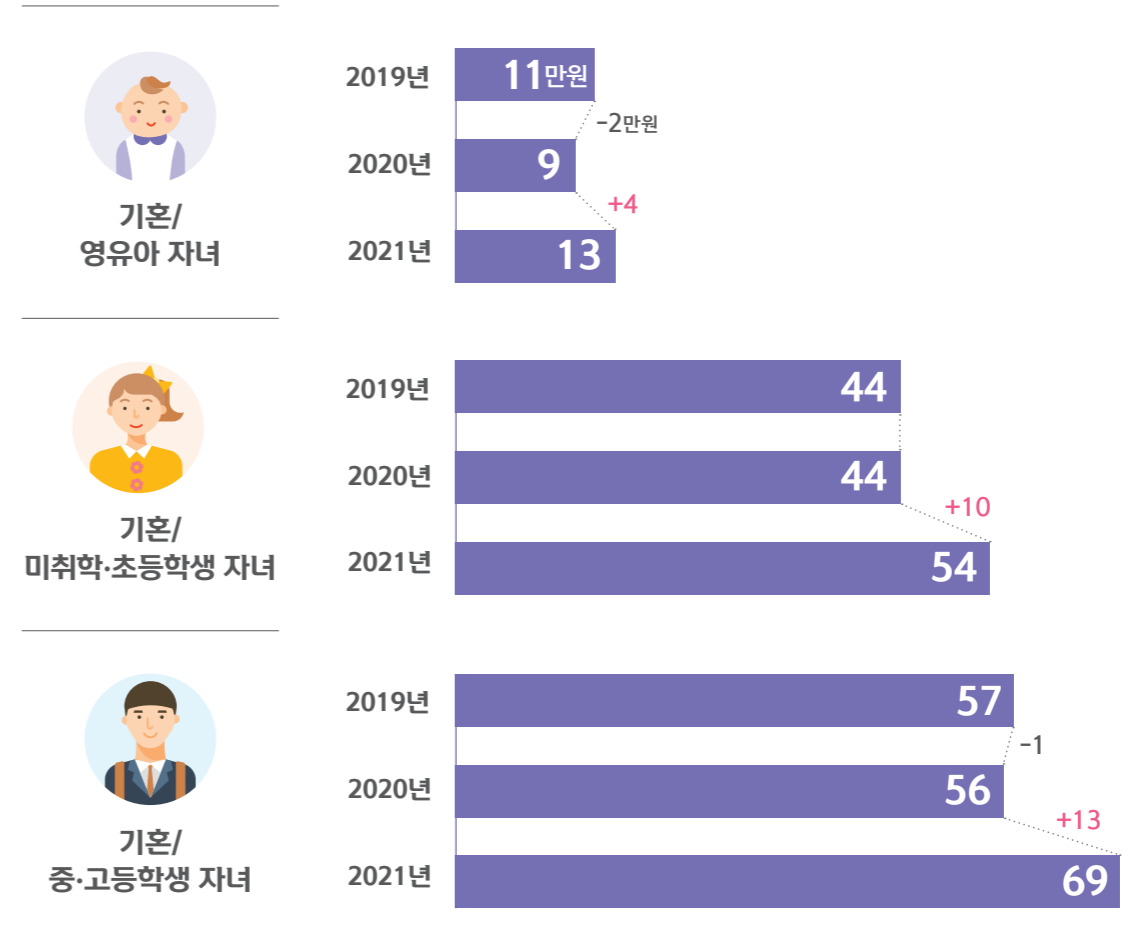
○ 월평균 교육비 지출 현황



가구 내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도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던 교육비가 2021년에는 2만원 더 늘었다.
2021년 월평균 소비액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2만원 더 늘어나
가구 내 소비 증가에 교육비 지출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 자녀 학령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자녀 학령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더 크게 늘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사교육비를 2020년보다 4만원,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3만원 늘었는데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사교육으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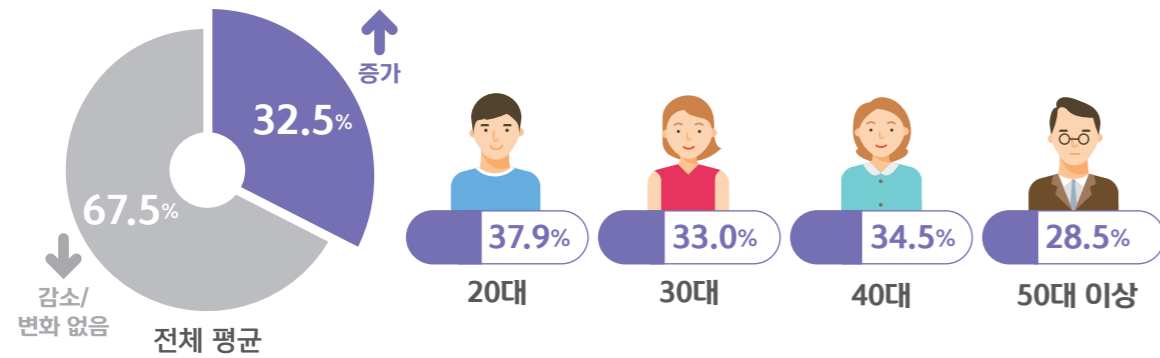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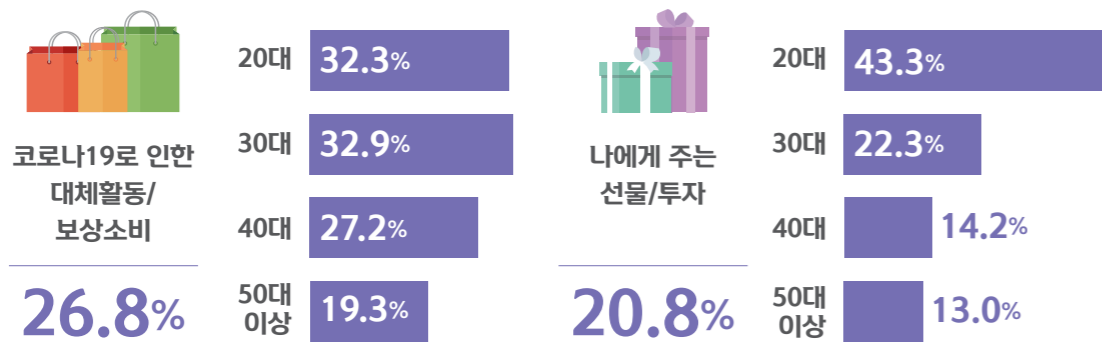
4. 코로나19 이후 대체소비

3명 중 1명은 예정에 없던 목돈 지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체 소비와 보복심리 분출

2020년 대비 2021년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소비/지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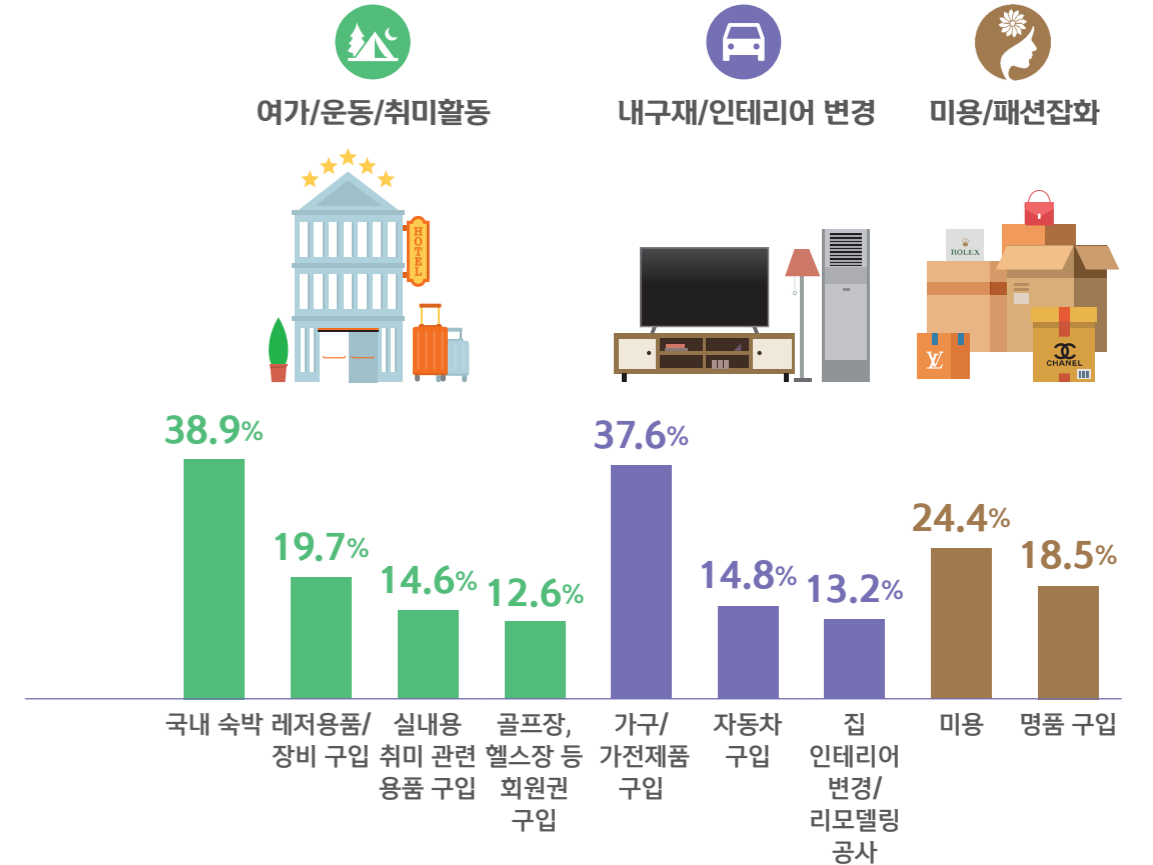
2021년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목돈 소비/지출 증가 이유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은 2021년에 2020년보다 예정 없이 지출한 금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컸다.

예정 없는 목돈 지출이 늘어난 이유로 26.8%는 코로나19로 못했던 활동에 대한 보상 및 대체활동을 찾아 지출했으며, 20.8%는 스스로를 위한 선물/투자 목적으로 지출했다.

2021년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목돈 소비/지출처 (복수)



연령대	국내 숙박	레저용품/장비 구입	실내용 취미 관련 용품 구입	골프장, 헬스장 등 회원권 구입	가구/가전제품 구입	자동차 구입	집 인테리어 변경/리모델링 공사	미용	명품 구입
20대	40.5%	10.0%	14.8%	15.2%	32.0%	8.9%	10.7%	34.1%	22.3%
30대	45.2%	21.4%	16.8%	13.8%	35.9%	17.6%	11.6%	23.6%	22.1%
40대	39.1%	24.7%	12.1%	9.4%	44.0%	18.2%	15.3%	13.7%	12.6%
50대 이상	29.0%	24.9%	14.5%	11.2%	39.6%	15.7%	16.3%	24.6%	16.0%

해외여행, 야외활동 제약으로 국내 숙박, 레저용품/장비 구입 등 여가/운동/취미활동에 예정에 없던 목돈을 많이 지출했다.

가구/가전제품, 자동차 구입, 집 인테리어 변경/리모델링 공사 등의 지출 비중도 높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내구재 보완, 교체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미용, 명품 구입, 골프/헬스 회원권 구입을 위한 지출이 많았고 30대는 국내 숙박, 실내용 취미용품 구입을 위한 지출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 수요와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하는 '보복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더불어 30대 이상에서 레저용품/장비 구입 지출이 컸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골프나 캠핑, 등산, 낚시 등의 야외활동이 코로나19 대체 여가생활로 호황을 누린 영향으로 보인다.

5. 최근 1년 내 2030 거주 주택 구입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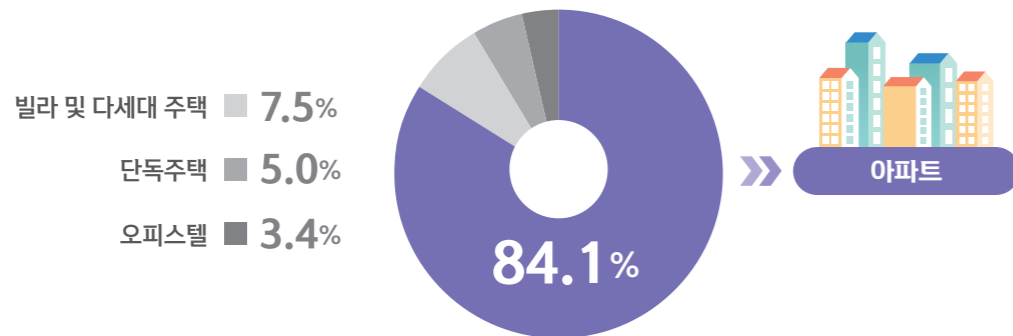


대출 부담을 안고서라도 주택 구입에 열중하는 2030대, 향후 구입 의향도 높아 대출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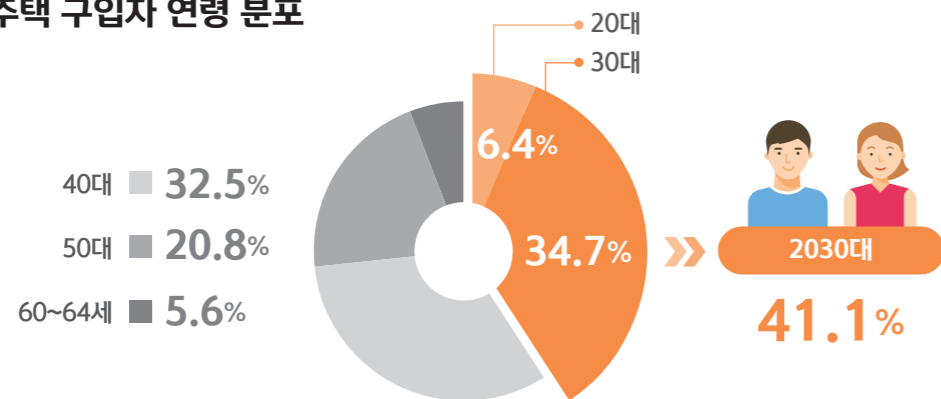
○ 최근 1년 내 거주 주택 구입률



○ 구입한 거주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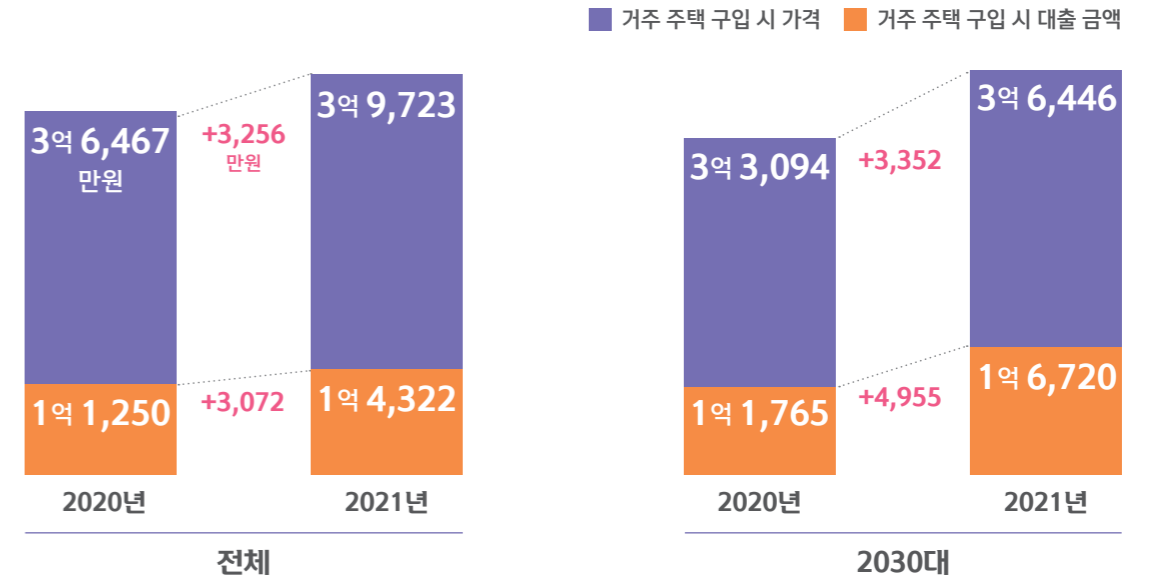


○ 거주 주택 구입자 연령 분포



최근 1년 내 거주 주택을 구입한 가구 비율은 7.2%로, 2020년보다 1.0%p 늘었다. 구입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4.1%로 가장 많았고,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거주 주택 구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6.4%, 30대는 가장 많은 34.7%로 20~30대가 40% 이상을 차지했고, 40대, 50대는 각각 32.5%, 20.8%로 나타났다.

○ 거주 주택 구입 시 가격 및 대출 금액



○ 거주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용률



2021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거주 주택을 구입한 당시 가격은 평균 3억 9,723만원으로 2020년보다 3천만원 가량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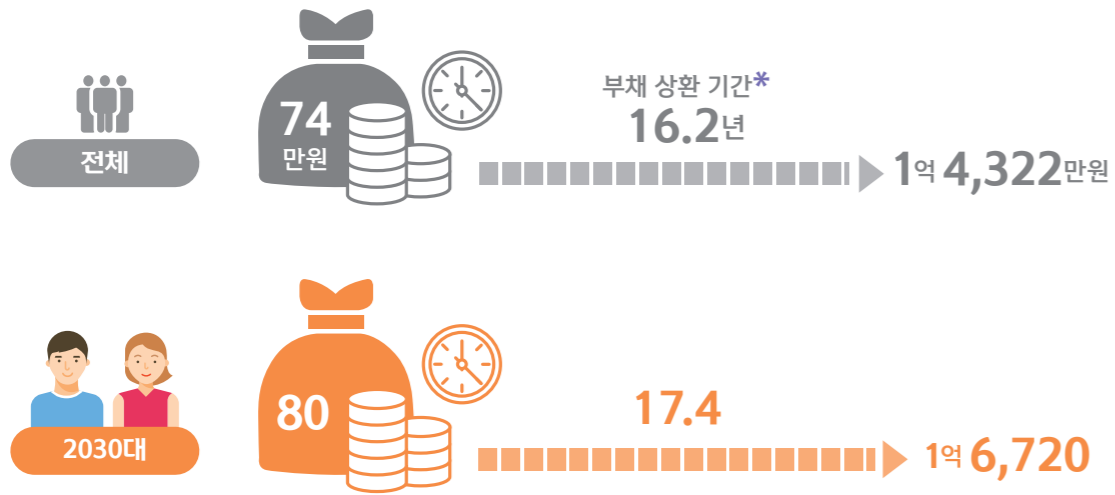
2030대도 2020년 대비 3천만원 가량 오른 평균 3억 6,446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

주택 구입자의 79.1%는 대출을 이용했는데, 특히 2030대의 대출 이용률은 89.8%로 2020년보다 14.7%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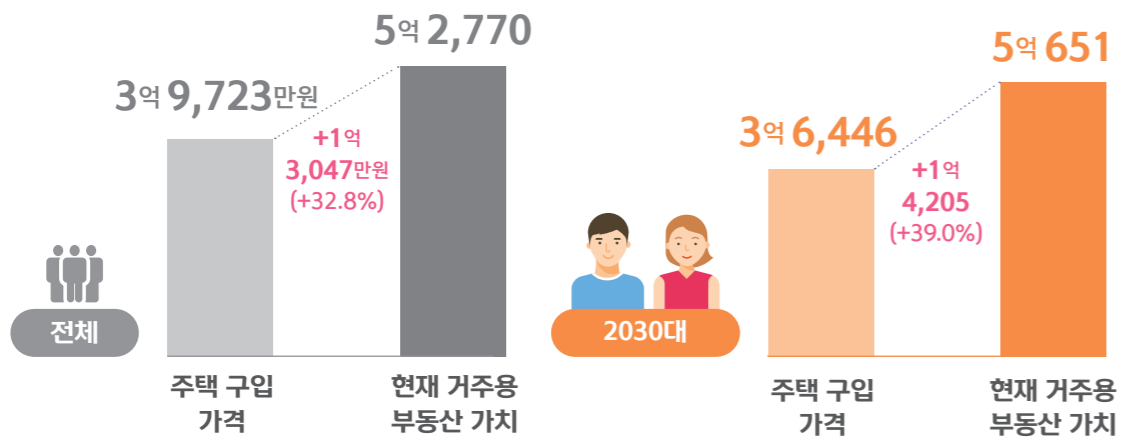
2030대의 주택 구입 가격 상승액이 전체 주택 구입자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 자산이 적어 보유 자산을 온전히 활용하기보다는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030대가 구입한 주택은 2020년보다 2021년에 3,352만원 올랐는데, 대출 금액은 그보다 더 많은 4,955만원이 오르면서 대출을 활용해 더 많은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 월평균 부채상환액과 부채 상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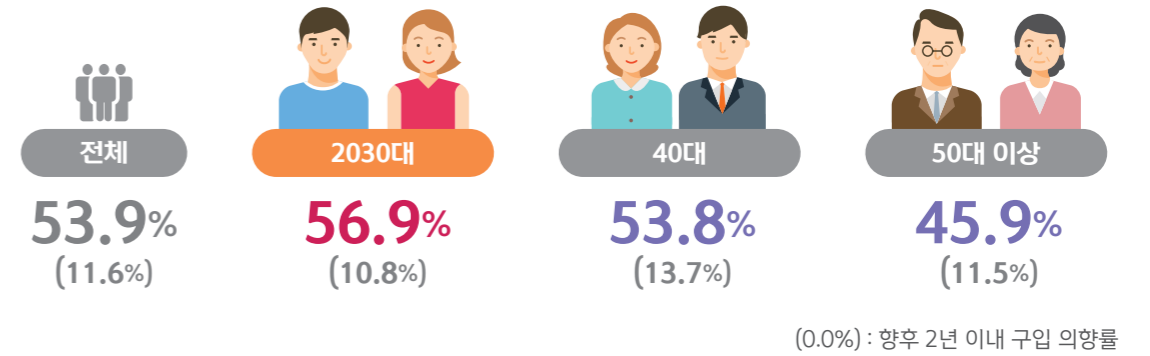
○ 현재 거주 주택 가치



최근 1년 내 거주 주택을 구입한 20~64세는 월평균 74만원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지만, 2030대는 대출 금액이 많은 탓에 그보다 6만원 많은 80만원을 지출해 부채 상환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8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2030대는 향후 17년간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부채 상환 부담 속에서도 구입한 주택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해, 2021년 현재 2020년 대비 32.8%가 올라 5억원을 넘어섰다. 2030대 또한 근 2년만에 1억 4천만원 상승해 39.0%의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 부채 상환 기간 | 거주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액을 연평균 부채 상환액으로 나눈 기간
부채 상환 기간 = 거주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액 ÷ (월평균 부채 상환액 × 12)

○ 향후 거주 주택 구입 의향



○ 향후 2년 내 거주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 방법

	금융기관 대출	보유 자산 처분	근로 소득	가족/친지의 지원	보유 부동산 임대 보증금
전체	50.5%	22.5%	16.6%	5.9%	4.0%
2030대	59.2%	13.6%	17.5%	6.8%	2.3%
40대	46.1%	27.0%	13.5%	5.7%	7.8%
5060대	34.4%	39.1%	18.0%	3.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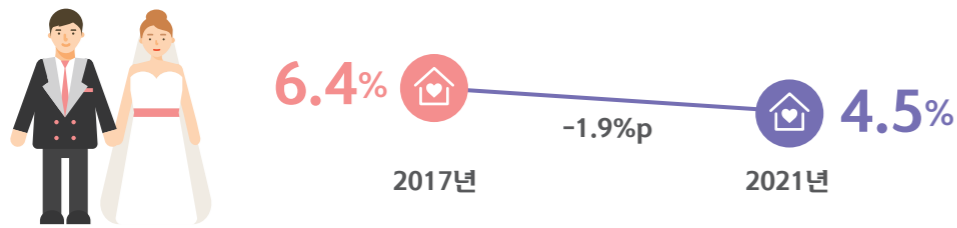
현재 주택을 자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제활동가구 절반 이상이 향후 2년 이내 주택 구입 의사를 보였다. 빠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구입 의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구입 여력이 적은 2030대는 10명 중 1명만 2년 이내 구입할 계획이었다. 향후 2년 이내 거주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가구의 50.5%는 대출을 이용해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보유 자산 처분, 근로소득 등을 활용할 예정이었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대는 그보다 높은 59.2%가 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대출 이용률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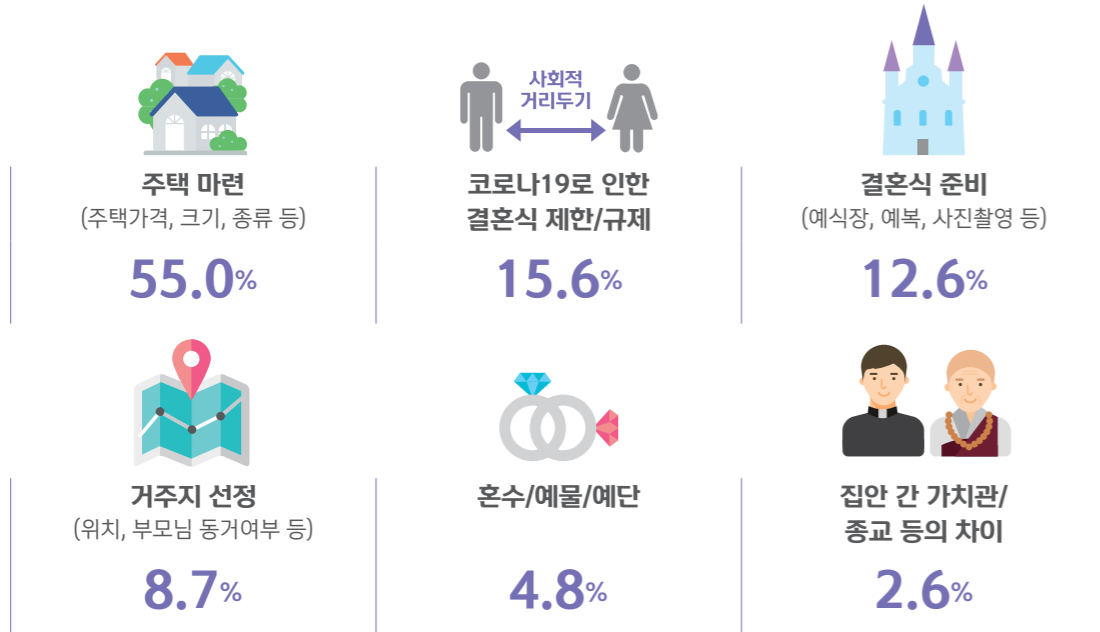
6. 20~44세 결혼준비 행태 변화

4년 만에 결혼율 2%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 비용은 1.3배 증가

○ '결혼 1년차' 신혼가구 비율



○ 결혼 준비 시 부담/힘들었던 점



조사기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결혼한 20~44세 비율은 2017년에는 6.4%였으나, 2021년에는 4.5%로 약 2%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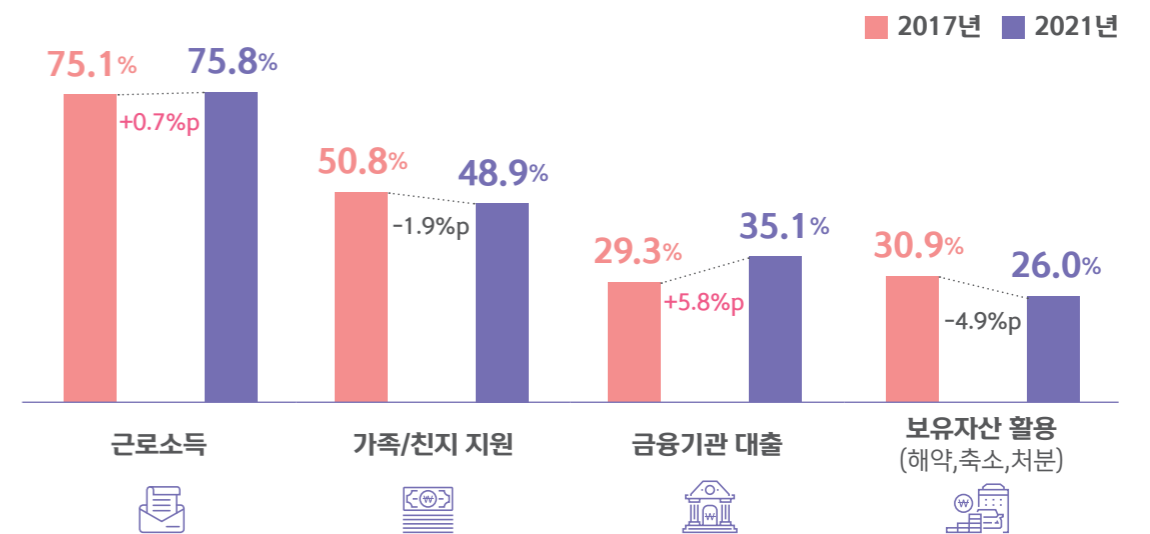
2021년에 결혼한 20~44세의 55.0%는 주택 마련, 15.6%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규제로 인해 결혼 준비가 힘들었다고 응답해 결혼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결혼 시기별 결혼 비용



	주택 마련	혼수	예식장, 폐백	예물, 예단, 이바지	신혼여행	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2017년	1억 284만원	1,233	676	501	506	204
2021년	1억 3,721만원	1,399	728	453	358	255
'21년-'17년 Gap	+3,437만원	+166	+52	-48	-14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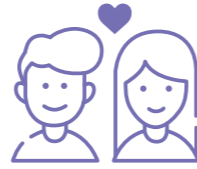
○ 결혼자금 마련 방법 (복수)



이들은 결혼을 위해 총 1억 6,916만원을 지출했는데, 2017년 1억 3,404만원에 비해 1.3배가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신혼여행 비용은 2017년보다 148만원, 결혼문화 간소화 추세에 따라 예단, 예물 비용은 48만원 감소했지만, 주택마련 자금으로 3,437만원을 추가 지출하면서 전체적인 결혼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결혼자금은 주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가족/친지의 지원,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했다.

7. 2030의 자녀출산인식 변화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의 17%는 자녀 계획이 없는 '딩크족',
여유 있는 삶을 중요시하고 본인을 위한 소비에 집중

향후 자녀 비출산 의향률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이유	2017년 (%)	2021년 (%)	'21년-'17년 Gap (%)
가치관적 이유 (생활의 여유, 부부만의 생활, 여가 니즈, 아이 필요성 못 느낌)	48.6%	58.0%	+9.4%p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비용 부담)	26.9%	18.0%	-8.9%p
시기적 이유 (출산적령기 지남, 부모가 될 심리적 준비 부족)	6.6%	8.0%	+1.4%p
사회적 이유 (결혼/사회생활 병행 어려움, 불이익)	14.3%	6.0%	-8.3%p
본인건강/가족부양 등	2.5%	2.0%	-0.5%p

최근 3년 내 결혼한 2030대 무자녀 가구의 17.4%는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었고, 4년 전인 2017년보다 5.8%p 늘었다. 생활의 여유, 부부만의 생활, 여가 니즈, 아이 필요성 못 느낌 등 가치관적 이유로 출산 의향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도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인식과 니즈가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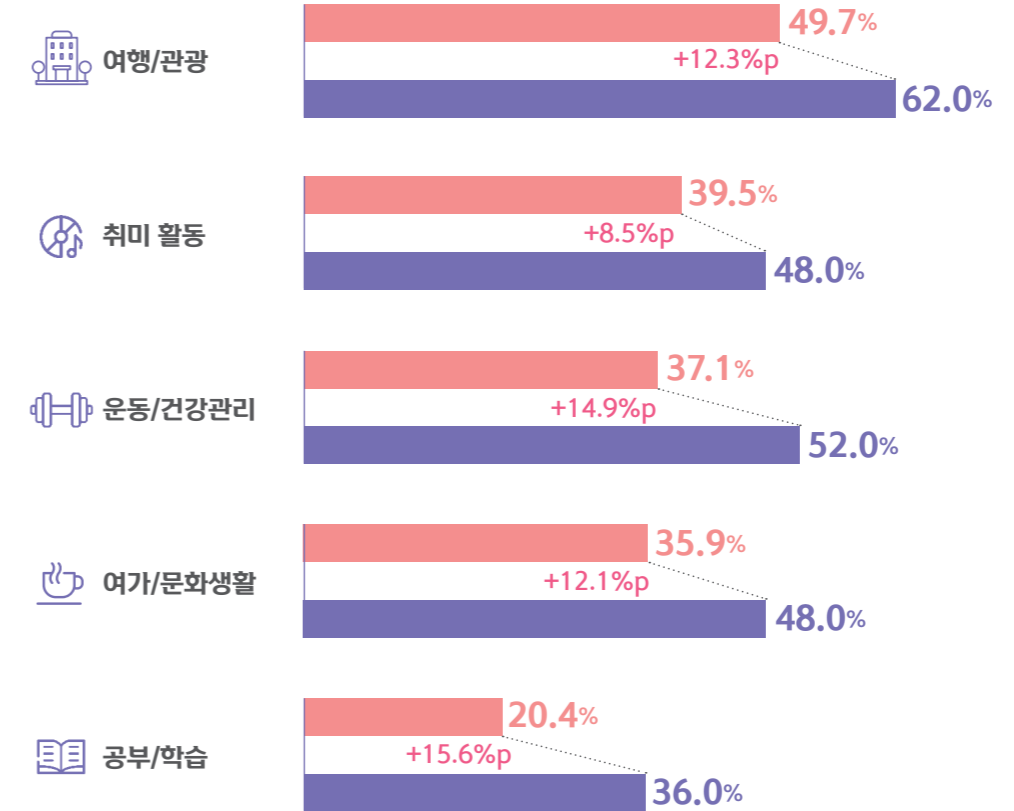
자녀 출산 의향 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 총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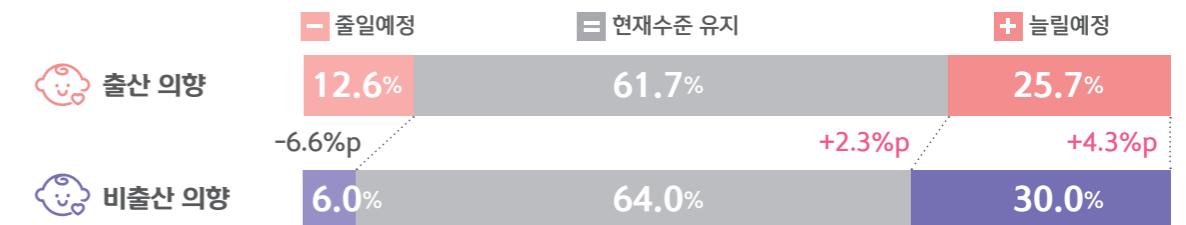
2017년에는 자녀 출산 의향 가구가 소득이 높았던 반면, 2021년에는 비출산 의향 가구가 높았는데, 경제적 상황보다 가치관에 따라 출산 여부를 계획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에도 자녀 양육보다는 부부를 위한 생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출산 의향별 올해(2021년) 본인을 위한 활동 (복수)

출산 의향 (빨간색), 비출산 의향 (파란색)



자녀 출산 의향별 향후 자기계발/취미 활동을 위한 소비·지출 투자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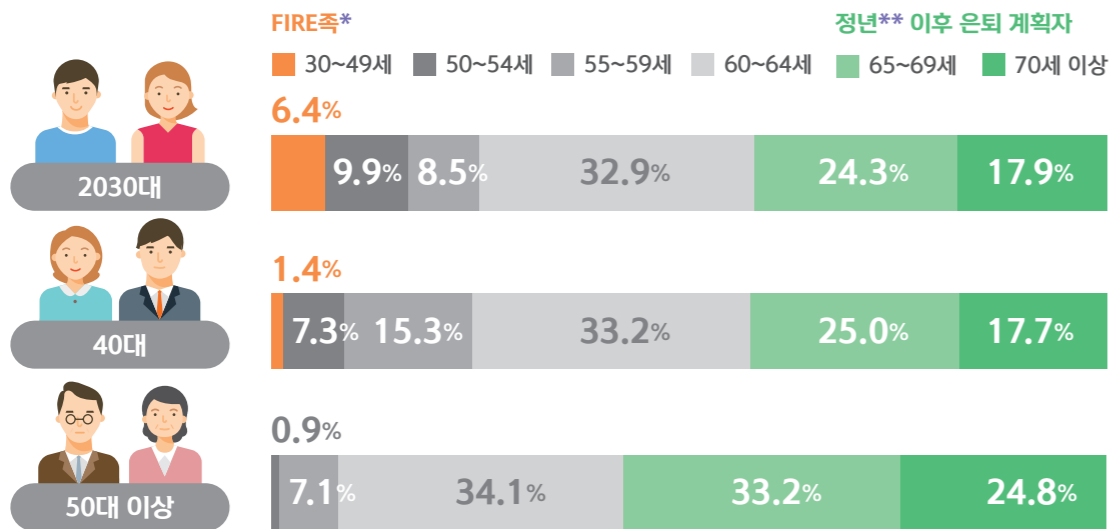
2021년 동안 비출산 의향 가구는 출산 의향 가구보다 자기계발/취미/여가 등 본인을 위한 활동을 더 많이 즐겼으며, 30.0%는 향후 지출을 더 늘릴 계획이었다.

현재 활발하게 본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출산 의향가구의 대다수인 94%는 자기계발/취미활동에 대한 소비지출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반면 출산 의향 가구의 12.6%는 향후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이었는데, 자녀 출산 후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질 것을 고려해 본인을 위한 소비를 줄여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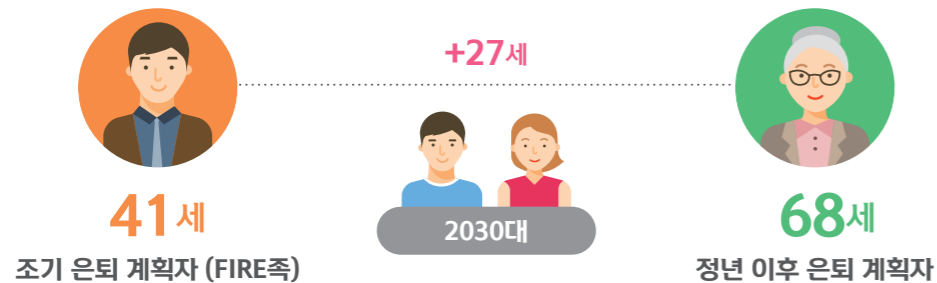
8.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2030의 노후 준비

2030대 경제활동자의 6%는 조기은퇴를 꿈꾸는 FIRE족, 현재를 위한 소비보다는 공격적·계획적인 투자로 미래 준비에 적극적

은퇴 예상 연령 분포



2030대가 생각하는 은퇴 예상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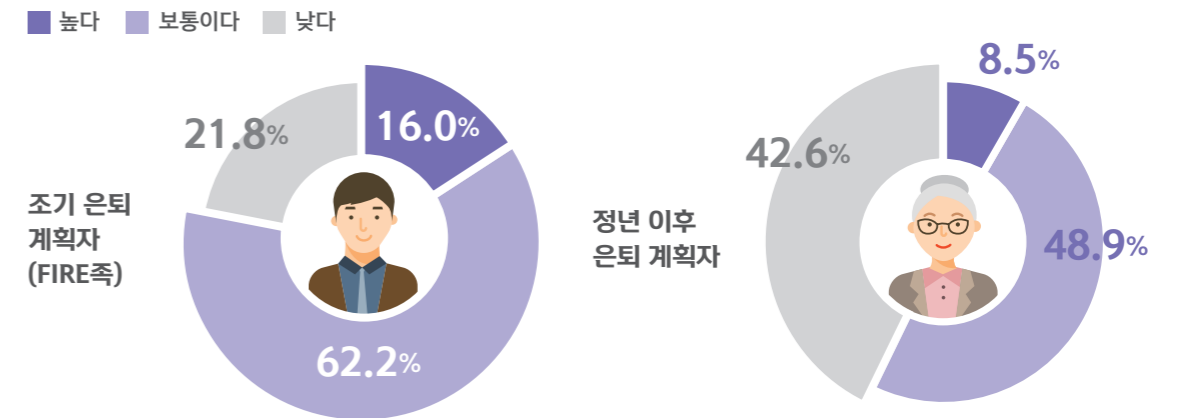
전 연령대의 과반 이상이 60대 이후 은퇴를 예상하지만, 2030대의 6.4%는 30~40대에 은퇴를 고려하는 FIRE족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생각하는 은퇴 예상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50대 이전 은퇴를 꿈꾸는 조기 은퇴 계획자는 41세,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68세로 27세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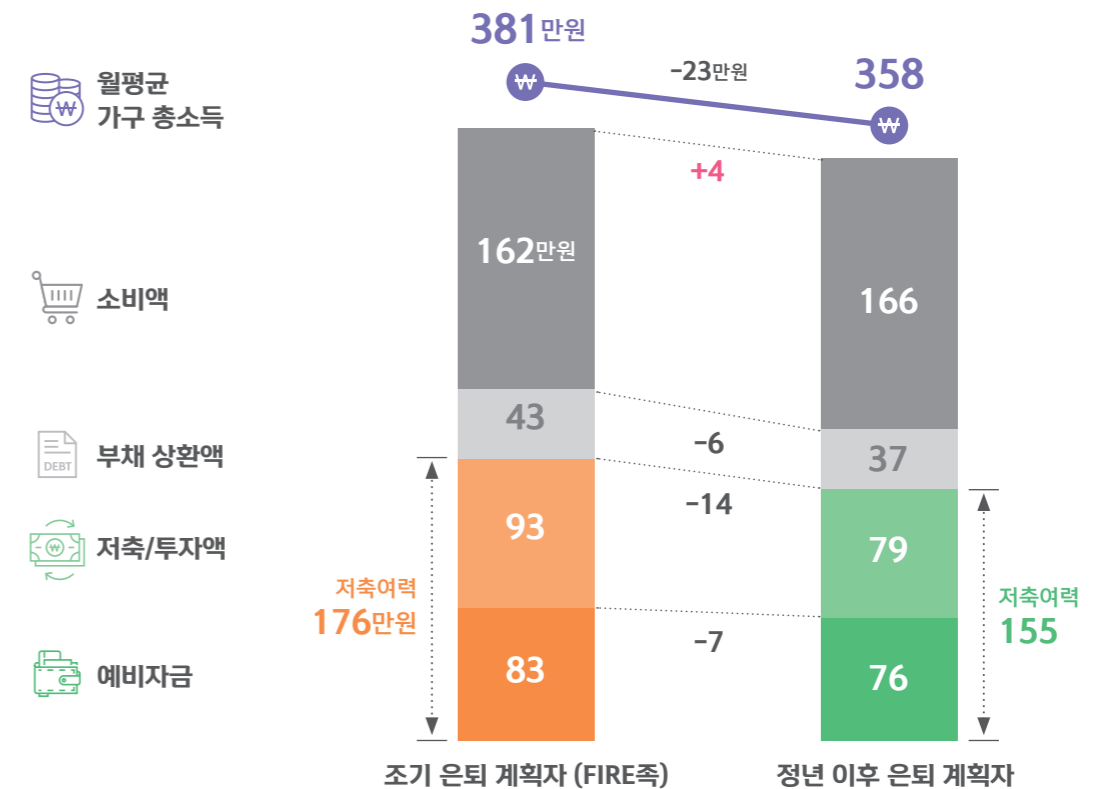
* FIRE족* |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조기 은퇴 계획자
 정년** | 한국 생산연령인구 나이 기준 '15~64세' 이후인 65세를 정년으로 정의



또래 대비 본인 경제력 수준 인식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지출 행태



이들은 본인의 현재 경제력 수준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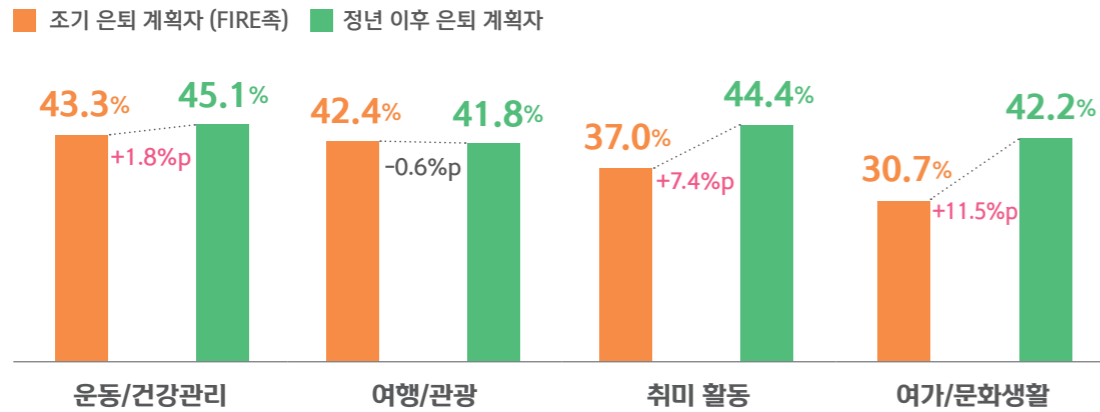
조기 은퇴 계획자의 78.2%는 본인의 경제력 수준이 또래와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했으나,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42.6%가 또래보다 낮다고 생각했다.

조기 은퇴 계획자는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소득은 많고, 지출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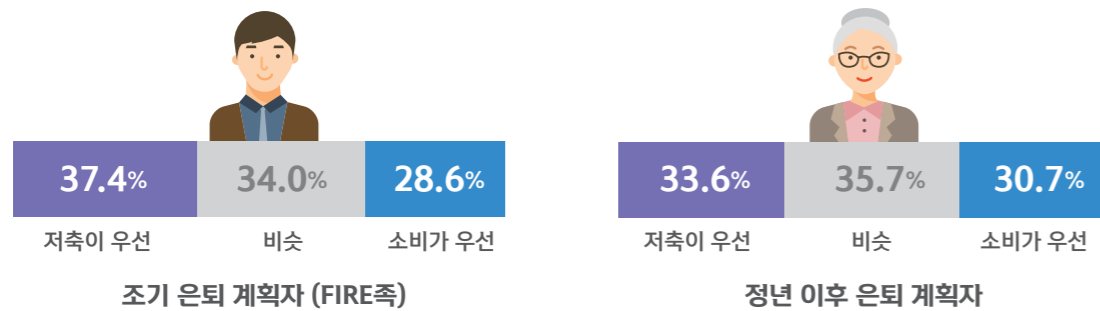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381만원으로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23만원 더 벌었는데, 소비는 4만원 더 적게, 부채 상환에는 6만원 더 많이 쓰면서 월 지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월 저축/투자액은 14만원, 예비자금은 7만원 더 많아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저축 여력은 더 컸다.

올해(2021년) 본인을 위한 활동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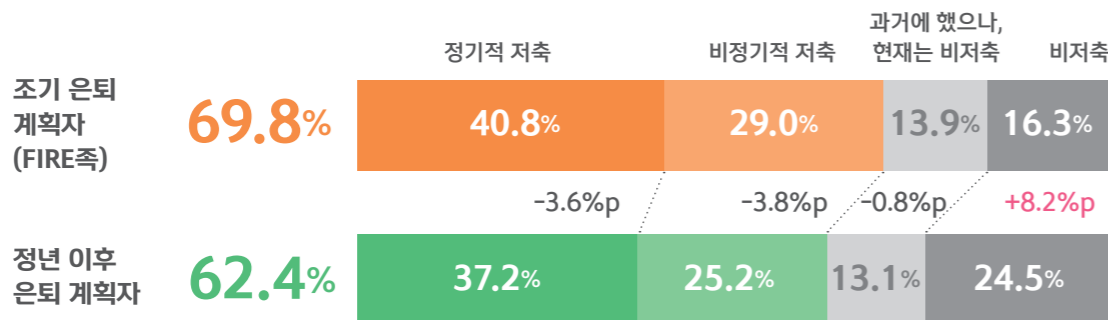


지출 행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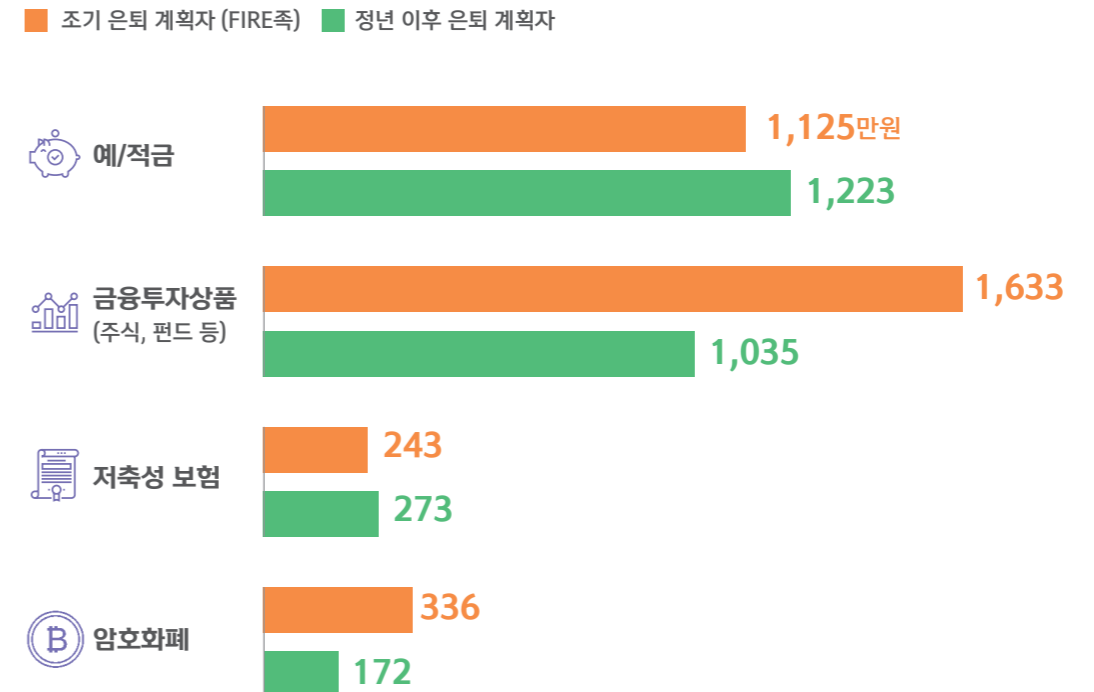
조기 은퇴 계획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본인을 위한 취미 활동이나 여가/문화생활 등의 소비에는 소극적이었고,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 우선이라는 비율이 8.8%p 높았다. 반면,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본인을 위해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며 현재를 즐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를 했다.

노후자금 저축 여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조기 은퇴 계획자는 69.8%로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 62.4%보다 7.4%p 높게 나타났다.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 4명 중 1명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계획한 은퇴 나이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상품별 예치자산 규모



보유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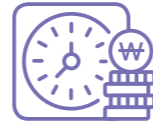
	총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
조기 은퇴 계획자 (FIRE족)	3억 1,768만원	2억 4,567	4,387	2,814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	2억 7,695만원	2억 1,458	3,869	2,367
조기 은퇴 계획자 -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 Gap	+4,073만원	+3,109	+518	+447

금융/투자 예치 자산 및 총 보유자산 현황을 비교해보면 조기 은퇴 계획자가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은퇴 계획자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1.6배, 암호화폐에 2배 더 많은 자산을 예치했는데, 빠른 은퇴를 위해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고자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

조기 은퇴 계획자의 총자산은 3억 1,768만원으로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4,073만원 많았는데, 자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의 규모는 비슷했지만 조기 은퇴 계획자의 부동산 자산이 2억 4,567만원으로 3천만원 더 많았다.

9.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40대



가족부양으로 은퇴/노후준비가 어려운 40대,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 지속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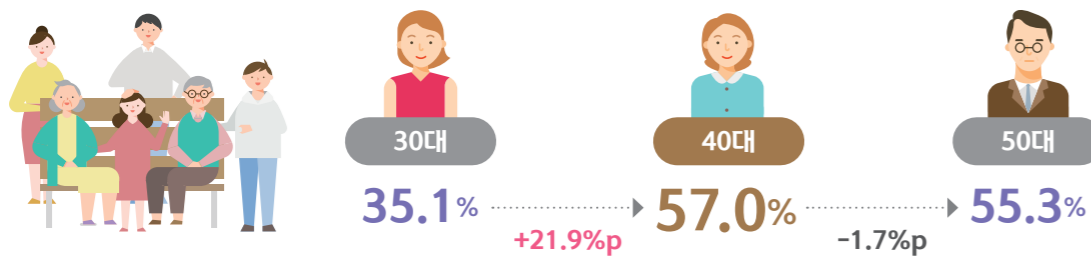
○ 은퇴/노후 준비 시작 적정 나이



○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 상태



○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 부족에 '가족 부양'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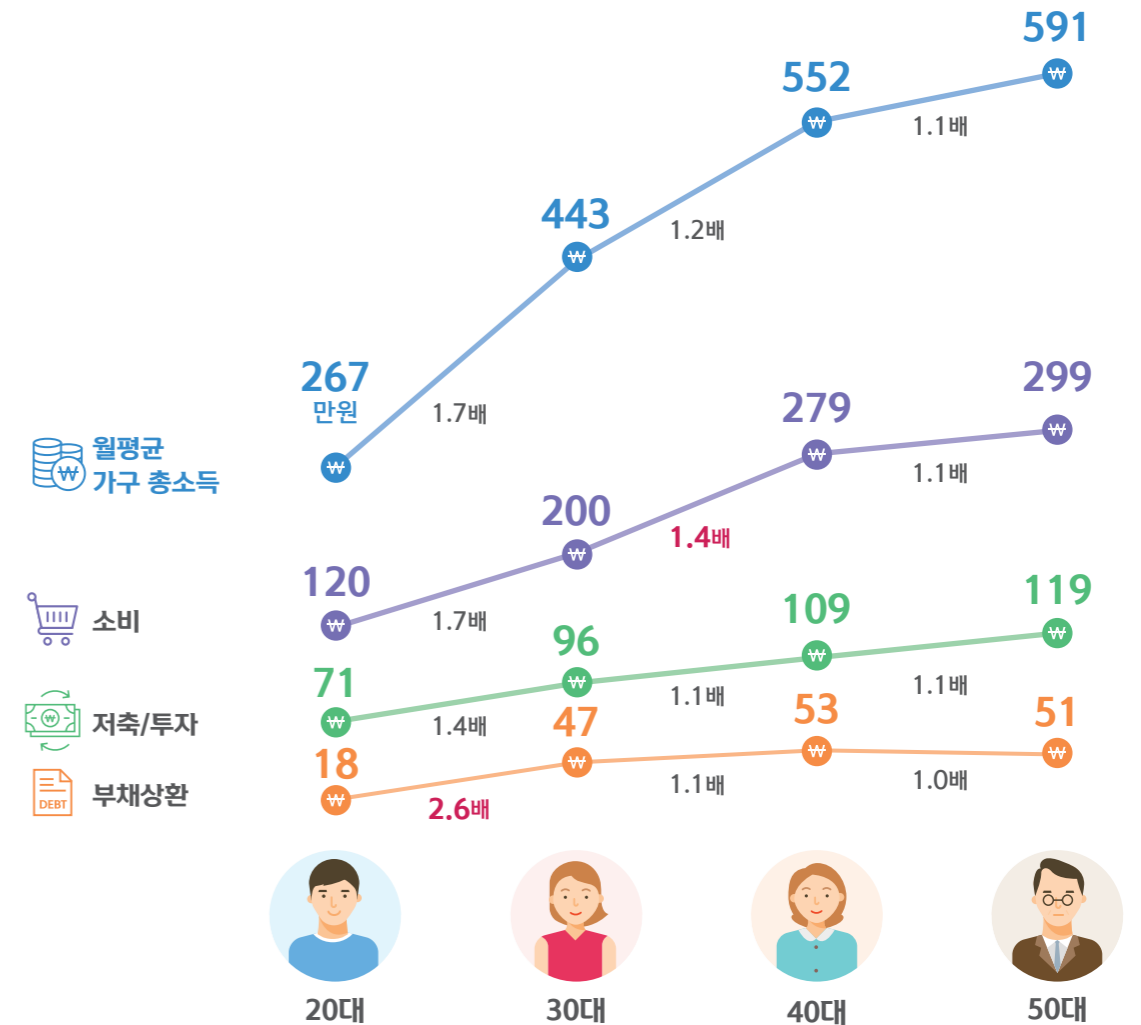
20~64세 경제활동자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41.5세부터는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대도 스스로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되어 있는 40대는 15.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 부모, 자녀 등 가족을 위한 경제적 부양/지원에 대한 응답이 30대는 35.1%였으나, 40대는 57.0%로 부담감이 높아졌고, 50대가 되어서야 소폭 감소했다.

40대에는 성장기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다 보니, 정작 본인의 은퇴/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지출 행태



연령대별로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소비액 변화를 비교하고, 각 연령별 지출이 늘어나는 영역을 살펴보았다.

20대는 혼자 벌고 쓰는 미혼가구가 많아 타 연령보다 총소득 및 소비액 규모가 낮은 편이나, 30대부터는 기혼가구가 많아지고 가구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가구 총 소득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의 가구 총소득은 20대보다 1.7배 늘어났고, 월 고정 소비액도 똑같이 1.7배 늘어났으나, 부채상환액이 2.6배로 크게 증가하면서 저축/투자액은 소득 증가폭보다는 낮은 1.4배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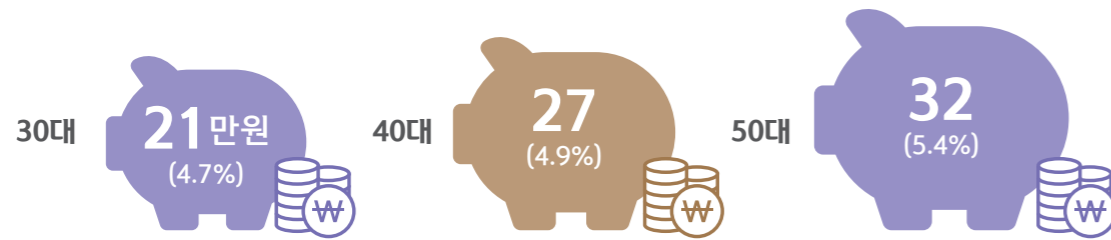
반면 40대는 30대보다 가구 총소득은 1.2배 증가했으나 월 고정 소비액이 이보다 더 많은 1.4배 증가하면서, 부채와 저축/투자액은 소득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50대가 되어서야 소득 증가폭인 1.1배만큼 소비, 저축/투자액 등이 늘어나며 전반적인 가계 경제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월 고정 소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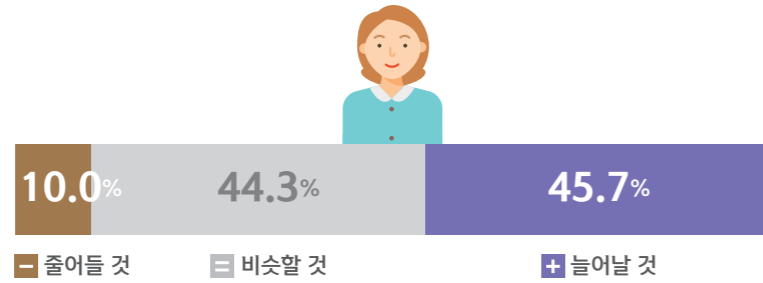
	월평균 총 고정 소비액	식비 (외식, 간식, 식재료 등)	교육비 (자녀, 손자녀 등)	용돈 지급 (부모, 자녀 등)
30대	200만원	51만원	16	9
40대	279만원	64만원	50	16
50대	299만원	61만원	43	19
40대-30대 Gap	+79만원	+13	+34	+7

○ 노후자금 마련 목적 저축액



(0.0%) : 월평균 총소득 대비 노후자금 목적 저축액 비중

○ 내년 소비지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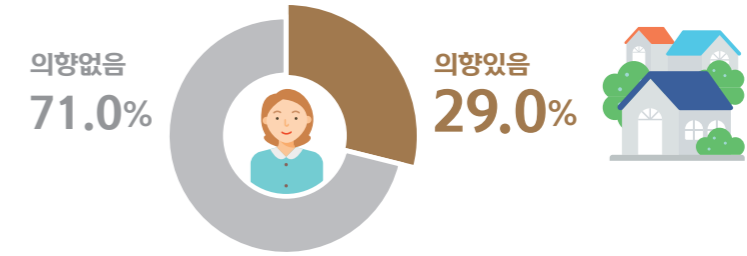
30대에 비해 40대에 크게 늘어난 소비 항목을 살펴보면 식비, 교육비, 용돈 지급 등으로 30대 대비 늘어난 월 소비액 79만원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

40대는 가족을 위한 고정 지출이 많은 반면, 본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액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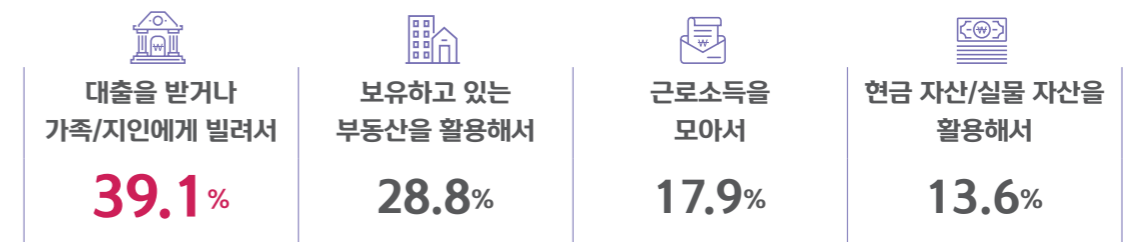
40대의 노후자금 저축 금액은 27만원으로, 월 소득 대비 저축금액을 비교하면 4.9%로 30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현재 부담하는 지출이 많음에도 40대의 45.7%는 내년 소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앞으로도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3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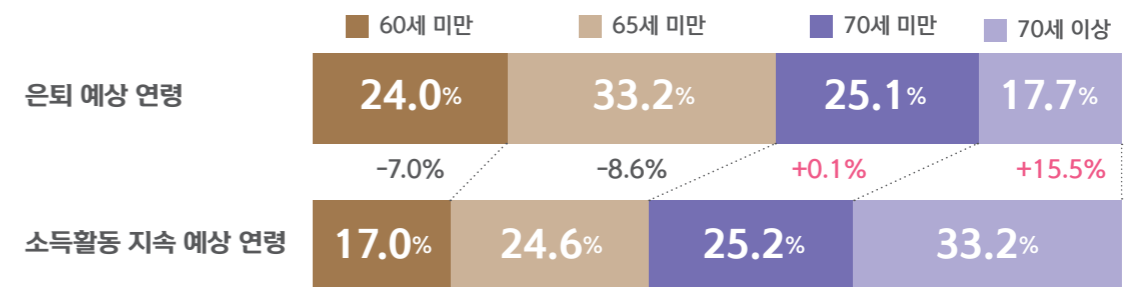


○ 향후 부동산 구입 비용 마련 방법



40대는 학령기 자녀 가구가 많다보니, 앞으로 자녀의 학업, 결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 40대 10명 중 3명은 향후 3년 내에 부동산 구입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39.1%가 대출을 이용하거나 가족 등의 지원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부채 부담도 증가하면 노후 준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퇴 및 소득활동 지속 예상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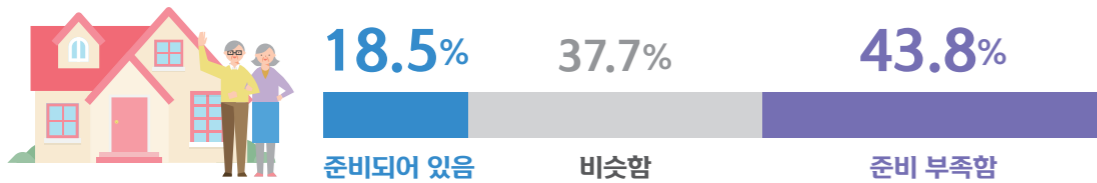
40대의 57.2%가 정년인 65세 전에 은퇴를 예상하나, 58.4%는 정년을 넘긴 65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70세 넘어서도 일을 할 거란 응답은 33.2%였다.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4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가 지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치 않아 예상 은퇴 시점보다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50~64세의 은퇴 준비 현황



50~64세의 18%만 현재 노후 준비 상태에 만족,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40대 중반부터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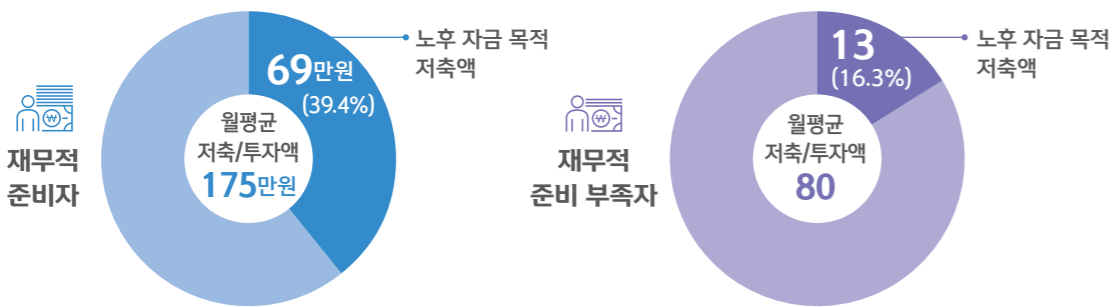
50~64세의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 상태



보유 자산 구성 현황

	총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
재무적 준비자	10억 8,128만원	8억 5,748	1억 6,566	5,814
재무적 준비 부족자	4억 5,230만원	3억 6,708	5,721	2,801
준비자-준비 부족자 Gap	+6억 2,898만원 (2.4배)	+4억 9,040 (2.9배)	+1억 845 (2.3배)	+3,013 (2.1배)

월평균 가구 총소득 대비 저축/투자 현황



(0.0%) : 월평균 저축/투자액 내 노후 자금 목적 정기저축액 비중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50~64세의 총자산은 10억 8,128만원으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2.4배인 6억 2,898만원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1억 6,566만원, 부동산 자산은 8억 5,748만원, 기타 자산은 5,81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50~64세보다 모든 항목에서 2배 이상 많았다. 재무적 준비자는 월평균 저축/투자액 175만원 중 69만원(39.4%)을 노후 자금을 위해 정기저축하는 반면, 준비 부족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80만원 중 13만원(16.3%)만이 노후를 위한 저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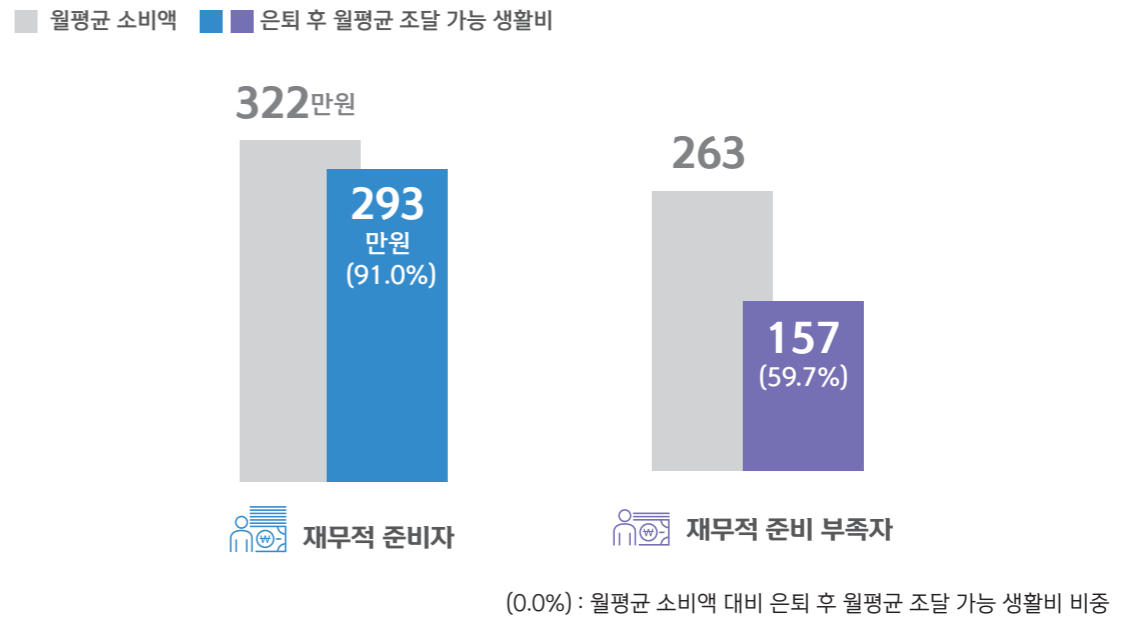
은퇴 후 예상 소득원 (복수)

	재무적 준비자	재무적 준비 부족자	준비자-준비 부족자 Gap
연금	91.6%	82.3%	+9.3%p
모아둔 보유 자산	53.0%	35.8%	+17.2%p
투자수입 (이자수익/배당금, 부동산임대소득 등)	49.0%	17.4%	+31.6%p
공공 지원 (노령 수당, 생활 지원금 등)	19.6%	37.5%	-17.9%p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적은 소일 거리 수준의 근로 소득	11.9%	26.9%	-15.0%p
가족 지원 (자녀 등)	5.3%	11.6%	-6.3%p

50~64세의 80% 이상은 '연금'을 은퇴 후 활용할 주소득원으로 예상했다.

재무적 준비자는 연금과 더불어 모아둔 보유자산, 투자수입 등을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준비 부족자는 노령수당 등 공공지원을 기대하는 비중이 더 컸으며, 은퇴한 후에도 소일거리 수준의 근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경우도 26.9%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액 및 은퇴 후 월평균 조달 가능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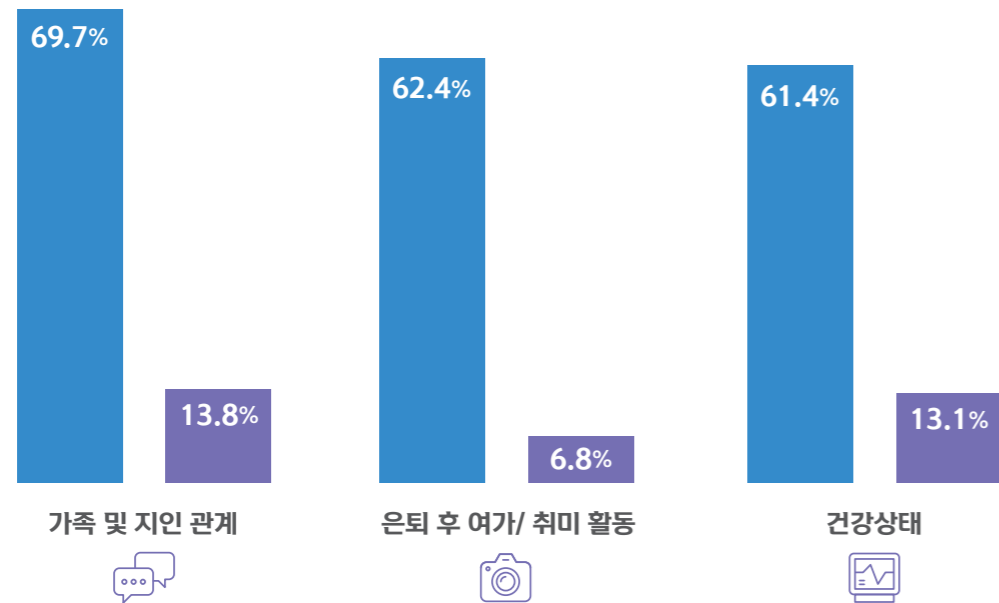
(0.0%) : 월평균 소비액 대비 은퇴 후 월평균 조달 가능 생활비 비중

현재 노후 자금을 위한 저축/투자 및 재무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은퇴 후 매월 조달 가능한 생활비는 준비자의 경우 293만원으로 현재 월소비지출액의 9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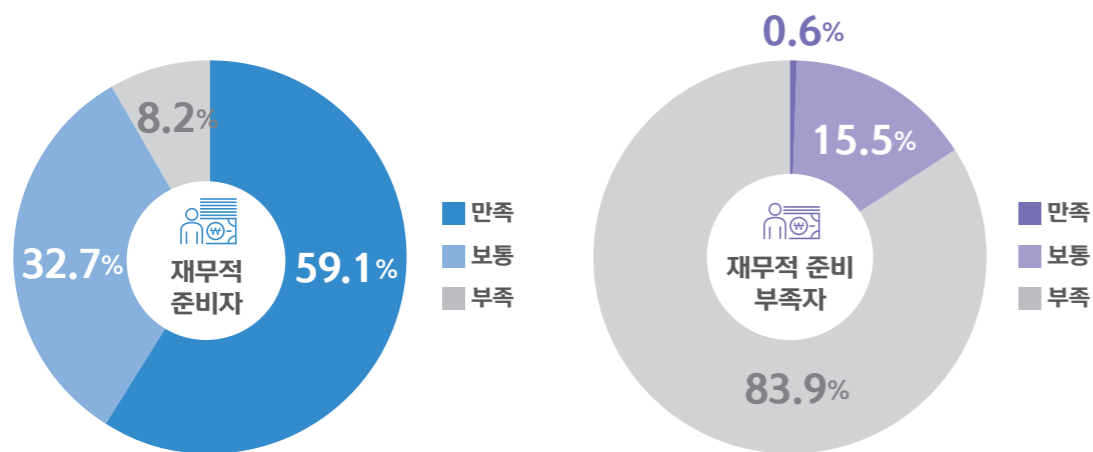
반면 준비 부족자는 현재 소비/지출액의 59.7%인 157만원만 조달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노후를 위한 비재무적 준비 '우수' 비율

■ 재무적 준비자 ■ 재무적 준비 부족자



현재 노후 준비 수준 만족도



재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재무적 은퇴 준비 여부에 따른 차이가 컸다.

재무적 준비자의 60% 이상은 건강상태, 은퇴 후 여가/취미 활동, 가족 및 지인 관계가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준비 부족자는 비재무적인 준비 상태 역시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재무적 준비자 절반 이상이 현재 노후 준비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반면, 준비 부족자는 만족하지 못하며 은퇴 후 노후를 걱정했지만 준비 여력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유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지원하느라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해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해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느라
전체	78.7%	45.0%	27.1%	19.3%	8.8%
50~54세	79.3%	51.2%	22.9%	17.1%	10.2%
55~59세	77.3%	43.2%	28.6%	19.0%	8.4%
60~64세	79.1%	35.4%	33.3%	23.8%	6.4%

상위 응답 5개만 기재

은퇴/노후 준비 시작 적정 나이



재무적 준비 부족자는 현재 생활비 마련과 자녀 부양/지원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50대에서 60대로 은퇴가 다가올수록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많았고,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했다는 인식도 더욱 커졌다.

50~64세 경제활동자는 현재 재무적 은퇴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44~45세에는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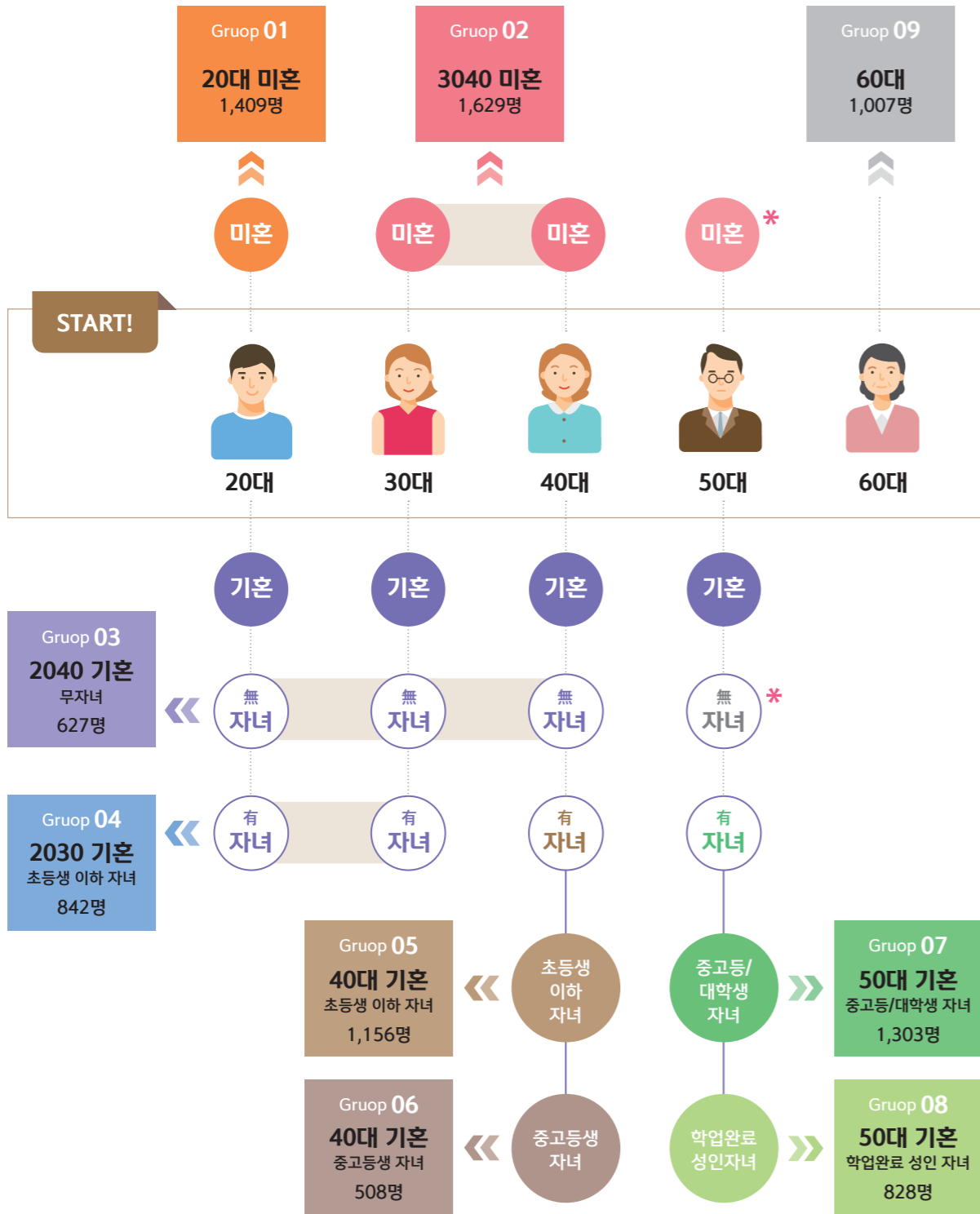




Life Stage별 금융생활

그룹1. 20대 미혼	94
그룹2. 3040 미혼	96
그룹3. 2040 기혼 무자녀	98
그룹4. 2030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100
그룹5. 40대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102
그룹6. 40대 기혼 중고등생 자녀	104
그룹7. 50대 기혼 중고등/대학생 자녀	106
그룹8. 50대 기혼 학업완료 성인 자녀	108
그룹9. 60대(60~64세)	110

Life Stage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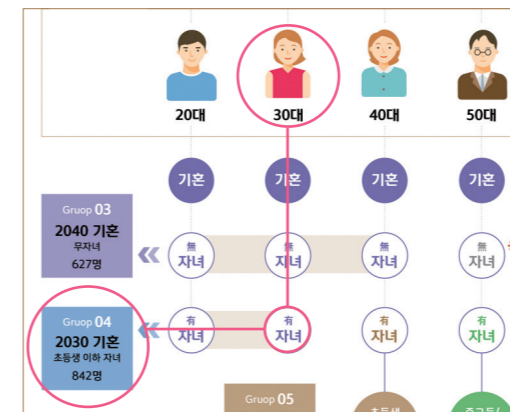
* 조사대상 총 1만명 중 기타 Group 6.9%(691명)은 본 분석에서 제외
 - 20~30대 중학생 이상 자녀 (31명) | 40대 대학생 이상 자녀 (129명) | 50대 미혼 (251명)
 50대 기혼 무자녀 (130명) | 50대 초등학생 이하 자녀 (150명)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름 : 김보통 (여자, 36세)
 직업 : 중소기업 과장
 월 평균 총 가구소득 : 445만원
 가족 구성 : 본인,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1명
 관심사항 : 아파트 구입

01 | “나”의 그룹 확인



연령, 결혼유무, 자녀유무, 자녀나이를 그룹 확인

2030 기혼 초등생 이하 자녀 그룹에 해당 **Group 04 / p.100**

02 | “나”의 소득 구간 확인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소득분포 현황	보유자산	부채 잔액	소비	교통비	문화비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장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1구간	290만원	소비 174 60.0% 부채상환 45 15.5% 저축/투자 48 16.6% 예비자금 23 7.9%	총자산 2,403 부동산 26,461 기타 3,175	7,705만원	55만원 90%	19 81%	18 91%	14 90%	38 31%	13 57%	14 36%	11 37%	14 25%	31 63%	13 54%
2구간	412만원	소비 223 54.1% 부채상환 51 12.4% 저축/투자 65 15.8% 예비자금 73 17.7%	금용 3,703 부동산 41,093 기타 2,610	1억 284	72 94%	21 90%	20 95%	17 97%	34 24%	18 64%	19 49%	10 42%	16 30%	38 68%	16 58%
3구간	508만원	소비 279 54.9% 부채상환 63 12.4% 저축/투자 88 17.3% 예비자금 78 15.4%	금용 4,559 부동산 49,213 기타 4,252	1억 573	80 91%	25 89%	24 96%	17 96%	41 27%	23 59%	25 48%	12 41%	27 36%	47 72%	1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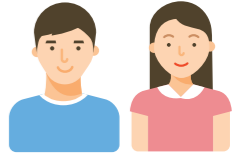
전반적 금융생활 확인

본인 소득구간 혹은 한 단계 위 소득구간 비교

세부 소비 현황 확인

관심 항목(예. 주거비)을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평균 사용액으로 본인의 소비 수준 진단 혹은 본인 그룹 외 다른 그룹과 비교

Group 01 20대 미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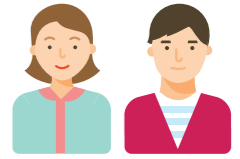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94 만원	소비 55 58.5% 부채상환 6 6.4% 저축/투자 22 23.4% 예비자금 11 11.7%	총자산 3,165 금융 809 부동산 1,711 기타 645	845 만원
170▶ 만원				
2구간	191	소비 92 48.2% 부채상환 10 5.2% 저축/투자 57 29.8% 예비자금 32 16.8%	총자산 7,034 금융 1,572 부동산 4,450 기타 1,012	1,297
200▶				
3구간	216	소비 98 45.4% 부채상환 13 6.0% 저축/투자 69 31.9% 예비자금 36 16.7%	총자산 9,458 금융 2,016 부동산 6,560 기타 882	2,179
240▶				
Group 01 평균	268	소비 117 43.7% 부채상환 20 7.5% 저축/투자 78 29.1% 예비자금 53 19.7%	총자산 1억 274 금융 2,642 부동산 6,400 기타 1,232	2,049
300▶				
5구간 상위20%	458	소비 188 41.0% 부채상환 29 6.3% 저축/투자 109 23.8% 예비자금 132 28.9%	총자산 2억 2,098 금융 4,242 부동산 14,250 기타 3,606	3,189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17만원 93% ④	6 80%	6 30%	6 71%	20 25% ⑥	10 64%	9 57%	6 13%	8 10%	11 22%	6 42%
25 91%	10 85%	8 43%	8 87%	27 30%	16 68%	14 59%	7 24%	15 23%	15 11%	8 47%
27 94%	12 84%	8 46%	8 87%	26 35%	17 68%	14 62%	9 27%	18 26%	12 11%	8 45%
29 88%	13 90%	9 52%	9 91%	29 34%	20 73%	15 55%	8 35%	22 35%	19 13%	12 46%
47 89%	22 85%	14 61%	13 91%	38 29%	29 80%	27 53%	15 32%	33 34%	32 20%	19 50%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02 3040 미혼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162 만원	소비 88 54.3% 부채상환 13 8.0% 저축/투자 42 25.9% 예비자금 19 11.8%	총자산 1억 339 만원 금융 2,559 부동산 6,548 기타 1,232	1,833 만원
200 ▶ 만원				
2구간	233	소비 114 48.9% 부채상환 23 9.9% 저축/투자 58 24.9% 예비자금 38 16.3%	총자산 1억 4,964 금융 3,538 부동산 10,110 기타 1,316	3,211
260 ▶				
3구간	291	소비 127 43.6% 부채상환 28 9.6% 저축/투자 79 27.1% 예비자금 57 19.7%	총자산 2억 2,148 금융 4,780 부동산 15,421 기타 1,947	3,416
300 ▶				
Group 02 평균	352	소비 154 43.8% 부채상환 34 9.7% 저축/투자 99 28.1% 예비자금 65 18.4%	총자산 2억 9,312 금융 6,446 부동산 20,402 기타 2,464	4,150
400 ▶				
5구간 상위20%	595	소비 233 39.2% 부채상환 43 7.2% 저축/투자 145 24.4% 예비자금 174 29.2%	총자산 5억 251 금융 11,126 부동산 35,336 기타 3,789	5,326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22만원 92% ④ ⑤	11 84%	10 65%	7 97%	27 34% ⑥	14 65%	11 46%	6 23%	19 22%	18 5%	9 46%
30 91%	14 88%	11 66%	8 95%	27 33%	16 76%	13 52%	9 30%	20 30%	12 8%	11 54%
33 91%	15 89%	11 77%	8 94%	27 33%	22 74%	14 59%	9 31%	21 35%	13 10%	14 59%
39 92%	17 91%	13 80%	10 97%	35 32%	23 78%	17 60%	10 41%	27 38%	17 10%	14 58%
54 90%	24 88%	20 77%	13 96%	45 24%	42 76%	28 56%	14 41%	36 46%	25 12%	26 64%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03 2040 기혼 무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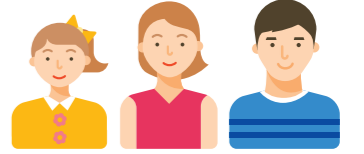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297 만원	소비 161 54.2% 부채상환 43 14.5% 저축/투자 56 18.9% 예비자금 37 12.4%	총자산 2억 6,548 금융 2,793 부동산 22,049 기타 1,706	7,142 만원
2구간	444	소비 205 46.2% 부채상환 52 11.7% 저축/투자 88 19.8% 예비자금 99 22.3%	총자산 3억 9,302 금융 3,993 부동산 32,173 기타 3,136	7,495
3구간 Group 03 평균	517	소비 221 42.7% 부채상환 53 10.3% 저축/투자 108 20.9% 예비자금 135 26.1%	총자산 4억 5,793 금융 5,412 부동산 37,674 기타 2,707	9,446
4구간	635	소비 263 41.4% 부채상환 57 9.0% 저축/투자 147 23.1% 예비자금 168 26.5%	총자산 6억 6,071 금융 7,525 부동산 53,831 기타 4,715	9,503
5구간 상위20%	931	소비 340 36.5% 부채상환 83 8.9% 저축/투자 219 23.5% 예비자금 289 31.1%	총자산 9억 5,353 금융 11,317 부동산 78,787 기타 5,249	1억 1,039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50만원 90%	18 86%	17 94%	13 98%	30 42%	15 57%	14 37%	13 38%	24 26%	34 9%	12 51%
57 94%	25 95%	18 94%	15 98%	49 30%	22 66%	19 58%	12 34%	26 35%	33 10%	22 54%
66 98%	24 94%	19 95%	16 98%	38 25%	28 67%	21 51%	13 40%	26 40%	38 4%	19 56%
72 94%	31 95%	22 96%	16 94%	52 34%	32 66%	27 49%	17 42%	33 34%	48 10%	23 60%
88 94%	37 89%	28 96%	20 97%	60 24%	48 76%	35 58%	21 49%	44 58%	66 9%	32 65%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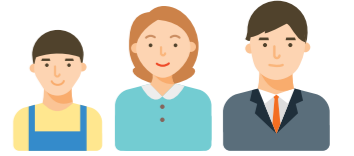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290 만원	소비 174 60.0% 부채상환 45 15.5% 저축/투자 48 16.6% 예비자금 23 7.9%	총자산 3억 2,039 금융 2,403 부동산 26,461 기타 3,175	7,705 만원
350 ▶ 만원				
2구간	412	소비 223 54.1% 부채상환 51 12.4% 저축/투자 65 15.8% 예비자금 73 17.7%	총자산 4억 7,406 금융 3,703 부동산 41,093 기타 2,610	1억 284
450 ▶				
Group 04 평균	508	소비 279 54.9% 부채상환 63 12.4% 저축/투자 88 17.3% 예비자금 78 15.4%	총자산 5억 8,024 금융 4,559 부동산 49,213 기타 4,252	1억 573
570 ▶				
4구간	625	소비 297 47.5% 부채상환 79 12.6% 저축/투자 120 19.2% 예비자금 129 20.7%	총자산 7억 1,039 금융 7,219 부동산 58,978 기타 4,842	1억 1,982
700 ▶				
5구간 상위20%	967	소비 391 40.4% 부채상환 91 9.4% 저축/투자 201 20.8% 예비자금 284 29.4%	총자산 10억 6,057 금융 12,410 부동산 86,412 기타 7,235	1억 3,166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55만원 90% ④ ⑥ ⑤	19 81%	18 91%	14 90%	38 31%	13 57%	14 36%	11 37%	14 25%	31 63%	13 54%
72 94%	21 90%	20 95%	17 97%	34 24%	18 64%	19 49%	10 42%	16 30%	38 68%	16 58%
80 91%	25 89%	24 96%	17 96%	41 27%	23 59%	25 48%	12 41%	27 36%	47 72%	19 50%
86 95%	30 88%	25 92%	17 95%	40 17%	30 64%	23 60%	15 48%	35 45%	53 74%	19 58%
91 95%	34 93%	28 94%	22 96%	61 25%	31 62%	32 60%	19 50%	44 54%	86 77%	34 63%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39 만원	소비 213 62.8% 부채상환 46 13.6% 저축/투자 54 15.9% 예비자금 26 7.7%	총자산 3억 9,520 금융 3,462 부동산 33,947 기타 2,111	6,401 만원
400 ▶ 만원				
2구간	468	소비 284 60.7% 부채상환 57 12.2% 저축/투자 73 15.6% 예비자금 54 11.5%	총자산 5억 4,593 금융 4,968 부동산 46,624 기타 3,001	9,609
500 ▶				
3구간	551	소비 309 56.1% 부채상환 60 10.9% 저축/투자 93 16.9% 예비자금 89 16.1%	총자산 6억 3,295 금융 6,693 부동산 52,948 기타 3,654	9,072
600 ▶				
Group 05 평균	4구간 677	소비 337 49.8% 부채상환 62 9.2% 저축/투자 121 17.9% 예비자금 157 23.1%	총자산 7억 1,596 금융 8,543 부동산 59,437 기타 3,616	8,710
800 ▶				
5구간 상위20%	972	소비 421 43.3% 부채상환 84 8.6% 저축/투자 210 21.6% 예비자금 257 26.5%	총자산 11억 3,881 금융 14,515 부동산 93,348 기타 6,018	1억 1,760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61만원 93% ④ ⑥ ⑤	18 89%	21 94%	15 97%	35 23%	15 48%	15 44%	10 34%	20 38%	45 82%	14 53%
78 92%	26 89%	25 95%	19 97%	45 24%	24 58%	18 51%	13 45%	24 45%	63 87%	19 58%
80 93%	26 89%	25 96%	19 99%	34 17%	26 62%	23 54%	14 48%	27 52%	72 90%	21 59%
80 94%	28 91%	25 96%	18 98%	46 14%	28 62%	25 61%	14 48%	34 61%	84 91%	25 64%
100 97%	31 89%	30 94%	21 97%	55 13%	38 68%	28 59%	14 47%	38 60%	116 91%	28 65%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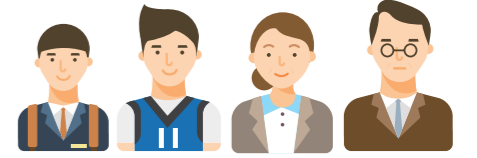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20 만원	소비 212 66.3% 부채상환 36 11.3% 저축/투자 46 14.4% 예비자금 26 8.0%	총자산 2억 9,063 금융 3,169 부동산 24,276 기타 1,618	4,940 만원
400 ▶ 만원				
2구간	474	소비 293 61.8% 부채상환 54 11.4% 저축/투자 75 15.8% 예비자금 52 11.0%	총자산 6억 3,734 금융 6,175 부동산 53,490 기타 4,069	7,617
500 ▶				
3구간	562	소비 333 59.3% 부채상환 62 11.0% 저축/투자 85 15.1% 예비자금 82 14.6%	총자산 6억 1,243 금융 6,571 부동산 51,484 기타 3,188	8,732
600 ▶				
Group 06 평균	719	소비 359 49.9% 부채상환 48 6.7% 저축/투자 137 19.1% 예비자금 175 24.3%	총자산 8억 4,655 금융 14,728 부동산 65,651 기타 4,276	6,840
850 ▶				
5구간 상위20%	1,048	소비 478 45.6% 부채상환 79 7.5% 저축/투자 218 20.8% 예비자금 273 26.1%	총자산 12억 43 금융 18,426 부동산 94,893 기타 6,724	8,489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50만원 89% 5	21 86%	20 97%	17 99%	30 28%	17 42%	13 47%	11 34%	18 48%	57 85% 6	18 61%
73 96%	24 89%	25 95%	19 100%	33 16%	26 46%	19 55%	12 41%	25 67%	79 88%	18 67%
76 93%	27 92%	25 98%	20 98%	37 19%	25 60%	21 59%	15 55%	28 70%	86 91%	19 67%
80 96%	26 89%	23 98%	20 98%	42 12%	27 67%	23 67%	14 59%	28 77%	108 95%	21 70%
90 96%	30 95%	31 99%	28 98%	77 10%	39 71%	29 77%	15 62%	35 79%	144 97%	35 74%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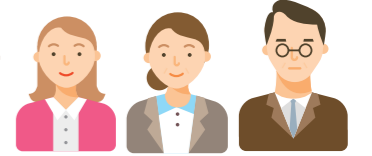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322 만원	소비 223 69.3% 부채상환 36 11.2% 저축/투자 48 14.9% 예비자금 15 4.6%	총자산 4억 2,145 금융 4,016 부동산 34,927 기타 3,202	5,007 만원
440 ▶ 만원				
2구간	491	소비 309 62.9% 부채상환 58 11.8% 저축/투자 75 15.3% 예비자금 49 10.0%	총자산 5억 8,242 금융 5,691 부동산 48,591 기타 3,960	6,886
530 ▶				
3구간	596	소비 342 57.4% 부채상환 60 10.1% 저축/투자 108 18.1% 예비자금 86 14.4%	총자산 7억 1,958 금융 8,447 부동산 58,865 기타 4,646	7,107
650 ▶				
Group 07 평균	762	소비 358 47.0% 부채상환 46 6.0% 저축/투자 131 17.2% 예비자금 227 29.8%	총자산 9억 5,002 금융 12,810 부동산 78,182 기타 4,010	6,813
900 ▶				
5구간 상위20%	1,100	소비 484 44.0% 부채상환 83 7.5% 저축/투자 253 23.0% 예비자금 280 25.5%	총자산 11억 9,137 금융 19,077 부동산 93,962 기타 6,098	1억 241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53만원 94% ④ ⑤	21 92%	20 95%	17 99%	33 24%	19 37%	14 53%	12 43%	28 50%	61 63% ⑥	18 68%
63 94%	27 94%	27 97%	22 98%	45 21%	23 52%	19 58%	16 47%	34 58%	81 72%	25 74%
75 92%	28 93%	27 95%	22 98%	39 12%	29 63%	21 63%	19 58%	37 69%	87 76%	24 73%
70 92%	29 94%	27 98%	22 98%	42 16%	30 62%	25 64%	17 62%	35 70%	114 75%	27 75%
87 95%	37 96%	31 100%	27 100%	49 13%	42 74%	32 70%	22 72%	56 78%	156 75%	36 75%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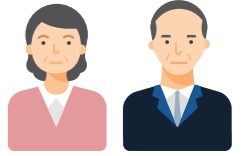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240 만원	소비 144 60.0% 부채상환 29 12.1% 저축/투자 43 17.9% 예비자금 24 10.0%	총자산 2억 9,222 금융 3,635 부동산 23,753 기타 1,834	3,723 만원
350 ▶ 만원				
2구간	422	소비 246 58.3% 부채상환 50 11.8% 저축/투자 89 21.1% 예비자금 37 8.8%	총자산 5억 5,094 금융 4,675 부동산 46,581 기타 3,838	6,292
500 ▶				
Group 08 평균	530	소비 272 51.3% 부채상환 46 8.7% 저축/투자 109 20.6% 예비자금 103 19.4%	총자산 5억 9,750 금융 8,898 부동산 46,875 기타 3,977	5,027
600 ▶				
4구간	716	소비 305 42.6% 부채상환 54 7.5% 저축/투자 146 20.4% 예비자금 211 29.5%	총자산 7억 9,523 금융 10,666 부동산 64,688 기타 4,169	7,056
800 ▶				
5구간 상위20%	1,034	소비 418 40.4% 부채상환 76 7.4% 저축/투자 238 23.0% 예비자금 302 29.2%	총자산 11억 222 금융 18,122 부동산 86,692 기타 5,408	7,961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37만원 88% ⑤	17 91%	17 92%	12 96%	28 25%	18 36%	12 48%	15 50%	22 27%	22 4%	16 76%
66 94%	27 92%	25 95%	21 96%	44 19%	26 50%	21 60%	19 57%	31 34%	47 11%	25 77%
60 91%	29 82%	25 96%	19 98%	41 20%	31 64%	22 61%	23 72%	43 50%	45 15%	27 76%
78 93%	32 91%	30 96%	22 96%	49 15%	31 66%	30 63%	21 69%	29 39%	73 14%	31 77%
93 95%	41 94%	33 99%	26 99%	70 17%	51 76%	37 79%	26 75%	40 60%	78 16%	44 87%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Group 09 60대(60~64세)



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 ①	소득운용 현황	보유자산 ②	부채 잔액
1구간 하위20%	197 만원	소비 127 64.5% 부채상환 22 11.2% 저축/투자 38 19.3% 예비자금 10 5.0%	총자산 2억 5,131 금융 3,474 부동산 20,438 기타 1,219	3,082 만원
280 ▶ 만원				
2구간	346	소비 205 59.2% 부채상환 35 10.1% 저축/투자 68 19.7% 예비자금 38 11.0%	총자산 4억 8,864 금융 6,850 부동산 39,312 기타 2,702	4,434
400 ▶				
3구간	466	소비 277 59.4% 부채상환 49 10.5% 저축/투자 93 20.0% 예비자금 47 10.1%	총자산 7억 290 금융 9,110 부동산 57,785 기타 3,395	6,378
500 ▶				
Group 09 평균	608	소비 300 49.3% 부채상환 58 9.5% 저축/투자 126 20.7% 예비자금 124 20.5%	총자산 7억 6,787 금융 11,265 부동산 61,167 기타 4,355	6,434
700 ▶				
5구간 상위20%	1,032	소비 431 41.8% 부채상환 76 7.4% 저축/투자 214 20.7% 예비자금 311 30.1%	총자산 11억 2,412 금융 15,580 부동산 89,958 기타 6,874	8,931

①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미혼 및 이혼/사별자는 본인 기준)
 ② 보유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
 ③ 총소득 중 해당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총합 100%)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주거비	여가/취미	패션/잡화	모임회비	용돈지급	교육비	의료비
35만원 89% ④ ⑥ ⑤	15 85%	13 94%	10 96%	28 41%	14 41%	11 46%	11 44%	18 17%	21 10%	15 80%
49 89%	24 91%	22 95%	14 97%	36 26%	19 42%	15 52%	17 63%	25 26%	52 13%	23 80%
63 93%	27 92%	26 97%	18 98%	54 18%	27 50%	22 58%	20 69%	35 35%	63 25%	29 82%
69 90%	33 91%	25 97%	19 97%	44 15%	34 75%	22 67%	24 74%	32 41%	63 20%	30 86%
97 93%	43 90%	39 95%	28 97%	78 19%	58 73%	45 71%	33 79%	36 38%	89 15%	47 85%

④ 각 소비 항목별 금액은 고정 소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기준 소비 금액 평균임
 ⑤ 고정소비율 각 소비 항목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⑥ 소득구간 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가장 큰 소비 항목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

- 발행** 신한은행 Mydata Unit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www.shinhan.com
mydataunit@shinhan.com
- 검수** 김혜주 상무, 윤근혁 팀장, 문성기 수석, 윤보희 수석
최소연 선임, 김혜린 선임, 최민규 선임
- 발행일** 2022년 3월
- 자료조사** (주)컨슈머인사이트
- 디자인** 그래픽나인

본 제작물은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